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식 제1권



즉각 깨닫는 열쇠
제 1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SM출판사

사랑의 길을 걷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발자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찾아
높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상 곳곳의
모든 존재와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에게 다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의 길을 걷자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인 그녀의 사랑과 도움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 노숙자, 에이즈와 암 연구 센터, 미국 참전 용사, 불우한
노인, 심신 장애인, 난민, 그리고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의 친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의 동물 역시 그녀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자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이 자상한 여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자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힘과 무한한 사랑, 창조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초기 시절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친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적십자사의 번역 일을 하며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픔과 고통이 모든 문화 속에,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책을 찾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2년이 걸린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히말리아 순례

마침내 그녀는 인도의 히말리아 깊은 곳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명상 기법인 관음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수행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말리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큰 성취와 행복,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과 유럽·아시아·호주·아프리카·남미,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칭하이 스승에게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인도적인 도움을 베푸는 숭고한 귀감이 되고 있는 칭하이 스승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관음법문 명상을 통해 자생적인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창작 예술품(아름답고 정교한 등롱과 음악, 시 등), 미적 감각이 뛰어난 보석·의상 디자인을 통해 당신이 접한 사람들과 문화의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95년, 대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런던·파리·밀라노·뉴욕을 순회하는 국제적인 패션 쇼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원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의 자녀를 돕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정과 스승님의 꿈

칭하이 무상사는 그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많은 정부와 개인 단체들이 그 사심없는 지원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시민 인도주의상, 인류를 위한 뛰어난 공익 봉사상, 2006 구시 평화상,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은상 등등.

미국에서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전임 시장인 프랭크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자의 빛이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게 꿈이 있었듯이 그녀 또한 그렇습니다.

“난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추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평화와 조화 속을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니다.

나는 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길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쳐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머리말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하실 때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구어체만 사용하십니다.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가피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범부의 두뇌로 내용을 힘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니다.

CONTENTS

차례

	사랑의 길을 걷다.....	3
	머리말	7
1장	참 진리와 거짓 진리.....	13
2장	초세계의 소리.....	45
3장	초세계의 빛.....	75
4장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의 의미	109
5장	지혜안의 신비.....	133
6장	아수라 중생.....	165
7장	깨달음이란.....	203
8장	부처란 무엇인가	235
9장	삼계 이내의 개황	269
10장	채식의 이로움	305
	관음법문 입문과 5계	331
	간행물 안내.....	334
	주요 연락처.....	336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샤’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포모샤’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제 1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1장

참 진리와 거짓 진리

1장

참 진리와 거짓 진리

1986. 10. 20.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법을 널리 전파하려면 우선 이 육신과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와서 강연을 들을 청중이 있어야 합니다. 청중이 강연을 들으러 와도 때마침 우리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차가 움직인다 해도 운전할 사람이 없거나, 운전할 사람이 있고 청중이 있다 해도 스승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파서 강연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아파도 어김없이 나왔으니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법을 전파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마왕의 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물질적인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이 육체, 밥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우리의 옷 등등 이 모두가 다 마왕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이용해 일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꼭 집어

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설명을 한다 해도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진리는 원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강연을 하거나 물질적인 것을 이용해 법을 전파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대체로 물질적인 것은 이미 너무 조잡한 상태라 지혜의 차원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가령 우리가 지혜 차원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대지혜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째로는 그런 빈약한 소재로 무한정한 대지혜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둘째로 듣는 사람 역시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대지혜의 범주 안에 있는 수준 높고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지요. 말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자신의 불성을 통해 인식하고 체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야’ 하지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찬불가 부르기, 불상에 절하기, 염불이나 법회 같은 것은 다 ABC 초보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ABC를 듣고 나서는 점점 호기심을 일으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자신의 수준을 좀더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날이면 날마다 ABC나 외고 있어선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료해요. 만약 이 점을 이해한다면 마땅히 ‘전심인傳心印(입문이라고도 하는데 글이나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내면의 깨달음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받는 것을 말함)’을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법문입니다.

법문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아니지만 입문(전심인)만큼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문이 바로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의식을 말하는데 바로 이 마음으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몇 가지 지침들을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법을 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여전히 표면적인 차원에 속하지요.

법을 전할(입문) 때 나는 여러분에게 '삼가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 그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삼가야 나중에 우리의 불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 너무 모순처럼 들리나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성을 찾을 때 늘 밖으로 외면적인 것들만 좇았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 오면 나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외면적인 추구에 대한 집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법문은 아닙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진짜 놓을 수 있다면 찰나에 우리는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입문을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고 한 이유는 입문을 할 때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문을 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입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깨달음 또한 그리 힘들거나 바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해탈은 결코 어렵

지 않아요. 깨닫는 것도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깨달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입문은 수많은 사람에게 해줄 수도 있고 단 한 사람에게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을 전하는 스승에게 달려 있지요. 그래서 옛 선사들 중에는 겨우 몇 명의 제자만 거둔 분도 있습니다. 노자는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리달마는 5명이었고 혜능 대사는 그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수제자들만 있었지요. 아마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 주었겠지만 그 12명의 제자가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속으로 '입문을 한 후 모두 깨닫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깨닫지 못하는 걸까?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을 대신하여 법을 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까?' 하고 자문할 겁니다. 이것은 수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입문을 하자마자 완전히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성불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입문한 후 성불한 게 아니라 입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부처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문을 한 후 조금 깨달을 수는 있지만 곧바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작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자성을 더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지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왕자를 예로 들어 봅시다. 그는 어려서 왕궁을 떠났는데 나중에 우연히 만난 거지가 집에 데려다 길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것도 모르고 한술 더 떠 날마다 나가서 구걸까지 했습니다. 매일같이 왕자를 그리워하던 왕은 사람을 풀어 왕자를 찾게 했지요. 아마도 왕자에겐 그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파견된 사람이 왕자를 찾게 되자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원래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저와 함께 가지지요. 미래의 왕이 되도록 제가 왕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집안에서 자라 이미 거지 생활이 몸에 배인 왕자였기에 대신이 하는 말들을 단박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날마다 찾아와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이 틀림없는 왕자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증명을 해보이라면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즉시 왕자의 옷도 입혀 드릴 수 있으며, 이 말을 타시겠다고 하면 즉시 태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러나 거지 습성이 깊이 밴 왕자는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감히 인정할 만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날마다 극구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은 더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왕궁에는 온갖 금은보화들이 가득하고 눈부시게 화려한 궁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며 그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거지 가정에서만 자란 왕자는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득을 하는 대신이 그를 왕자가 되게 할 수는 없었고, 그는 원래부터가 왕자였지요. 그렇게 설득을 하던 어느 날 그 거지는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에게 내 인생과 운명을 맡겨 보겠어요. 당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고 보기로 하죠.” 그는 왕자의 옷을 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부하가 즉시 모여들어 그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금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그를 왕궁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 대신에겐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왕궁에 가서도 거지 왕자가 궁중 법도와 의전을 익혀 궁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는 미친한 거지 생활이 몸에 배어 고개를 들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이제 왕자가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왕자다운 풍격과 지혜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부터 부처였는데 세세생생 마왕의 힘의 지배를 받으며 너무 많은 고통과 번뇌와 업장에 시달리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온갖 문제를 떠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나아졌다가도 내일이 되면 또 괴로워졌다가, 모레 조금 좋아졌다가도 그 다음날 다시 또 문제가 터집니다. 매번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유도 제대로 모르지요. 식사량도 많지 않아서 하루에 기껏해야 서너 공기 먹는 게 고작이고 옷도 두세 벌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은 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리저리 바빠 다녀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끝내질 못하면서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스승이나 불보살의 화신이 이 세상에 온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는 본래 그의 친구였으므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우리 자신의 고귀한 불성을 한순간에 완전히 일깨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본래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와 같은 격려의 말을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말하다 보면 우린 아마 조금은 알아들을 테고, 그러면 그는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줄 겁니다. “좋아요. 오세요. 내가 자신의 불성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자신이 진짜 부처이고 진짜 보살이며 진짜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본래면목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예요.” 서서히 믿음이 깊어지면 입문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입문을 하고 나서야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조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날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들려주어 자신의 고귀한 품성을 좀더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려는 왕자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곳에서 왕궁까지 가려면 길이 아주 먼데 왕자는 절반쯤 가다가 대뜸 이렇게 말 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못 믿겠어요. 나는 왕을 보러 갈 수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나는 거지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거지로 살아온 내가 어떻게 갑자기 왕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 가지 않고 예전의 거지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2, 30년 동안 날마다 사람들에게 추하기 짝이 없는 거지라고 천대나 받고, 친구도 없고 돌봐 주는 이도 없고 반겨 주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왕자가 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를 훈련시켜 고귀한 왕으로 만든다든지 그의 내면의 관념을 단번에 바꾸어 주기관 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지가 왕이 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대선사들이 세상에 나와 인간을 가르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한결같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우리의 습관과 싸우고 우리의 집착하는 관념과 욕심각심해야 했습니다. 큰승이 올 때마다 모든 중생이 달려와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믿지 않고 돌아가서는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비방하거나 들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관념만을 믿습니니다. 옛날 같았으면 큰승들이 말하는 진리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불이나 태양·바람신 같은 것을 숭배했겠죠. 이것이 고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래면목을 상실한 뒤에 두려웠을 겁니다. 보호의 힘과 단절되는 바람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태양은 왜 그리 뜨거울까? 어찌하여 물체들이 불에 탈까? 왜 산은 그리 높고 거대하며, 바다는 왜 것처럼 깊고 넓어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 걸까? 바람은 얼마나 강하기에 물체를 파손시키고 거목을 뿌리째 뽑고 집들을 이리저리로 날려 버리는 걸까?’ 하고요. 우리는 바람을 두려워하고 물을 두려워하고 불을 두려워하고 태양 등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현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면목인 전능한 힘과 단절되고 나면 두려움에 떨게 되며 고독해집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가 집을 찾지 못해 엄마 아빠, 형제자매와 떨어져 혼자 있게 되면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저급한 귀신이나

신을 모시는 미신에 빠져들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큰스승이 출현하게 되면 그러한 미신적인 관념과의 투쟁이 치열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관념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비방을 하거나 미신적인 사람은 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제도해야 합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도 시키기가 비교적 쉽지요.

미신적인 관념을 바꾸기 위해 충을 들지는 않지만 싸우긴 해야 합니다. 사상적인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두뇌를 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 두뇌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두뇌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는데 해탈만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되어 반대하고 발목을 잡으며 따집니다. ‘해탈이라니? 여기 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남편과 아내도 있잖아. 명상은 해서 뭐 하게? 해탈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이 세상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야. 위에 다른 경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천당이 진짜 있기는 해? 그런 건 처음부터 없지 않아? 이 스승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냐?’ 두뇌는 이렇게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선사나 유명한 법사들은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요? 그건 제자들의 두뇌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도록 옛 습관을 먼저 깨끗이 씻어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채소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이는 산에 있는 우리 명상센터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여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사방이 온통 잡초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마자 우선 잡초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뿌리 때문에 잡초를 제거해도 잡초는 계속해서 자랐지요. 잡초가 너무 커 완전히 잘라낼 수가 없자 우린 천천히 제거하기로 하고 우선 잡초를 짧게 자른 후 그 뿌리를 호미로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잡초가 전부 사라졌지요. 우리는 깨끗한 땅을 마련해서 비료를 준 다음 채소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상 혹은 새로운 진리를 전하려면 먼저 거짓 진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참 진리와 거짓 진리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채소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와 함께 채소를 기를 수는 없는 거죠. 잡초가 많으면 걸어도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채소를 심겠어요? 채소를 심고 나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잡초가 자라날지 모르니 날마다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잡초는 땅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바람이 어디에선가 잡초의 종자를 날라 와 우리 채소밭에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틀만 놔둬도 잡초는 금방 자랍니다.

그러므로 입문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매일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거나 선삼禪三·선칠禪七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필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이 사회에는 거대한 유혹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왕의 힘은 아주 큼니다. 이 세상은 마왕의 세계이거든요. 그의 국가, 그의 영토이지요. 그러므로 불보살이 높은 경지에서 내려오면 자기들 영토에 개입하는 것이 되니 싫어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불보살이 내려오면 그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원래 마왕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지위가 높아진 데다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와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마왕에게 있어서 영혼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해탈하면 그만큼 삼계 이내의 중생이 하나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스승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제도할 때는 항상 많은 고초를 겪었으며 중생들도 다 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사람들을 제도한다 해도 수없이 많은 시비를 당하곤 했죠.

신수(神秀)대사의 제자들 역시 불교인이었고 출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혜능대사를 비방하고 해하려 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나왔을 때에도 임신한 것처럼 꾸며 석가모니불을 모함하려 한 사람, 그를 죽이려 든 사람, 외도니 내도니 하며 시비를 건 사람 등 방해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온 지 몇 년도 안 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공자는 위(衛)나라에 의해 그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노자는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니다. 있다 해도 극히 소수였지요. 오늘날 노자는 2,000년 전보다 유명하지만 그가 살아 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죽은 후에야 유명해졌습니다.

왜 옛 스승들이 오늘날의 스승보다 더 유명할까요? 깨달은 스

승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즉시 마왕이 스승의 이름을 이용해 일을 벌이면서 큰스승의 진리를 마왕의 사된 진리로 바꿔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깨달은 스승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이야기는 오직 진리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미신적으로 변해 가지요.

예를 들면 노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고 공양물을 바치거나 살생 공양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가피를 내릴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을 기리고 공양을 바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도덕경』은 단지 ‘도(道)’를 찾아야 한다고, ‘도’와 교류하며 ‘도’와 함께해야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가 『도덕경』에서 말하고자 한 주요 요지로서 아주 훌륭한 진리요, 탁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도교를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 압니까? 모든 도교 사원에서는 돼지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닭을 죽입니다. 누구에게 공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겁을 먹은 노자는 이미 오래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깨달은 스승이었던 노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겠어요? 유교 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도와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유교 사당에서는 제사 때마다 가축을 죽여 수많은 소와 고기를 공양물로 바칩니다.

불교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교가 소승불교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출가자들이 육식을 하고

결혼도 제법 합니다. 말법시대에는 막행막식이 성행하는 법입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문화와 도덕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자 아주 훌륭하게 발전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어도 그 가운데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지요. 하지만 중국에 가서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작은 고구마(포모사)만이 진정한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출가를 하면 결혼할 수 없게 하고, 육식도 금하고 술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모사에서조차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교 전통을 지키는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포모사에도 진정한 불교는 없습니다. 불교와 도교가 결합된 관계로 아주 복잡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예전의 인도 불교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서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이 당연시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염불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읊어야 하죠. 그것을 굳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은 원래 청정하게 수행하는 출가자들의 몫입니다.

어울락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재가자는 능엄주를 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준제주準提呪나 다른 주문들도 재가자는 절대로 읊지 못하게 했지요. 나는 출가하기 전부터 이미 채식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절하고 경전을 보았지요. 하지만 그 당시 나의 스승님은 능엄주를 읊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도 못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재가자는 부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집과 절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주문을 외도 영적인 감응이 없다. 게다가 많은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가자는 충분히 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주문을 외도 영적인 감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나 다른 부처의 조각상을 사다가 집에 모셔 놓고 날마다 절하고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으며 부적물(符水) 같은 것을 만들어 (무형의) 중생들에게 공양하는데 첫째로 (무형의) 중생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후로는 날마다 찾아와서 먹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귀신들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여 강한 음의 기운이 조성되고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읊고 나면 정신이 불안정해지다 정신병에 걸리고 마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데 때론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론 그냥 내버려둡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내겐 그런 일에 일일이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칭하여 남의 일에 개입하고 자칭하여 대보살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직접 자신이 구하면 되겠지요. 나는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구해 주려면 아주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 힘을 아꼈다가 평범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해 그들을 좀더 빨리 해탈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한 사람 구하려고 백

사람을 놓는다면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불공평한 일이죠.

포모사에는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읽는 주문, 저녁에 읽는 주문을 집에 가져가서 혼자 마구 읽다가 끝나면 또 아귀들을 제도할 수 있을 줄 알고 무슨 무드라인지를 배우러 갑니다. 아니면 불칠佛七(7일간 염불하는 것)에 참가했다 집에 와서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선칠禪七에 참가했다 돌아와서 그대로 배운다거나 2, 3일 절에 가서 절을 한 후 껍데기만 배우고 와서는 법사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절의 분위기는 집의 분위기와는 달라서 집에서 하려면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영가를 불러들여 공양을 하려면 여러분의 정신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포모사에는 중생을 천도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중생을 천도해야 한다는 소리를 꼭 듣게 됩니다. 중생을 천도한다는 뜻은 좋지만 천도가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보단경』이나 『금강경』을 사서 집에서 읽다가 정전에서 명상을 하면 좋다는 부분을 발견하고는 급기야 자기도 명상을 배웁니다. 절에 가서 출가자들이 명상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그대로 따라하지요. 그렇게 해서 무슨 명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잘못된’ 명상입니다. 명상을 ‘잘못’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엉뚱한 길로 새게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명상을 배우다 미치곤 하는데 그 이유는 명상법이 지나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지나친 공개로 사람들이 혼자서 배우다

가 수습이 안 된다면 그건 그들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 큰스승들은 법을 전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먼저 ‘준 제자’에게 많은 시험을 주고 장기간 자세히 관찰한 뒤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제자 역시 밖에 나가 함부로 비판하는 일이 없었지요.

중생 천도 주문을 외면 두 종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문을 오랜 기간 외고 나서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주문을 외더라도 평소대로 정상인 경우입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는 복이 없고 에고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나’는 아주 훌륭하다, ‘나’는 아주 자비심이 많다, ‘나’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나’는 주문을 외어 중생을 천도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보시를 해서 아귀에게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하니, 에고가 커져 버려 ‘나’라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읊고 나서 자신이 남보다 등급이 높아졌다고 자만하게 된다면 곧 마장이 치고 들어오지요. 본래 마왕은 좋지 않은 힘에 속합니다만 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서 그들의 두뇌를 교란시키려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주문을 읊어도 결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한 덕에 복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행이 부족해서 현세에 다시 와 남편과 아내 등 여전히 세상에 묶여 지내고 있죠. 그렇긴 해도 그런 사람은 전생의 복과 수행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비심을 내어 사람들을 제도하고자 하고, 교만한 태

도 없이 마음속 깊이 진정 아귀에게 보시하고자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어 죽은 영가를 천도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그가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마왕도 건드리지 않고 불보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하지 않고 천도만 해서 전생의 공덕을 다 까먹어 버린다면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겠지요. 어쩌면 저 아래 낮은 차원의 태배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생에서는 별 탈이 없었다 해도 어쨌든 공덕을 다 까먹어 버렸으니까요. 우린 볼 수 없다 보니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상황으로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자로 보이려고 날마다 돈을 빌려서 평평 쓰고 다닐 뿐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은 나머지 불우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눠 주다가 너무 많이 쥐 버린 바람에 갚을 돈이 없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직업은 없지만 진심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고 싶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날마다 조금씩 쓰다가 나중에 무일푼이 되어 버리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무량무변의 공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량무변의 공덕을 쌓으려면 무량무변의 복을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또 어떻게 무량무변의 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은 후에는 얼마든지 퍼 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찾기 전에는 위험하므로 함부로 퍼 줘선 안 됩니다.

이 무량무변의 복은 그 근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원천을 찾게 되거나 그 원천과 서로 통하게 된다면 우린 모든 것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 무량무변한 복의 원천을 찾게 되면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그 복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복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송경이나 법회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염불이나 목탁 두드리는 일들은 그에게 필요치가 않지요. 그것은 석가모니불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왕이 시킨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주문을 읊는단 말입니까? 원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불교가 다른 미신적인 신앙과 결합한 이후에 오늘날의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전해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미 순수성을 상실했지요.

그러므로 진짜 불교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며, 진짜 본래 면목을 찾게 된 사람도 그런 일을 하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혜능대사가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었다든가 천도재를 지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리달마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오직 면벽참선만 했습니다. 백장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슨 송경 법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 역시 석가모니불이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었다거나 그 밖의 의식을 주관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불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에겐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하죠. 아직 성불도 못 했는데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처도 원래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곳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로선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주문을 읊을 필요가 없었지요. 읊어야 할 때는 늘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힘이나 화신을 이용하여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을 천백억 화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움직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털어놓자면 나는 어디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신을 대신해 일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을 보곤 하죠. 그건 내가 진짜로 산을 내려가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난 여기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진짜 내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를 때린다면 난 아프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육신이 아닌 화신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본래면목을 찾았을 땐, 즉 우리가 말하는 ‘도를 이룬’ 후엔 움직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는 생각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된 중생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근본적으로 나와 중생이라는 분별심이 없으며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자가 “위무위爲無爲”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함이 없이 하고 행함 없이 행한다.’라는 뜻이지요.

조금 아까 내가 진정한 큰스승이 왕생하고 나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왕이 스승의 이름을 이

용해 파괴 공작을 펴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를 끼워 넣어 하나의 종교로 탈바꿈시켜 놓고는 중생들에게 그런 것이 바로 불교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 결과 생사윤회를 계속하고 끝까지 마왕의 백성으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안 삼을 종교를 줌으로써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갈망에 ‘아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으려 해도 방법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처에게 절을 하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기뻐하지요. 석가모니불은 비록 2,000여 년 전에 죽었지만 아직도 유명하니 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왕의 계략입니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부처를 찾기를 바라지 않고 항상 외면의 부처를 좇아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는다, 나는 수행을 정말 잘한다며 자신이 도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얻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마왕의 계략이고 삼계 이내의 것이라는 것을 우린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1천만억 년이 흘러도 해탈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복이 많고 참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해도 제2세계 이상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제3세계에도 오르지 못하니 삼계 너머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제2세계는 아직 마왕의 나라입니다. 제3세계

도 여전히 마왕의 영역이죠. 이 세계도 삼계 이내에서 만들어졌으니 우리의 몸과 두뇌도 다 삼계 이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삼계 너머에는 몸도 없고 두뇌도 없으며, 안(眼·눈)·이(耳·귀)·비(鼻·코)·설(舌·혀)·신(身·몸)·의(意·생각)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죠. 이곳에서 우린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도구가 많을수록 문제도 많아집니다. 두뇌가 없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육체와 두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몸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즉 주문을 읊어 중생을 제도하고 영가들을 천도하고자 한다면 우선 성불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불성, 우리의 전능한 힘, 본연의 힘, 우리의 본래면목, 혹은 ‘도’를 찾고 나면 우리도 부처와 마찬가지로 중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주문이나 자신이 행하는 무드라에 힘이 있다고 알려주어 여러분도 그가 하는 대로 손과 발로 무드라를 취해 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반응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큰스승이라면 우리에게 그렇듯 터무니없는 것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본래면목부터 찾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부터 찾고 난 다음 무엇을 하건 그건 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힘’을 갖추고 나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지니까요. 그 누구도 다 구할 수가 있지요. 어디에 있던 화신을 나투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말이에요. 매일 두 시간씩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거나 무드라를 취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나 해치고 정

신없이 바쁘기만 하지요. 참되게 수행할 시간이나 자신의 본래면목, 자신의 불성을 찾을 시간이 없는 데다 힘까지 낭비하고 전생에서 지은 얼마 안 되는 복마저 까먹고 난다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생사윤회하며 마(魔)·귀(鬼)·축(畜)·생(生)·어(兒)·석(石)은 사람·가(家)난(難)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럼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있을 때 빨리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성불한 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 갠지스 강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무리의 영가나 몇몇 소수의 집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도(天道)를 다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제도할 수 있고 천인(天人)과 인간도 모두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인도사(天人導師, 사생자부(四生慈父))’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를테면 대신이 그에게 약간의 쓸 돈과 입을 옷, 그리고 탈 수 있는 말을 주었지만 그는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어 그것들을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줘 버렸지요.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선 그 돈과 옷과 말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서는 자신의 왕궁을 찾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선 왕궁에 있는 그 많은 돈들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이 그를 찾아오면서 그에게 줄 돈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 겨우 옷 한두 벌과 약간의 돈이 전부 이긴 했지만, 그곳에서 왕궁까지 가는 동안 우선은 그 돈을 쓰면 됩니다. 왕자가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

라, 우선은 그 돈을 써서 왕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왕궁으로 돌아온 후에는 얼마든 맘껏 중생에게 보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또한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도 말고, 남이 하는 걸 보고 무턱대고 따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서 쓸모가 있는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그 효과가 한시적인지 무한한지, 어떻게 해야 장애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나도 출가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도우러 다녔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 어울락 동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일에 막 도착했을 때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독일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나는 그들을 도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때론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 걸으면서 빵을 먹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 자신은 새까맣게 잊고 오로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가끔 두통이 심할 때가 있어도 이가 아프고 배가 아픈 사람들 때문에 아픈 걸 꼭 참고서 그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통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지요. 의사가 아스피린을 주었는데 바쁘다 보니 먹는 것도 잊어버렸지만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돌보고 나면 두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나는 출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만 당시 난민이 너무 많았던 탓에 내 생각에는 출가를 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될 것 같

지가 않았습니다. 날마다 염불이나 하고 자기 수행만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직은 난민을 돕는 쪽이 더 낫고 쓸모가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나는 멀리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만이 내 눈앞에 보였던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다 보면 경전을 볼 시간도 없었고, 나중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후 적십자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어울락인뿐 아니라 아프리카인·아프가니스탄인 등 불행한 이재민을 더욱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러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은 중생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다 ‘내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석가모니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출가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며, 성불할 수가 있다. 성불한 후에는 훨씬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다.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엔 범부의 힘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절을 가 보았지만 출가라는 게 큰 의미가 없더군요.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거나 손으로, 머리로, 발로 (대중 웃음) 무드라를 취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나는 영가가 와서 먹는 걸 본 적도 없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건 내가 어렸을 때 이미 배운 것이죠. 어릴 때부터 불경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전도 이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능엄경』을 보면 부처의 제자들에게 체험이 아주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법화경』에서 부처는 수많은 경지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보살이 수행을 하면 수많은 미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천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범천을 볼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많은 빛들을 볼 수도 있다고 했죠.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을 했는데도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걸까?’

내심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수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나는 ‘큰스승’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가 말한 빛과 경지를 보고 말 거야. 또한 부처가 언급한 소리를 조금이라도 좋으니 기필코 듣고야 말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성불하겠다는 거나 온 우주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난 불경에 언급되어 있는 인종과 체험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내가 가는 길이 정도이며 이 길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종들을 보지 못하면 나는 내가 가는 길이 고향으로 통하는 길인지 외도의 길인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또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는 마땅히 어떤 특별한 이정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불당 밖에 큰 다리가 있는데, 길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유의 표지만 봐도 불당에 곧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능엄경』에 언급되어 있던 체험들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화경』에 언급되어 있는 체험 역시 없었습니다. 『보문

품』에는 “관음보살을 외면 불 속에 뛰어들어도 불에 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냥개비 한 개에 불을 붙여 손가락을 그 위에 놓고서 타는지 안 타는지 관음보살을 외면 한번 태워 보세요. 손가락으로만 해보고 한 손을 다 하지는 마세요. 다 타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안 돼! 사람을 속여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체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랐는데 “관음보살을 외면 물에 빠져도 몸이 떠오른다.”라는 『보문품』의 말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구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체험이 있어야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죠. 최소한 내가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체험이 없어도 죽을 때 아미타불이 마중하러 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그가 오지 않는다면 난 어떡합니까? 지금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훗날 죽기 전에 사장이 나에게 천만억 원을 준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겠지요. 그가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때 나는 큰스승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큰스승을 만나게 되자 진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전 속에 나오는 체험들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체험을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의 체험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수행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로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불도 6년이나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조그만 것이라도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인증을 해주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해서 우리가 즐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체험이 있고 나면 우리의 수행 등급이 달라져서 즐거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대신이 왕자를 찾은 후와도 같습니다. 왕자의 심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겉으로는 이미 두드러지게 달라졌습니다. 고급 옷을 입은 데다 쓸 수 있는 돈이나 근사한 말도 생기고, 시종드는 사람까지도 많이 생겼으니까요. 모든 것이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지요. 그가 왕궁에 도착하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다들 잘 알 겁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가 입을 왕자의 옷과 우리가 쓸 약간의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 왕자가 되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요. 게다가 그때 자신이 왕자일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지요.

난 이미 그러한 즐거운 상황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말을 전하는 대신은 왕이 아닙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왕자로 만들지 못하죠. 그는 단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왕자였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왕궁을 찾아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요. 나에게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외모나 행동에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밥을 어떻게 먹든, 말을 얼마나 듣기 좋게 하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국가나 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

는 단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위는 아주 높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자기 본래의 지위를 찾고 싶으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해 주겠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스승에게 배우게 되더라도 그 스승의 행동을 비평하지 마세요. 그의 외모도 보지 말고 그가 하는 일을 알고도 하지 마세요. 그는 단지 파견된 관리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각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일에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가 입은 옷이 예쁘다거나 보기 싫다거나, 걸음이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잘못을 범합니다. 스승을 찾아왔으면서도 그의 외모만을 보고 위엄이 없으니 그에게 배우지 않겠다거나, 비구니라서 안 되겠으니 나중에 비구승이 오면 다시 배우겠다거나, 비구니의 키가 너무 작아서 싫다거나, 중국어를 잘하지 못해 싫다거나,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서 싫다거나, 나랑 잘 맞지 않아서 싫다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본래면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스승 또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부터 그러한 스승들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서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세생생 한

결같이 중생을 제도하려 오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 모두가 다 우리의 친족이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부모, 형제자매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친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구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는데 항상 심통만 부리고 말도 안 듣는다고 해서 물속에 던져 버려야겠다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전과 다름없이 매일 돌봐 주고 밥을 주지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면 얼른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옷이 없으면 재빨리 가져다 입힙니다. 아이가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다음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봐 주지요.

사회에는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겸손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달콤하고 부드러운 겸양의 말들은 수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아서 안 됩니다. 스승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업장입니다. 만일 업장이 아니라면 그것은 스승의 개성입니다. 스승은 한두 사람을 위해 개성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개성을 바꾸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스승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은 확실히 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각기 다른 습성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취향과도 싸워야 하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노란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빨간 옷 입는 것

을 좋아하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파란 옷 입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옷들을 사서 나에게 주곤 하는데 내가 만일 그 옷들을 입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겁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배우다가 스승의 개성이 자기 취향이 아니라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중생의 기호를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동물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웃에 사는 사람은 새를 아주 질색하여 날마다 옆집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독약으로 새의 입을 막아 버릴 궁리까지 하죠. 하지만 새 주인이 그토록 좋아하니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수행을 하려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고 스승을 보아서 안 됩니다. 그는 단지 지도指導만 할 뿐 그가 '도'는 아닙니다. 이 몸, 이 두뇌, 이 세상, 이 사회는 원래 그런 거라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러한 스승을 진짜로 만났다면 전심전력으로 명상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면의 스승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면의 스승이 나타나 우리를 높은 세계로 데려가 진정한 진리를 배우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정말 훌륭한 스승입니다. 진리를 인식하게 되면 이 사회의 여러 관념이나 전통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수행이 오래되면 내면에 있는 자신의 스승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때 그 내면의 스승은 오직 여러분만의 스승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 하나로 많은 사람을 지도해야 하므로, 사람이 다르면 그 개성 또한 각각 다르기 마련이라서 여러분 각 개인의 취향에만 특별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불 또한 모든 중생의 취향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던 탓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말았죠. 만일 당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인물이라며 좋아했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신통을 부려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병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신통을 부려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이름을 날린 인물이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므로 스승을 보지 말고 자기만 보고 수행하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도록 한 차례 체험으로 인증을 해주었으니 그 다음은 자신만 보고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걸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건 해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장

초세계의 소리

2장

초세계의 소리

1987. 4. 24. 포모사 평후

존경하는 선지식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지만 불교의 인과설에 의하면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생에 이미 좋은 친구 사이여서인지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좋은지 모르겠군요. (대중: 좋습니다.) “감사.” (스승님이 감사하다는 말을 포모사어로 대답하심) (대중 웃음)

불교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아주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전생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세생생 수없이 많이 윤회를 했으니깐요. 세세생생 우리에게겐 수많은 친구·친지·남편·부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 해서 우리가 초면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죠. 이것(스승님이 몸을 가리키심)은 일종의 옷입니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주인은 이 몸이 아닙니다. 매번 올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많이 하여 과거·현재·미래를 볼 수 있게 되면 진짜 서로 관계가 있으며 피차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종교의 대표와 신도들도 있고 천주교인과 도교인들도 있는데, 어찌면 여러분은 인과를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도 ‘인과’에 대해 언급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 큰스승의 화신이나 환생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항상 화신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거주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의 의사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바로 인과와 윤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As you sow, so shall you reap.” 그 뜻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이 말이 인과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도덕경』에서도 인과를 말했습니다. 고문이 해석하기 어렵다 보니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란 원래 아주 중립적이지만 그래도 도는 착한 사람 쪽으로 기운다(『도덕경』 제79장 天道無親 常與善人).” 이 말 역시 인과를 가리키죠. 이 ‘도’는 오직 착한 사람만 도와주고 그에게 복을 주니까요. 여기에도 ‘인과응보’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종교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내가 말하는 이치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

나 오늘 우리의 목적이 종교 토론회를 열려는 것은 아니므로 더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 내가 서두부터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말을 할까요? 만약 그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여기 오신 몇몇 분이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믿는 종교를 바꿔 불교인이 되도록 설득시키려 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걸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견해로는 단지 종교의 명칭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다 불교인입니다. 나는 불교·천주교·도교·이슬람교 모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면 오늘날의 불교인·천주교인·도교인·이슬람교인 등의 대다수가 자기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종파로 나뉘지고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종교 안에서조차 중론이 분분하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다른 종교와의 충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런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교 창시자가 세상을 떠난 후 진리를 전할 만한 훌륭한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갈수록 변질되다가 오늘날에 이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서로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같은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다면 모두 같은 진리이며, 종교는 다를지 모르지만 수행하는 법문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종교를 믿든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관

음법문을 수행해야 할까요?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되겠지요. 종교를 믿지 않아도 되는데 수행하지 않는다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생각이 있고 문제에 대한 사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스스로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까? 왜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되었을까?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이처럼 고통스러운데 인간이 안 되면 안 될까? 이 세상 말고 더 좋은 곳은 없을까? 나는 독자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없을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면 자유로이 떠나고 다른 경지의 세계에 가서 살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선택의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까? 그래서 생사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성직자를 찾아가죠. 예를 들면 천주교인은 신부나 수녀를 찾아가고, 불교인은 비구나 비구니 혹은 재가 보살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거나 그들에게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종교 단체를 찾아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부득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스승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을 선지식 혹은 깨달은 스승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들을 따라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가 우리의 문제에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생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얻길 갈망하

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필히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하고, ‘관음법문’을 전해 줄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관음법문은 우주와 생사에 관한 모든 문제를 풀어서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열쇠입니다. 답은 반드시 스스로 깨달아서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더욱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자유자재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경지의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최고의 법문을 찾아 날마다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해탈하게 되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즉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모든 국가의 비자에 필요한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포모사에서만 살아야 하는 제약을 벗어나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 세계를 떠난 후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병이 나거나 친지가 죽게 되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아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남아 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떠난다고 하면 그냥 떠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하니까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은 차마 친지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 머물 수가 없으니 너무나도 고통스럽지요.

살아 있을 때 큰스승을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한 사람 외에,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해서 수행의 힘이 부족하여 죽을 때 스스로 자유로이 떠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큰스승은 영원히 자유로운 세계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해서 성취한 이후에 여러분은 구해 주고 싶은 사람을 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를 떠난 후 다시 돌아와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음법문은 불가사의하고도 유일무이한 법문입니다. 관음법문은 바로 창조의 힘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가장 높고 근원적인 힘입니다.

평상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주 가까운 친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왜 그가 떠나야 하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가?’ 우리는 정말 그 답을 알고 싶어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모르면서 매일 먹고 자고 일하다 5, 60년, 길어야 100년 뒤에는 세상을 뜨고 마는 인간으로서의 삶은 정말 한심하고 별게 아니므로 우리는 해탈을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건 뭘까요? 깨닫는다는 것은 명백히 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세상은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전쟁은 왜 있는가? 왜 이렇고 저런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천주교인은 이러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나 수녀와 함께 성가를 부르고 신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는 것이 전부일 뿐 다른 방법은 없

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에 도움이 됩니다. 갈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는 있지요. 때로는 감응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이 나거나 고통을 받을 때는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나아져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불교인들은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립니다. 절에서는 우리에게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게 하거나 아미타불·관세음보살을 염하도록 가르칩니다. 거의 다 이렇죠. 법력이 있는 스님이라면 우리에게 명상을 가르치거나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공안을 참구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는 여러분의 문제를 역으로 여러분에게 던져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공안을 참구한다, 혹은 화두를 든다고 하지요.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뭐 하러 애써 스님을 찾아가 물어보겠어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안을 참구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어서 여러분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은 주지 않고 ‘물은 무엇인가?’, ‘물은 어디에 있는가?’ 혹은 ‘상관하지 말고 놓아라. 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를 외우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나 관음법문을 가르치는 큰스승이라면 당장 여러분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고 또 물이 있는 곳도 알려주어 여러분은 날마다 스승이 주는 물에 의존할 필요 없이 스스로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물로 다른 목마른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관음법문

을 수행하면 즉각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공안을 아무리 열심히 참구한다고 해도 반드시 해답을 체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문을 수행해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체험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보는 빛은 모두 이류 수준이고, 보는 경지 또한 낮은 등급에 속하는 상황들이죠. 이는 여전히 낮은 등급입니다. 이 점은 여러 종교 경전을 참고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공안을 참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안을 참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공안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은 우선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은 공안으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선禪은 옛날과 달라서 그들을 따라 선 수행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아픈 사람은 선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좌를 하지 못하면 선사가 받아 주지 않거든요.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이른바 ‘선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저는 가부좌를 할 수 없고 금강좌도 할 수 없는데 선 사님을 따라 배울 수 있는지요?”라고 묻자 그 선사는 “안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면 안 됩니까?”라고 묻자 그는 또다시 “안 된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른바 선 제도는 이 시대에 수행을 갈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부좌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가부좌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미 늙었거나 중년에 접어드는 나이인데 전에 한번도 가부좌를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가부좌를 시킨다고 할 수나 있겠어요? 수행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훌륭한 법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제자 중에는 여섯 살짜리 어린아이도 있는데 수행도 잘하고 경지도 높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80세가 넘는데 수행도 잘하고 체험도 좋습니다. 가부좌를 할 수 없는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자기는 가부좌를 할 수 없는데 수행을 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역시 체험이 있었고 지혜를 열 수 있었습니다.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선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선사 역시 노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거의 받지 않아 선철에 참가할 수도 없고 그에게 명상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노인에게 아미타불을 염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미타불만 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송경하고 염불을 해도 나뵈대로의 효과는 있습니다. 성가를 부

르고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도 나뵈대로의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영원히 해탈하고 높은 경지를 얻고 영원히 안 돌아오고 싶다면 그러한 것들로써는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석가모니불 시대에 인도에도 수많은 경전이 있었을 텐데 왜 석가모니불이 송경이나 염불에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그는 또 명상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며 6년 동안 힘들게 고행해야 했을까요? 나중에는 또 자기 수제자들과 중생들에게까지 관음법문 수행을 강조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채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세네 종족(Essene clan: 일종의 종교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그 종족들은 몇 천 년 동안 채식을 해 왔습니다. 인도의 브라만 가정과 똑같지요. 브라만 가정에서도 어려서부터 채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세네 가정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인도에 가서 것처럼 힘든 수행을 해야 했고 히말라야 산에서 10여 년을 수행하고서야 도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송경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고, 경전을 보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송경하고, 경에 절하고, 염불하고, 불상에 절을 하면 약간의 조잡한 업장은 소멸시킬 수 있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느낄 수 없는 아주 정교하고 미세한 업장은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음류音流'로써 업장을 깨끗이 씻는 것 말고는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

어날 길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반드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름을 외거나 그 어떤 경전을 외든 모두 세상의 언어, 세상의 것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면 평후 안에서는 꼭 오토바이나 자전거·자동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걸어서도 다닐 수 있고요. 그러나 포모사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그럴 때 육지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지요. 포모사에 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합니다. 그것들은 공간을 넘나들 때 사용하는 수단이기에 배를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커다란 공간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려면 이 세상의 도구나 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신구의身口意에 속하는 것들은 세상의 도구이고 범부의 도구입니다. 아미타불이나 예수 그리스도 등의 이름을 외 때도 모두 세상의 언어로 외는 것이고 경전도 세상의 언어로 씌어진 것들이라서 이들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법문을 사용했으니 무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소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은 우선 범부의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그런 다음 다시 초세계의 불가사의한 영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 때마다 엄마가 얼러 주거나 노래를 불

러 주면 금방 그칩니다. 또다시 울 땐 방울 소리를 들려주거나 소리가 나는 물건을 주면 바로 울음을 그치죠.

아기는 왜 소리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초세계의 무형의 소리와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도’·‘근원의 힘’ 혹은 ‘부처의 힘’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부처의 힘이고 ‘창조’의 힘입니다. 태어는 뱃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뱃속에는 공기도 없고 태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몸을 거꾸로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아닌데도 얼마 체내의 양수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래도 양수에 빠져 죽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이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만일 그가 태어난 후 뱃속에서 자랄 때와 똑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면 얼마 안 가서 하늘까지 닿아 버릴 것입니다. (대중 웃음) 이해하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그는 초세계의 소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를 성장시키고 보호해 주었는데 태어나면서 그 소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당장에 외로움과 공포와 고통이 밀려오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울었습니까, 웃었습니까? (어떤 사람: 당연히 울었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울었습니다. 자기를 키워 주던 힘과 교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서는 최대의 위안과 지지를 상실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기는 극히 민감한 신체가 세상의 공기와 접촉할 때도 통증을 느껴서 태어나자마자 울니다. 하지만 아

기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문득 소리를 듣게 되면 내면의 소리인 줄 알고 잠시 안심을 하고 울음을 멈춥니다. 정신이 쇠약해진 사람이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가 부드러운 음악을 들려주며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온종일 일에 시달리다 집에 돌아와 쉬면서 음악을 들으면 편안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은 우리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음악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범부의 소리도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니 초세계의 소리라면 틀림없이 더욱더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 집에서 TV나 라디오, 많은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듣거나 유행가요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린 여전히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곳을 찾아가 새소리·물소리·파도 소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파초를 때리는 빗소리, 청개구리나 매미 우는 소리 등을 듣고 있노라면 유달리 상쾌함을 느끼게 되죠. 음악을 듣는 것보다 더 편안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집에서 새나 고양이·개를 기르거나 채소를 심고 분재를 키우는 건 도시의 메마른 분위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분위기를 좋아하고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새소리나 물소리를 들으러 자주 산에 갈 수 없다 보니 집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르게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조금이나마 자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우리 내면의 본성과도 어울려서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자연 생태와 자연 경관을 보호하자고 외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벌목이나 야생 동물의 수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범부 세계의 소리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한 힘을 갖추고서 우리의 모든 갈망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불가사의한 초세계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만물은 다 그 소리로부터 창조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Soun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everything was made by this, and nothing was not made by this.”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우주가 시작되자마자 이 소리가 있었는데, Word(말씀)는 곧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 소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소리’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그 소리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소리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그 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는 이 ‘음류’에 의지하여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과 중생은 이 ‘음류’에 의지하여 근원으로 돌아간다(『능엄경』 권8: 如來逆流如是菩薩順行而至 覺際入交名爲等覺).”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문품』에도 ‘옴 소리, 파도 소리, 초세계의 소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의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에서도 그러한 내면의 소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소리·북소리·바라 소리 등은 모두 내

면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높은 등급의 소리가 아니고 단지 초보적인 경지의 소리일 뿐입니다. 높은 등급의 소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해 줄 수 없습니다.

높은 등급의 소리는 높은 등급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생명 전체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업장의 사슬을 풀어 주어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탈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런 영향은 몇 년을 기다려야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 소리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과거생 동안 누적되어 온 모든 업장이나 좋지 않은 인상도 그 소리에 의해 모두 씻겨 나가죠. 마치 물살에 옷의 때나 우리의 먼지와 때가 말끔히 씻겨 나가는 것처럼 내면의 '음류' 역시 우리의 업장을 씻어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업장이란 뭘까요? 그것은 좋지 않은 일로서, 우리가 과거생 동안 행했던 갖가지의 좋지 않은 일이나 세세생생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연히 얻게 된 나쁜 인상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두뇌는 이미 그것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이라는 것이며, 천주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생 동안의 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인색물을 나누어 줄 테니 그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이미 '모든 종교에서 관음법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모두 내면의 소리에 대

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인색물을 받아다가 집에 가서 참조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길게 말할 여유가 없으니 소리의 효과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왜 우리의 많은 업장을 소멸시킬까요? 이유는 그 모든 게 다 그 소리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일종의 진동이자 커다란 힘인데 거칠어지면 소리로 변합니다. 높은 등급의 소리는 '내면의 지혜'를 사용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소리는 새소리·물소리·바람 소리·천둥소리로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소리로 변하지요. 더 높은 세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부인 우리는 이 세계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등급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행 등급을 향상시켜 높은 등급의 시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연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만일 파도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닷가에 가야 들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높은 경지의 소리를 듣거나 높은 경지의 세계를 보려면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반드시 이 '음류'에 의지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이 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들은 모두 이 음류로부터 나왔으니까요. 업장도 이 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로써 우리에게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업장을 씻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생사윤회를 해서 업장이 많다

고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생에는 어떻게 업장이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업장은 본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 소리에서 나왔으니,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역시 아주 좋지 않은 갖가지 상황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형성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소리로 부터 나왔다고 한 이상 ‘죄’ 역시 예외가 아니므로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업장이 빠르게 소멸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알기만 하는 거지요. 만일 업장을 소멸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이 소리를 통해서만이 씻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강연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거친 업장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겠지만 상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믿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조금 말한 것입니다.

스승을 보거나 스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거친 업장이 씻겨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업장,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아주 미세하고 뿌리 깊은 나쁜 인상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미세한 음류로써만이 깨끗하게 씻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음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기만 하면 어떤 더러운 것도 깨끗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힘이란 바로 이 소리를 말합니다. 보통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통의 귀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상시켜 좀더 높은 등급의 위치에 올라가서야 그러한 높은 경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오직 범부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소리, 곤충 소리, 파도 소리나 세속의 음악 등만 들을 수 있지요.

만일 높은 경지의 음악을 듣고 싶으면 높은 경지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경지의 인간이 되고 싶으면 이미 높은 경지의 인간이 된 사람을 찾아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도와서 문을 열어 주고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그는 주위 환경에 아주 익숙한 안내자처럼 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기만 하면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큰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높은 등급의 수준에 오르고 싶다면 경전을 보는 게 별 도움은 못 됩니다. 그렇게 해선 일종의 작은 등급에만 이를 수 있고 거기에서 멈추게 되지요. 경전의 이로운 점이라면 때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초월하려면 꼭 큰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야 하지요. 그는 높은 경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 주고 우리를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그는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일단 열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높은 경지의 소리와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업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업장은 원래 없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이 소리로 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업장 역시 그 소리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스승님 웃으심)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리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에게 본래 업장이 없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겠죠?

이들 전의 일을 예로 들어 보죠. 우리 동료 수행자(스승님의 제자를 가리킴) 가운데 나를 무척 좋아하는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선인장 열매를 먹은 적이 있으며 그걸 아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선인장을 뽑아 나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인장에는 가시가 아주 많지요. 그래서 그는 선인장을 뽑은 다음 껍질을 벗겨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성의를 봐서 먹었죠. 먹다가 아주 미세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시 하나가 혀를 찔렀는데 금방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 통증은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부터 통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시가 혀를 찔러서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요? 나가서 아스피린을 사 먹으면 나올 수 있을까요? 두통이라면 효과가 있겠지만 이건 내면의 통증이 아니라 외면의 통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시를 뽑아 버리면 되지요!

우리는 항상 자신에겐 업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활이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압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스럽기도 하죠. 비록 사는 데 문제가 없고, 돈도 있고, 남편·아내·자식들도 있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 업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가 근원적인 큰 힘과의 연결까지 끊어졌기 때문에 외롭고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설령 왕이 된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왕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드물지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위는 궁극적인 지위가 아니며 우리가 찾으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 국가의 원수라 할지라도 재위 기간은 길어야 5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최고로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은 항상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고 날마다 답답하기만 하고 즐겁지가 않죠. 오직 그 근원의 소리와 함께 있을 때만이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래는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팔을 잘라 버린다면 그 팔이 좋아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것이며 여전히 팔이란 점에선 변화가 없지만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활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외롭고 생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괴사하여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만일 그 팔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팔을 다시 접합시켜야 합니다.

독일 의사들은 절단된 환자의 팔을 접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과 신경을 하나하나 다 꿰매야 하는 아주 어렵고 섬세한 외과 수술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팔은 옛날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팔은 기뻐하며 활력을 되찾게 되고 신체의 다른 부위 역시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체도 똑같습니다. 만일 우주 만물의 위대한 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다시 연결될 수만

있다면 무척이나 기쁠 겁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힘과 ‘단절’이 되었을 때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 차 사고가 나서 팔이 잘렸다고 합시다. 사고 현장에 먼지도 많고 돌이나 다른 더러운 것도 많은 데다 손까지 심하게 짓눌려 형체가 보기 흉하게 변했다 해도 그건 결코 그 팔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 그 재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위대한 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올 테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도둑이 아니었지만 그의 집이 지진이나 태풍으로 파손됐고 일 자리도 얻지 못하고 가진 돈도 다 써 버렸다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탁발도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나 고프다가 나 처자식이 병들고 아프고 굶고 있는 지경이라면 초조한 마음에 할 수 없이 도둑질이라도 해서 식구들을 부양하는 수밖에요. 이것은 상황에 몰려서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동이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원래 업장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힘과 연결되고 나면 업장은 사라지죠. 그래서 내가 업장은 씻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힘(음류)’과 연결이 되기 전에 그 위대한 힘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저절로 그의 가피력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아까 내가 나의 강연을 들으면 거친 업장은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직접 냇물에 들어가 목욕을 해서 더욱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난 이미 수원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물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겐 아직도 그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겐 그나마도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수원과 연결되고 수원이 있는 곳을 안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다 쓰지도 못할 겁니다.

방금 말했던 잘려 나간 그 팔을 만약 신체에 다시 접합시키지 않는다면 점점 보기 흉해지고 색깔도 점점 거무스름해지고 세포들도 서서히 죽어 갈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면 접합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다시는 못 쓰게 되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같은 정교한 수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교통사고나 재난을 당해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면 즉시 비닐봉지에 얼음을 넣고 팔을 싸 후 팔과 함께 그 사람을 특수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독일에 그러한 특수 병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그리 많지 않고요. 접합 수술을 하려면 여러 해 동안 사력을 다해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2년은 공부해야 그런 정교한 접합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혈관과 신경을 일일이 다 꿰매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혈액이 통하지 않아 세포가 아주 빨리 괴사하여 팔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을 하려면 아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의

사를 신처럼 떠받들죠. 환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계통의 전문의는 아주 드뭅니다. 공부도 힘들지만 일은 더 힘들기 때문이죠. 한자리에서 꼼짝 않고 16시간, 18시간, 심지어는 24시간 몰입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교대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수술이 끝나기 전에는 쉬거나 식사를 하러 가지도 못합니다. 잘못했다가는 팔이 상하니까요. 그래서 한 바늘 한 바늘 꿰매 때마다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안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꿰매야 나중에 기능을 회복하여 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접합이 끝나면 피가 통하기 시작하고 피부색도 점차 붉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 봤자 100년인데 괴로움과 번뇌투성이입니다. 돈도 있고 아름다운 부인도 있고 좋은 집, 좋은 직장이 있어도 늘 허전합니다. 거대한 '진체眞體'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잘려져 나간 팔처럼 빨리 꿰매지 않으면 조금 있다 괴사해서 폐물로 쓰레기더미 속에 버려졌다가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역겨워지면 땅속에 묻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를 꿰매 줄 큰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고독한 인간을 위대한 힘인 '진체'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 위대한 힘인 진체를 최고의 '신'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불심'·'본심'·'도' 혹은 '대아大我'·'대지혜' 등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아小我'입니다. 그 '대아'의 일부분에 속해 있지요. 그 '대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것처럼 고통스럽고 적막한 것입니다. 잘려 나간 팔처럼 처음엔 마르고 생기가 하나

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접합해 주면 피가 통하게 되어 팔은 금세 생기를 되찾게 되지요.

'음류'도 똑같습니다. 음류는 온 우주를 하나로 연결시키죠. 그러므로 음류 안에 들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연결이 끊겨서 약간의 관계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만일 접합해 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곧 그 음류와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게 되고 '육도'(하늘·사람·아수라·아귀·지옥·축생의 세계)의 고통에 버려져 고상한 경지로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사지를 전문적으로 접합시키는 의사가 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졸업 성적이 우수한 의사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선발되고 나서도 오랜 기간이 지나야 진일보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드물어서, 학생이 많으면 걸에서 참관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실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선 그런 병원이 한 곳뿐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그곳에 가서 배우려면 여러 해를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 외에 학생들도 들어가 견습을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 번 견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반드시 차례대로 돌아가며 견습해야 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자신도 직접 연습을 해야 나중에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전문의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우며, 유명해지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일단 다 배운

후에는 다른 사람을 구할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왜 그들을 신처럼 떠받드는지 이해할 수가 있지요. 물론 그들은 그런 영광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 하나를 접합하는 것도 그렇듯 쉬운 일이 아닌데 ‘영혼’을 접합하는 것은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 전문의가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은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하루 종일 제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니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지요. 잘린 팔을 병원으로 운송해 올 때 이미 많은 시간을 지체한 데다 오랫동안 냉동 보관되어 있었던 터라 시간을 더 끌게 되면 생기를 잃어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손은 부족하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니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지요. 한자리에서 10여 시간을 선 채로 휴식 시간도 없이 정신을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야 하니 말입니다. 원래 그 의사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환자를 위하여 그는 그 고생을 감수합니다. 배우기도 어렵거니와 기술은 더 힘이 들며 일을 할수록 고생스러운데도 오로지 환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의사가 수련을 할 때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가 다쳤다 해도 자기 자신을 꺾매지는 못하지요. 그는 수련할 때 머릿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우고 온통 다른 사람만을 생각했기에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 과정을 마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여서 수술실에서 환

자를 대신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은 큰스승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스승이 사람을 구할 때에도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중생을 대신해 업장을 짊어지고 그들의 업장을 깨끗이 씻어 주죠. 그러나 그 좋지 않은 기운에서 오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환자는 갈수록 좋아지지만 의사는 오히려 더욱더 피곤해지지요. 항상 생각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의사는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고 그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서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수술이 한번에 성공하기만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고금 이래의 큰스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마친 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복을 모두 공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는 게 빠를수록 좋다 보니 무척 고생스럽게 생활했죠.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의사나 정신적인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나에게 와서 배우는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중에 나보다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수련 과정을 마치고 나면 스승보다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솜씨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영혼을 꺾매는 의사가 드무니까 많이 와서 배울수록 좋겠지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습니다.

질문(이하 Q):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첫날 설법을 듣고 돌아가 인쇄물을 읽으면서 스승님이 가피를 주신 과자를 먹었는데 마치 안에 어떤

힘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축복 과자에 힘이 들어 있습니까?

칭하이 스승(이하 A): 이미 느꼈다면 뭐 묻습니까? 당신 스스로 이미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웃음) 스승이 준 과자나 음식물에는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이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준 인쇄물을 보거나 오디오테이프를 들어도 가피의 힘이 있습니다. 스승이 준 음식물을 먹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다음에는 먹지 마십시오. (대중 웃음) 먹고 나면 다시는 이 사바세계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먹지 마십시오.

Q: 전에 명상을 할 때 어떤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바로 명상을 멈췄습니다.

A: 소리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태도는 옳았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만일 진짜와 가짜를 알고 싶다면 나에게 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전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난 억지로 그들에게 듣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을 전하는 일은 장엄하고 신성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험값으로 팔아서도 안 되고, 더욱이 제자를 하나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쉽게 법을 전해 주어도 안 됩니다. 사람을 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일세해탈을 갈망하는지, 지혜가 있는지, 관음법문의 무상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 열심히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야 법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3 장

초세계의 빛

3장

초세계의 빛

1987. 4. 25. 포모사 평후

오늘도 관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야기했던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오늘은 소리의 빛에 대해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방금 아미타찬을 불렀습니다.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바Amitabha로서 무량광이라는 뜻이지요. 이 무량광은 어디에서 올까요? 역시 이 소리에서 옵니다. 좀더 미세한 소리가 빛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제 소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말하는 빛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등불이 없으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크지요. 태양이 없으면 생존하기도 어렵습니다. 채소도 못 심고, 비타민 D가 부족하여 아이들이 자라지도 못하는 등등. 밤에도 달빛은 있어야 하죠. 옛날 사람들은 기름불을 이용했고 현대인들은 전깃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은 빛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그 두 가지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빛의 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모든 종파나 큰 스승들은 수행에 있어 항상 이 ‘빛’과 ‘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소리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말했으니 오늘은 빛에 대해 말해야 여러분의 이해가 확실해질 겁니다.

대수행자들은 모두 빛에 대해 말했습니다. 개오開悟(깨달음)의 ‘오悟’는 ‘밝다(明)’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명은 해(日)와 달(月)이 합쳐져서 밝음을 상징합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은 빛을 포함하고 있어서 빛을 보거나,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이 빛과 교류를 합니다. 등불도 아주 중요하지요. 어제 내가 울고 있는 갓난아기에게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들려주면 금방 울음을 그칠 거라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불을 꺼버려서 아기가 울기도 합니다. 혼자 어두운 곳에서 자러니 두려워서 그러는데 불을 켜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혹은 형형색색의 빛이 나는 아주 예쁜 플라스틱 장난감을 보여 주면 보자마자 바로 울음을 그칩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빛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 빛이 아기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리는 같은 것이지만 그 성질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물과 얼음, 혹은 물과 공기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공기에도 H₂O, 즉 산소와 수소가 같이 있고 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은 공기가 아니며 공기 역시 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겐 두 가지

다 필요하죠. 숨을 쉬어야 하니 공기도 있어야 하고, 마시고 밥하고 목욕하는 등 필요한 용도가 많기 때문에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겐 다 필요합니다. 그들 성분은 모두 산소와 수소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공기가 아니고 공기 역시 물이 아니어서 우리가 목이 말라도 공기를 가져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쉴 때도 물로는 안 됩니다. 수영을 할 때도 H₂O와 접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익사하고 말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락하고 여유롭게 지낸다 해도 길어야 100년뿐입니다. 더구나 사람의 실생활은 ‘고통이 많고 즐거움은 적으며’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크고 견고한 집을 지어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는 마치 영원히 그 안에서 살 것처럼 준비하지만, 결국에는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부귀와 장수를 누린다 해도 길어야 100년밖에 살 수 없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지요! 우리 내면에 있는 궁전은 아주 아름답고 튼튼하며 좋은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히려 그걸 즐길 줄 모르고 바깥의 무상한 삶을 추구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빛과 소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태양이 없으면 이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갓난아기라도 태양을 좋아하고 빛이 나는 물건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아기는 태어난 후 자기를 보러 온 사람이 밝은 옷을 입고 있으면 좋아합니다. 색깔이 밝을 수록 아기는 더 좋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있는 사람이

라면 당연히 알 겁니다. 나는 관찰해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아기들의 장난감은 모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깔이지요. 어른들은 아기에게 우중충한 장난감을 주지 않습니다. 아기 장난감은 모두 눈부신 빨강, 눈부신 녹색, 눈부신 백색이 아니면 아주 강렬한 색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기들은 그렇게 밝은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 빛과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뱃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잘 자랍니다. ‘빛’과 ‘소리’가 그를 성장시키니까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면서 빛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불교의 『태장경胎藏經』을 봤다면 알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지요. “아기가 뱃속에서 완전히 자라기 전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다 최후에 어딘가에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뛰어든다. 영혼이 들어간 후에 아기가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은 빛이 계속 그를 보살펴 줍니다. 그러나 일단 태어나면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빛은 그 밝기가 극에 달하지만 태아의 눈에는 자극을 주지 않죠. 몸이나 피부·생명, 그 어디에도 강렬함이나 시큰거리며 쏘시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광佛光’이고 ‘여래광如來光’이며 ‘본성의 빛’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드러워서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놀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그 부드러운 불광과 함께 있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바세계에 오면 이곳에도 빛이 있긴 하지만 햇빛이나 공기 혹은 그 어떤 물질의 빛이든 그의 몸을 자극하고 눈을 불편하

게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침에 눈이 찢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지요. 온몸이 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민감한 아기 몸에는 지구의 공기가 너무 자극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빛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빛이 사라지면 그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어머니 땀속에 있을 때처럼 편안하거나 즐겁지가 않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커서나 외부 환경에 적응이 되지요.

대다수의 아기가 울 때 우리가 방울 소리를 들려주거나 어둠 속에서 불을 켜 주면 화들짝 놀라며 바로 울음을 그치곤 바라봅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던 빛이 다시 출현한 줄 알았거나, 방울 소리를 듣고 이제 다시 내면의 소리를 찾게 된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울음을 잠시 멈추고는 주의 깊게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이며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영혼이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걸 느끼면 다시 옵니다. 어른들은 방울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더 많이 구해다 더 자주 더 긴 시간 소리를 내서 아기를 속입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울음을 그칩니다. 조금 있다 그것이 또 가짜라는 것을 알면 다시 울죠. 아기는 하루 종일 울다가 멈추고 울다가 멈추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우는데 괴로워서 우는 것입니다. 아기는 갓 태어났을 때 감각이 가장 민감하고 예리하며, 지혜도 그때가 가장 순수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 느끼게 되는데 말을 못하다 보니 울기만 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난 후 우리는 그에게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서서히

익숙해집니다. 그렇지만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빛이 나는 물건들을 좋아하죠. 여자들을 보세요. 울긋불긋하게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과거 모태 안에 있을 때의 빛에 대한 잠재적인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옷 색깔은 모두 밝은 편입니다. 게다가 여름엔 몸이 좀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마음이 좀더 홀가분하지요? 겨울은 힘듭니다. 하늘도 어두침침하고 빛도 없어서 몸 상태가 안 좋게 느껴지죠. 정신 상태로 저조하고 괴롭습니다. 이것은 모두 외면의 빛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밝은 빛의 물건을 찾고, 울긋불긋하고 산뜻한 옷을 찾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노란색 옷을 입은 것 또한 여러분 내면의 빛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에서는 승려들이 모두 노란색 옷을 입는데 거기엔 밝은 사람, 빛을 가진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적어도 그들에게엔 태양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은 깨달음의 색깔을 대표합니다.

아직 깨닫지 않은 사람들도 화려한 색깔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흥가를 보면 하나같이 오색찬란한 색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화려한 곳일수록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손님이 적더라도 화려함을 유지해야 사람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락가는 다 색색의 불빛으로 장식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시선을 끌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꼭 나방이 빛을 보자마자 날아드는 것과 같은데, 때로는 나방도 불을 보고 날아들다 자신을 태워 버

리기까지 하지요.

어떤 중생이든 다 빛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빛은 여전히 보통의 외면의 빛에 속합니다. 그 밖에도 일종의 ‘초세계의 빛’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행의 빛이라 부릅니다. 수행자에겐 많건 적건 간에 모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과 관음보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모두 빛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은 그들 내면의 깨달음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산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마치 나무가 자라면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지요.

보통 사람은 빛이 있을까요? 역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까맣고 어둡지요. (대중 웃음) 커피색에 가까운 빛을 가진 사람도 있고, 파란색·자주색·붉은색에 가까운 빛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노란색에 가까운 빛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대수행자는 금색·흰색 등 여러 가지 빛을 가지고 있으되 일반적인 색깔의 빛과는 달라서 우리의 지혜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지혜안이 약간만 열려 있다면 그들의 빛을 봐도 흐릿한 듯하여 잘 보이지가 않지요.

대수행자에겐 왜 그런 빛이 있을까요? 그런 빛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빛은 바로 그의 몸입니다. 그 빛의 내재적인 힘은 발산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악의를

품은 사람이나 심하게 마장 들린 사람은 아마도 그 빛이 힘들고 편치 않을 겁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들에겐 낫죠. 빛에다가 가자마자 이내 불편할 테니까요.

이틀 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주변으로 사방에 흰색 빛이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는 다가서자 곧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만일 억지로 접근했다면 전 당신의 빛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내 주위에 앉더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느낌일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이 조금 되기는 했지만 내면에 마장이 들려 있어서 아직 깨끗이 씻기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마魔가 빛이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 빛이 그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찰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경찰이 자기에겐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겁을 집어먹고 쩍새게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는 경찰이 자기를 보기도 전에 벌써 도망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악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념, 서로 다른 등급, 서로 다른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경찰은 공정과 법률을 상징하고 범인은 암흑과 불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경찰을 보는 순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정상인은 그 부드러운 빛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 혹은 약간이라도 마장이 들린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불편함을 느끼지요. 하지만 자

꾸 가까이하다 보면 편안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빛은 그의 어둡고 깨끗하지 못한 면을 씻어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더러운 부분을 가리켜 '업장' 혹은 '마장'이라 부르는데 깨끗이 씻고 나면 문제가 없어져 편안해질 겁니다. 편하고 안 편하고는 모두 이러한 마장이나 어두운 면 때문입니다. 결국 빛 자체가 변하거나 그 사람 자신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아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낮선 외부의 것이 원래 순수했던 사람의 내면에 뒤섞여서 그가 것처럼 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래 찬물로 목욕을 하면 아주 상쾌합니다. 찬물이 아니라 온수로 해도 편안하죠. 그런데 만일 상처를 입었거나 화상을 당해 살갓이 벗겨져 붉은 속살이 보일 정도가 되었는데 목욕을 한다면 그때도 편안할까요? 당연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목욕을 할 때 아주 따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사람에게 불편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것입니다. 나중에 상처가 회복되면 아무리 목욕을 해도 문제가 없지요. 실제로 물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상처 부위의 회복 여부와 관련이 있을 뿐이죠.

빙의가 되었거나 어둡고 깨끗하지 못한 면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처음에 대수행자에게 다가갈 땐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더 자주 다가가다 보면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지요. 다시는 괴롭다고 느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경찰의 보호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

다. 자동적으로 보호막이 생겨 낮선 사람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침입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밀려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의 것들 자체가 빛을 싫어하니까요. 빛이 있을 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으며, 낮이 되면 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극과 북극에는 장장 반년 동안의 어둠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태양이 떠올라 한번 비추기만 하면 주위는 온통 빛에 휩싸입니다. 그 어둠이 몇 백, 몇 천 년, 제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태양이 한번 떠오르기만 하면 모든 어둠이 일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태양의 거대한 빛에 의해 밀려나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의 상반된 성질은 함께 뒤섞일 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우주에서 순수한 부분인 밝음을 상징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업장이 아주 무거운 사람은 어두운 부분을 상징하지요. 그 업장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진 나쁜 인상의 영향을 말합니다. 업장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밝은 부분과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마치 낮과 밤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행자는 경찰의 보호가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자기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 제자들의 업장을 짊어지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제자들의 업장을 갚아야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겨 수행도 못 하고 해탈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아직 살아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를 믿어도 큰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가 살아 있을 때처럼 그렇게 유용하진 않죠.

왜냐하면 살아 있는 스승과 이미 저 세상으로 가 버린 스승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의사와 이미 죽은 의사가 다른 것과도 같지요. 화타와 편작은 물론 가장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높여 신의神醫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존경하고 숭배한다 해도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살아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큰스승들은 우리의 숭배를 받지만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법문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스승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석가모니불·노자는 제일 유명한 스승들입니다. 그들과 비슷한 경지에 이른 스승들도 많았지만 유명해지지 않았기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몇몇 의사들은 갑자기 어떤 병을 치료하는 일이 보도 되는 바람에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의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술도 훌륭하지만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억만장자에 해당하는 부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나 오나시스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들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도 많지만 알려지진 않았습니니다. 아마도 유명해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거나, 그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

일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세계적으로 특별한 상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석가모니불이 유명해진 것은 그가 죽은 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 그의 가르침이 각지로 전파된 결과 국제적으로 유명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었으니까요. 그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각지로 퍼져 그의 가르침을 전파한 결과 점차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중생을 대신하여 업장을 짊어지고 가장 잔인하게 죽은 첫 번째 존재였다는 점과 아울러 죽은 후에 제자들에게 화신으로 나타났고, 그 모습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보았다는 점 때문에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스승들 가운데서도 등급이 높은 사람이 있었지만 잔인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역대의 큰스승들이 모두 석가모니불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세생생 그런 스승들이 존재했기에 중생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세계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도덕의 결핍과 악업이 선업보다 많아 음양이 평형을 이루지 못했을 테니까요. 음양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고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도덕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전부 악인들만 살며 오직 처벌과 고통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당은 어떤 곳일까요? 천당은 즐거움이 많고 고통은 적은 곳입니다. 부처

의 세계는 즐거움만이 있고 고통은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의 세계를 돌아보면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도 있고 양도 있는 것입니다. 음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면을 상징하고 양은 광명과 도덕적인 면을 상징합니다. 대수행자는 양의 부분에 속합니다. 그에겐 도덕이 있고 빛이 있고 힘이 있어, 중생을 구제하여 이 세상의 선악의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보다 밝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생의 악업이 갈수록 세상을 혼탁하게 오염시켜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석가모니불과 예수 그리스도와 노자는 모두 대대로 스승이었으며 그러한 빛의 품성을 대표해서 사바세계의 선악의 기운을 고르게 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당의 사람이나 천사에게서 모두 빛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당연히 어둡고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상징하니까요. 부처와 천사는 빛을 상징합니다. 사바세계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것은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지역에는 빛만 있고 지옥은 온통 어둡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을 보러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는 빛이 전혀 없어 늘 깜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에는 빛과 어둠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며,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의 어둠을 싫어하여 날마다 밝기만을 바라기도 합니다. 만일 날마다 빛을 보고 싶다면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음법문에도 빛이 있습니다. 소리만 관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일종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도 관해야 합니다. 빛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안내하겠습니까? 소리는 들으면서 쫓아가면 되지만 빛이 없으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너무나 깜깜해서 길이 안 보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 관음법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은 사람이 깨닫는 순간에 많고도 커다란 빛을 봤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마치 온몸이 사라져 버린 것 같고 오직 빛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 순간이 5분, 10분, 심지어는 하루 종일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비록 사바세계에 살고 있긴 해도 부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에겐 밤도 아주 밝습니다. 그러한 빛이 발산되어 나오면 온통 깜깜했던 방이 밝고 환해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등불이 없어도 어두운 방 안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데, 오직 수행자만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은 이 세상의 등불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가령’ 나에게 빛이 있고 또한 여러분의 지혜안도 열려 있다고 치면, 이때 여러분은 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강연장 안에 많은 불빛이 있지만 그런 불빛은 불광佛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등불이 많아도 여전히 불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광과 물질세계의 빛은 다르니까요.

왜 우리가 불광을 찾아야 할까요? 수행도 하지 않고 빛도 안 찾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를 좋아하고 선과 악, 낮과 밤의 구분을 좋아한다면 남아 있어도 되고 수행할 필요가 없

습니다. 그러나 100% 초세계의 빛, 다시 말해 근원적 오염함에 속하며 큰 이로움을 지니고서 사람들을 해탈시킬 수 있는 빛, 사람들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중생으로 만드는 그러한 빛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커다란 빛을 가지고 있는 ‘관음법문’을 수행해서 위로 올라가 밝게 빛나는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밝은 스승(明師: 큰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밝다(明)’는 건 뭘까요? 그것은 그가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해(日)와 달(月)이 있고 빛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그의 ‘빛’을 조금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가 큰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을 큰스승이라 말할 순 있겠지만 끝에 가서 보면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이 스승이나 큰스승(明師)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승(師父)이라는 말에는 선생 겸 아버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재산을 주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의 돈을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의 전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재산은 그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단지 그에게서 돈을 좀 얻어 우리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입니다.

가령 그가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가 진짜 부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곤궁에 처해 있고 굶주림에 허덕일 때 돕기는커녕 도리어 돈을 요구한다면 그가 부자든 아니든 우리에게

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부자라면 우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 옳습니다.

큰스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빛이 조금도 없고, 또 빛도 전혀 못 보고 부처의 소리도 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깨달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에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는데 그는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10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만일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이 빛도 찾지 못하고 깨달음에 대한 갈망도 채우지 못한 채 우리가 5년 후에 죽게 되거나 내일이라도 죽게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찌면 그때 우리는 아무도 구해 주는 사람 없이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큰스승이라면 모두 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법을 전할 때 우리를 즉각 깨닫게 해주어 약간의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빛을 보고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해주죠. 법을 전하는 순간에는 우리를 위해 작은 깨달음을 얻게 해 줄 뿐입니다. 그후에는 매일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지요. 그래야 그 ‘깨달음’이 나날이 발전하여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문을 한 후에 날마다 수행을 해야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 지속될 수 있고, 또 매일 체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이 이미 우리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빛’과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관음법문이며, 오직 진정한 큰스승만이 우리가 체험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빛과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혹은 ‘불성’이라 해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부처는 마음에 있다(佛在心).”라고 했고 노자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에게 밖에서 ‘도’를 찾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과 계곡 등지로 절을 하러 돌아다녀야 ‘도’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경』의 취지도 자기 내면의 ‘도’를 찾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의 큰스승들이 모두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밖에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왜 절에 가서 찾죠? 왜 ‘돌이켜 자성을 들어(反聞聞自性)’ 우리의 불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내면의 불성은 반드시 열쇠로 열어야 볼 수 있는 것이지 칼로 절개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큰스승이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열어 주지 못한다면 그는 큰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깨달음의 체험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관음법문에는 확실하게 빛이 있습니다. 길을 안내해 줄 빛이 있어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경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내면의 경지를 보고 내면의 보물을 보려 하는데 빛이 없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바세계에서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

이지 않는데, 하물며 높은 경지의 세계에서는 어떻겠어요? 빛의 안내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므로 빛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후세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체험을 기록으로 남겨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깨달았을 때 늘 많은 적든 간에 빛이 있었음을 압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빛이 아주 적지만 나중에 크게 깨달으면 큰 빛을 보게 되는데, 그런 빛은 발산될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죠. 석가모니불에게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수행이나 명상도 하지 않고, 더구나 큰스승에게 법을 전해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빛을 보거나 갑자기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나 내면의 소리일지라도 다 그저 한순간에 보고 듣는 것일 뿐, 큰스승에게 법을 전수받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빛을 볼 수도 없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 내가 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지요. 하나는 ‘부정의 소리’로서 삼계 이내의 소리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삼계 너머의 소리를 상징하는데 ‘해탈의 소리’에 속한다고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삼계 이내의 소리를 듣는다면 윤회하여 다시 오게 될 것이며, 삼계 너머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해탈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큰스승의 지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가 완전하며 해탈로 이끌 수 있는 진짜 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불완전하고 해탈로 이끌 수 못하는 가짜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빛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빛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영원히 윤회하게 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듣거나 빛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해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스승의 지도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긍정과 부정의 소리와 빛에 대해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명상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큰스승을 찾아 지도를 받겠어요? 혼자서 명상하고 염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대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방방곡곡으로 ‘큰스승’을 찾으러 다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수행해도 된다면 큰스승을 찾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인聖人이고 신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왜 또 인도까지 가서 10여 년 동안 여러 큰스승을 따라 수행해야 했을까요? 석가모니불도 태어나자마자 이미 일곱 걸음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자리에 한 송이씩 연꽃이 피어나 모두 일곱 송이의 연꽃이 그의 발아래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내려와 탄생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대보살이 태어났지만 마찬가지로 큰스승을 찾아가 배워야 했으며 그후에도 6년 동안 고행을 한 끝에야 도를 이루었습니다.

육조 혜능은 일자무식의 나무꾼이었지만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을 암송하는 것을 듣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조 홍인을 찾아가 법을 전수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도 그는 왜 16년 동안이나 숨어서 수행을 한 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제야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 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히말라야 산의 여러 스승을 따라 수행하고 나서야 수많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불에게는 여섯 분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가 성불을 한 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그는 그들에게 돌아가 진리를 설해 주면서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석가모니불에게 스승이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여섯 분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불보살이라도 태어나면 반드시 큰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행을 할 수 있고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빛은 부처나 신의 등급에 속하며 우리를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빛은 사람들을 영원히 윤회하게 합니다. 진정한 큰스승의 지도 없이 혼자서 아무렇게나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거나 예기치 않게 빛을 보게 되는 수도 있으며, 약간의 지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스승의 지도 없이 보고 듣게 되는 빛과 소리는 틀림없이 두 번째 종류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다가 그런 두 번째 종류의 빛과 소리에 의해 낮은 경지에 묶어서 가장 높은 등급의 체험은 하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대지혜를 얻지 못하고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사소한 지혜, 즉 삼계 이내의 지혜, 육도六道의 지

혜만을 얻게 됩니다. 육도란 무엇일까요? 하늘·사람·아수라·아귀·지옥·축생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종류의 빛을 보고 두 번째 종류의 소리를 듣고서는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은 고기를 먹어도 빛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꼭 채식을 하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 내가 말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수행하는 사람도 두 번째 종류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도유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수행을 하므로 일반 사람들보다는 아는 게 더 많겠지요.

예를 들어 이 컵이 아무도 씻지 않아 몹시 지저분하다고 한다면 이 안에 뭘 넣든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만일 억지로 마신다면 분명 탈이 나고 말 거예요. 이 컵은 원래부터 지저분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뭘 넣어도 모두 독약 같은 유해 물질로 변해 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우유를 부어도 새콤하거나 씹쌀해지고, 포도주를 부어도 마시기가 힘들어지죠. 물을 넣어도 이상한 맛이 날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나 순도 높은 포도주, 신선한 우유라 해도 컵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셨을 때 몸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오염된 유해 물질을 뱃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자신의 몸과 말과 생각을 정화하지 않으면 수행이 어느 경지에 이르고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그 경지로 인해 오히려 자신에게 곤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지저분한 컵이 물을 오염시키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어두운 빛은 우리 자신이 그

렇게 만든 것이며, 밝은 빛 또한 수행을 깨끗이 해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만 수행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필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독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반드시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생각만 수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며 반드시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음식, 예를 들어 중생의 고기를 입에 넣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모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테니까요.

보세요. 돼지는 돼지 밥을 먹고 소는 풀을 먹으며, 말은 말먹이를 먹고 닭은 닭 사료를 먹습니다. 우리 인간도 원래는 인간의 음식인 식물류를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은 우리가 먹을 과일과 채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석가모니불은 경전마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중생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고기를 먹는 수행자는 성불할 수 없고 보살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사람은 자비심이 없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으면 우리의 자비 종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잘돼야 마왕이 되고, 보통은 마귀, 가장 낮게는 마녀가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부처는 아주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법문을 수행하든 나는 채식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나중이라도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희

망이 있으니까요. 꼭 나를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거나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슨 법문을 수행하든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을 청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나쁜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의사가 이렇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약을 먹으면서 절대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은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겨 병세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복용한 후 배나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수행을 하려면 몸과 말과 생각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 목욕을 해서 우리의 몸도 청결히 하고 내면도 깨끗이 씻어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류가 본래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고기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그들에게 채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돼지·양·닭·오리를 끌어안으려 하지는 않으면서 왜 그들의 시체는 입속으로 넣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나는 고기를 먹어도 빛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해탈시키는 소리와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경지의 빛도 아니고 높은 경지의 소리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은 모두 출가한 사람들로써 당연히 채식을 했습니다. 인도는 옛날부터 절대 다수가 채식을 했던 곳이라 아주 많은 큰스승들이 인도에서 배출되었거나 인도

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의 재가 제자도 모두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나오는 25인의 보살 중 많은 수가 재가 보살이지요.

왜 그들을 보살이라 부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보살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살계의 규정에 보면 보살계를 받으면 절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재가 보살은 이미 보살계를 받았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이 높은 법문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보통의 재가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재가 보살이 보살계를 받은 후에는 고기를 못 먹게 했으므로 그들의 등급이 높아진 것이죠. 『능엄경』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보면 막 수행을 시작했는데도 등급이 이미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출가 제자들은 물론 더더구나 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지요.

알다시피 경전마다 출가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보면 채식을 하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대체로 어울락·포모사와 중국 대륙의 불교에서만 채식을 할 뿐이고, 한국 같은 나라는 현재 채식 비율이 반반입니다. 일본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80% 정도가 고기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어떤 법문을 수행하든 우리는 그가 열심히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도덕적인 면도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삼매’도 없고, 진정한 삼매가 없으면 진정한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러므로 계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계율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주의 법칙을 잘 준수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동물들을 살생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살해되어 먹히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생명의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중생에겐 모두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죽일 때 그들은 아주 두렵고 고통스러워 원한의 독소를 품습니다.

그러나 채소와 초목의 의식은 아직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싶어하는 수준까지 진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먹어도 아주 큰 업보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업보는 있지요. 살생에는 다 업보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들은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원한에 의해 끌어내려지지 않는 걸입니다. 단지 우리가 관음법문을 좀더 수행하면, 매일 적어도 두 시간 반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러한 미세한 업장은 금방 씻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업장은 그리 쉽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복을 하려고 찾아와 우리를 못 가게 할 것입니다. 중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수행해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해탈’의 의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만일 우리가 중생의 고기를 먹으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한다면 누가 그 ‘고기 값’을 갚아 줄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일 고기를 먹어도 해탈할 수 있다면 이는 인과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

다. 우주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수행해도 높은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말이지 내가 여기서 여러분을 비평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왕 진리에 대해 말을 꺼낸 이상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고 아는 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말만을 해야 한다면 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승려가 될 필요도 없고 강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사람들에게 “당신 오늘 참 예쁘네요! 당신은 최신 유행 옷을 입었군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세상을 마음껏 즐겨도 문제없고 귀의만 하면 됩니다. 고기 먹고 술을 마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주 기뻐할 테니 경전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식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기를 좀더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말해 주어도 자신들이 며칠 못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니까요.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금세기의 불치병인 에이즈 역시 육식하는 사람에게 있는 병입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한다면 이런 이치들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으며, 재삼 여러분에게 채식을 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채식은 현재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수행자는 반드시 진실과 바른말을 해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군자는 대나무처럼 곧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좋은 이야기가 생각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개의치 말고 당연히 말해 줘야 합니다.

공자는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己所不欲 勿施於人).”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모두 아는 것으로 자주 인용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말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의 본성에 존재하며, 훌륭한 이치들은 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니까요. 고귀한 말과 고귀한 생각은 원래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가장 고귀한 중생이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단번에 채식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개인 사정이 자유롭지 못하여 남편이나 부인에게 방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직장 환경에 의해 제한을 받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어찌 됐든 여러분은 여전히 도덕적인 이야기,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내면에 가장 고귀한 면이 있다는 걸 믿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입니다. 이 ‘불성’ 혹은 ‘천국’이 내면에 있는데 어찌 진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귀한 생각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진리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몰라서 그렇지, 결코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비할 데 없이 정확하며 털끝만큼의 실수도 용납

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여 절대 피해 갈 수가 없지요. 이른바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것 같지만 새지 않는다(天網恢恢 疏而不漏).”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 인도에 까비르(Kabir)라는 대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까비르를 찾아왔는데 마침 그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의 도반(전에 까비르의 부인이었으나 지금은 제자가 되어 도반이라 부름)은 그에게 “묘지에 가 보세요. 지금 친구분의 장례를 치르고 계실 겁니다.”라고 알려주었죠. 그러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보죠? 얼굴도 잘 모르는데요.” 인도 사람은 생긴 모습이 비슷하고 입은 옷도 똑같습니다. 마치 포모사의 출가승들이 똑같은 승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까비르 부인은 손님에게 “거기 가서 머리 위에 빛이 있는 사람을 보시면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손님이 묘지에 갔을 때 사람들은 마침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관을 메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땅을 파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매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 모두의 머리에 빛이 있어서 그는 까비르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장을 할 때는 모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까비르 부인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까비르 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빛이 있었거든요. 어찌죠?”

까비르 부인은 그에게 “네, 괜찮아요. 다시 묘지로 가서 장례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는 한 사람에게만 빛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까비르 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다시 묘지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끝내고 돌아갈 때 과연 한 사람의 머리에만 빛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매장을 할 때는 전부 빛이 있더니 돌아갈 때는 왜 오직 큰스승의 머리에만 빛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땐 모든 친구가 신성한 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온통 ‘인간에게는 왜 생사가 있을까?’라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죠. 그때는 해탈하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빛나는 품성이 발산되어 그 손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엔 생사윤회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사람들이 정말로 체험했고 이 삶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던 거지요. 그저 수행하여 해탈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밝은 품성이 발산되어 그 손님이 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빛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례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매일 수련하지 않으면 생각을 통제할 길이 없어 자기 뜻대로 생각을 따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북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남쪽으로 가 버리고 서쪽을 생각했는데 동쪽으로 가 버리곤 합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러므로 장례를 끝내고 돌아갈 즈음에는 시체와 관이 보이지 않으니 한곳에 집중할 만한 거리가 없어 생각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생사윤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남편이나 부인,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노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일만 생각하

로 빛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을 생사윤회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장례를 끝내고 돌아갈 때 마음속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어둠의 지역으로 낮은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아주 어두워지는데, 그때는 지옥 등급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세속적인 일을 생각할 때도 어둡고 깜깜합니다. 오직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만 빛이 있습니다.

까비르는 이미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그 어떤 순간에도 생각을 수행과 높은 이상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빛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높은 이상에 대해 생각하면 빛이 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 될 것이며, 탐진치貪瞋癡한 생각을 하면 마귀 등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인과의 법칙은 비할 바 없이 정확하며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나의 사공師公(스승의 스승)이 살아 있을 때 관음법문을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밖에서 놀다가 지렁이가 수많은 개미에게 물어뜯겨 도망가지도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비심에서 그 지렁이를 들어 안전한 곳에 놓아 주고는 개미들을 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명상을 할 때 수많은 개미를 보았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조잡한 몸이 아닌 아주 미세한 영체로 와서 그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개미떼의 영체를 봤을 때 너무나 무서

웠죠. 그들은 그를 물어뜯으며 원망했습니다. 개미의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수행이 높아지면 우린 동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개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 지렁이는 마땅히 자신이 갇아야 할 업보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당신이 왜 우리 일에 개입한 거야? 그건 우리가 얻게 될 과보(果報)였단 말이야. 그 지렁이는 자신의 생명으로 과거에 지은 업장을 갚아야만 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엔 다 인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해 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업장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덕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업장을 짊어져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아프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지는 경우 등은 있겠지요. 가장 혹독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는 경우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중생의 업장을 대신 갚는 거지요. 또는 석가모니불처럼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다든가, 비방을 받는다든가,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다든가, 무고를 당한다든가 하는 등 아주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설령 성불을 하여 큰 힘을 지닌다 해도 사람들에게 무고나 비방·살해 등을 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제자를 받아들여 그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들의 업장을 짊어지고, 그들을 범부에서 성인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업장을 반드시 스승이 대신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시·지계·인욕·선정·지혜 등을 행할 때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앞뒤 상황을 잘 알고 나서 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금강경』에는 많은 일들이 언급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내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범부는 힘이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단지 지렁이 한 마리를 구해 주었을 뿐인데도 것처럼 무서운 일이 생기니 우리 스스로 업장을 짓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시간이 다 되었군요! 질문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가장 큰 의문은 ‘왜 여러분은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수명도 짧아서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삶이 아주 고통스럽고 아무 의미도 없으며,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일하고, 일하고 먹고 자기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연연해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합니다. 중생들은 왜 그렇게 떨쳐 버리지 못할까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4장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의 의미

4장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의 의미

1987. 5. 11. 포모사 타이난

오늘 이 지역의 사탕수수와 고구마가 가장 맛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떠나고 싶지가 않더군요. (대중 웃음) 사탕수수와 고구마만 있으면 아예 눌러 살 수도 있거든요. (대중 웃음) 타이난에 있으니 꼭 고향집에 있는 것 같아요. 내 고향인 어울락에도 사탕수수가 있는데 아주 달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의 사였는데 해마다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지요. 아버지는 마치 병을 치유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천재 같았어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가 아버지에게 오면 아버진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셨지요.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고안하여 만든 아주 간단한 약을 사용하셨어요. 한약과 양약을 섞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환자가 복용하고 나면 회복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서 일 년 내내 고마워하는 환자들이 무척 많았고, 자신들이 수확한 계절 과일을 많이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탕수수나 고구마, 맛있

는 설탕 같은 것들이었는데, 어릴 적에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타이난에 맛있는 사탕수수와 고구마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마치 고향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강연도 아주 잘될 것 같아요. (대중 웃음) 나는 포모사 사람들의 충명함에 매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손재주가 매우 훌륭하여 무엇을 만들어도 잘 만듭니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 포모사에서 만든 수공예품을 자주 샀는데, 값도 싸면서 예쁘고 감직했어요. 모조품이라 해도 진짜와 똑같이 모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포모사에 온 후 사람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내 생각에는 그건 포모사 사람들이 단순히 먹길 좋아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먹길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는 것인데, 포모사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 색깔과 향과 맛을 고루 갖춘 음식을 준비하니까요. 그냥 먹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술적으로 먹을지도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 역시 일종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미적 감각인 것입니다. 포모사와 일본은 꽃꽂이 예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마음은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꽃꽂이를 보면 꽃을 아주 적게 꽂는데, 고작 한두 가지 아니면 한두 송이뿐입니다. 그러나 포모사 사람은 반대로 꽃을 많이 꽂습니다. 포모사에서는 무엇이든 장식할 때 아주 풍부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넘쳐난다

는 것을 말해 주지요.

이 컵의 물처럼 너무 가득 차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포모사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모사에서는 절을 지어도 아주 크게, 많이 짓습니다. 법회를 열어도 법사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설법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불경이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내면의 등급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이는 수행 등급의 높고 낮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당은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의 세계나 아미타불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찌면 우리가 그 세계에서 내려왔기에 지금도 훌륭한 것이나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며, 음식을 먹을 때도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부 한 조각도 여러분이 조리하면 보기에 좋고 맛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심미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모사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옷도 아주 멋있게 차려입지요.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무명으로 된 깨끗한 옷을 입는데, 이는 여러분이 전생에 왕이나 귀부인·고관대작이 아니었다면 천당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모사에 수행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지요. 불교의 전통으로 말하자면 포모사는 지금도 비교적 많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불교는 점점 쇠퇴하고 변질되어 순수성을 잃어버렸죠.

포모사에서는 밀종이든 정토종이든, 대승이든 소승이든 모든 비

구와 비구니는 채식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원래 그래야 합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의 전통은 그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포모사만이 순수한 불교를 유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책을 보면 알 겁니다. 다른 불교 국가에서는 고기와 술을 먹을 수 있고 승려가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포모사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포모사 사람들이 복이 많아 그런 순수한 불교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 가 보면, 이를테면 미얀마를 보면 길보기에는 불교가 아주 발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출가승들도 많지요. 포모사보다도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노란 옷을 입은 출가승이 있지요. 큰스님, 작은 스님, 노스님, 어린 사미승 등 엄청 많아서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나는 불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출가한 것을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와 아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출가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3개월도 가능하죠. 간혹 어떤 문제에 부딪치면 절에 가서 머리를 깎고 3개월 동안의 출가를 발원한 뒤 매일 나가서 탁발을 합니다. 출가승과 똑같지요. 3개월 후에는 다시 돌아가 전과 다름없이 결혼 생활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일곱 살이 되면 출가했다가 1, 2년 후 다시 환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가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쓸모는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채식도 하지 않으며 포모사처럼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스리랑카·태국·미얀마·일본·한국은 거의 다 그러한 상황

입니다. 단지 포모사만이 비교적 불교의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출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가자의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스승님, 저는 아침에 채식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아침은 안 먹습니다. 아침에만 채식을 해서 뭐 하려고요?” (대중 웃음) 아침에만 하는 채식은 안 해도 됩니다. 막 깨어나서 입맛이 없어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을 테니 채식하는 것이 좀더 간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자유롭게요!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포모사만큼은 비교적 순수한 불교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엄경』에서 석가모니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채식을 하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 설혹 그의 선 수행이 아주 높다 해도 마장에 걸려 보살이 되지 못할 것이다. 고기를 먹고 선 수행하는 사람들은 상등은 마왕이 되고 중등은 마귀, 하등은 마녀가 된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보살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엄경』에 비추어 볼 때 포모사의 출가자가 부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연 첫날이라서 먼저 여러분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강연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강연은 나에게서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나는 책을 보지 않고 강연하며 사전에 초고를 만들어 두지도 않습니다. 난 ‘자연스런 경經’을 말하고 가장 평범한 말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문자를 쓰거나 고문을 사용하면 사람

들이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이해를 못 합니다. (대중 웃음) 강연을 할 바에야 학식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하지요. 그래서 나는 강연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며, 대중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더러 경전을 보면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해야 할 말도 잊어버릴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게 생각나면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경전이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빠르지요.

자, 이제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까? (대중: 『아미타경』입니다.) 좋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미타경』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나는 『아미타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인도에 가기 전에 나는 항상 『아미타경』을 암송하고 아미타불을 외었습니다. 아미타불을 외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외 수 있지요.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엔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을 외게 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미타불을 외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말해 주겠습니다. 아미타의 산스크리트어는 아미타바Amitabha입니다. 본래 이 말에는 ‘부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불佛자를 첨가하여 아미타‘불’이 되었지요. 산스크리트어인 아미타바는 ‘무량광無量光’이라는 뜻이며, 아미타유스Amitayus는 ‘무량수無量壽’라는 뜻입니다.

‘무량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종종 “부처의 빛은 항상 비

추고 있다(佛光常照).”라고 말합니다. 만일 부처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다면, 그리고 아미타불이 무량광이라면 왜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문을 갖습니다. ‘부처의 빛은 항상 비추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어디서 비출까? 언제 비추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비추고 있는 이 부처의 빛을 볼 수 있을까?’ 하고 말합니다. 『아미타경』에서 석가모니불은 “부처는 이 ‘무량광’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빛은 항상 비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수행이 좋은 사람은 부처가 빛을 발하며 내려와서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 빛을 보지 못한다면 약간의 의심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빛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부처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인지를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는 부처의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미 눈이 먼 상태라서 왕생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인지, 그리고 부처의 빛을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염불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만 때로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번역을 할 때 ‘불佛’자 하나를 더 첨가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갇히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번역을 할 때 그냥 아미타바Amitabha라고만 했으면 아미타‘불’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미타바는 ‘무량광’이고 아미타유스는 ‘무량수’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육체가 아니라 무량광이었고, 무량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무량광과 단절되어 이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

닷속에 컵 하나를 얹어 놓았을 때와 같습니다. 컵 속의 물은 자신이 원래 그렇게 왜소하고 바닷물과는 다르다고 여기겠지만, 만일 누군가 그 컵을 빼내면 컵 속의 물과 컵 밖의 바닷물은 즉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 물들은 원래 같은 것이니까요.

무량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무량광이었는데 지금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내면에도 빛이 있으니 자신의 진정한 빛을 보려 한다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의 본래면목이지요.

본래면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빛’입니다. 가령 누가 어떤 법문으로 우리의 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물론 칼로 자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불가사의한 법문을 사용한다는 얘지요. 그러면 몸속의 ‘유량광有量光’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무량광’과 서로 통하게 됩니다. 마치 바닷속에 넣은 컵을 들어올리면 컵 속의 물이 저절로 바닷물과 합쳐져 분리되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무량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무량광 외에 ‘무량수無量壽’라고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원래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般若心經』에 이르기를 “시제법공상是諸法空相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이라 했습니다. 이는 무량광·무량수와 같은 뜻이지요. 석가모니불은 어떤 경전에서든 늘 많은 비유와 방편을 사용했는데, 중생의 수행 등급에 따라 그에 합당한

비유를 들어 중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본성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과 『아미타경』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똑같은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가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知見, 부처의 지혜를 알도록 하고 중생을 성불케 하기 위함이지 사람들을 가르쳐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예를 올리며 세세생생 자신이 가장 높고 위대한 존재임을 찬탄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부처가 출현한 것은 중생을 성불케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성불했음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이 목적을 위하여 사바세계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전이나 비유든 간에 모두 다 중생들을 성불케 하기 위한 것이죠. 『반야심경』이든 『아미타경』이든 그것의 궁극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같은지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미타불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경전이 있는데 바로 『관무량수불경觀無量壽佛經』입니다. 이 경전에서 석가모니불은 우리가 아미타불을 어떻게 관상觀想해야 하는지,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을 어떻게 관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 정토에 어떤 경관이 있는지, 상품상생·중품중생·하품하생 등 각 품위를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16종 관상을 수행해야만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무량수불경』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역시 『아미타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가 말하기를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외는 데 하루, 이틀, 사흘 내지 이레 동안 일심불란(한 가지에만 마음을 써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함)할 수 있다면 서방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외어 보세요. 일심불란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한 생각도 일으켜서는 안 되니, 하루 이틀 심지어 이레 동안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쉬운 법문을 우리는 왜 해내지 못할까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량광’을 보지 못하고 단지 입으로만 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충분하지 못하죠. ‘염념(외다)’은 중국에서 말하는 ‘상념想念(그리워하다)’이라는 것입니다. 상념이라는 두 글자에는 모두 ‘마음(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외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마음’으로 외려 한다면 먼저 보고 나서야 ‘마음’으로 외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리워한다면 어쨌든 서로 만나 보거나 한 다음에야 그리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거나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그녀의 얼굴을 봐야 집에 돌아와서 서로 사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서로 사모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한다는 것인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만일 억지로 머리를 써서 그리워하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옛날 여자들은 집안에 갇혀 마음대로 외출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얽힌 일화가 별로 없었지요. 상사병에 걸릴 기회가 드물

었으니까요. 오늘날은 비교적 많습니다. 남녀가 서로 볼 기회가 많아서 그리움도 많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처를 ‘그리워’하려는데 부처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심불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심불란하려면 먼저 무량광을 보고 아미타바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유량광’이 ‘무량광’과 서로 합쳐지고 난 후에야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우리와 통할 수 있어야 우리도 부처와 통할 수 있지요.

우리가 무량광이라면 우리 내면에는 당연히 빛이 있겠지요. 그 빛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빛이 있는 한 반드시 무량광을 볼 방법이 있을 겁니다. 빛을 보았을 때가 바로 이른바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花開見佛)’인 것입니다. 부처는 결코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 역시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가 그런 모습인 것은 아닙니다. 부처는 무형무상無形無相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삼십이응편진찰三十二應遍塵刹’, ‘무량광無量光 광중화불무수억光中化佛無數億 화보살중역무변化菩薩衆亦無邊’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무량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화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부처를 보았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 ‘무량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관세음보살로 변할 수도 있고, 아미타불이나 대세

지보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원하면 누구로든 변할 수 있는데, 이 모두가 우리 자신의 무량광으로부터 화현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마음’을 찾아내기 전에는 ‘일체유심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요. 병이 낫기를 바라도 낫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도 무일푼이 되고 맙니다. 서방세계로 가고 싶은데 동방세계로 오게 되고 (대중 웃음) 천당에 가고 싶은데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이는 모두 아직 우리의 ‘마음’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무량광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를 그리워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경전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잘못 외고 있다고 꼬집어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외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몸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문이 아니며, 눈이라 말하지만 눈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지혜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안이 열리고 나면 부처를 볼 수 있고 부처의 지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안佛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만일 그곳을 어떻게 여는지 안다면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막 시작했을 때는 ‘유량광’이지만, 많이 보고 나서 속박의 걸음을 벗어 버리고

나면 ‘무량광’이 될 수 있습니다. 무량광이 된 후에는 ‘무량수’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생사를 벗어나 불생불멸不生不滅하고 불래불거不來不去하여 ‘여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많은 법문을 수행하면서 정작 이 중요한 점을 망각합니다. 반드시 먼저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곳에 빛이 있고, 문을 열고 나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혜안을 열고 나서야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불안을 열고 나면 우리는 ‘불성’ 혹은 불광, 또는 ‘자성광自性光’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의 빛은 바로 우리 자신의 빛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처였으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속일 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모를 뿐이지요.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지혜의 문을 열고 나면 우리는 석가모니불이 말한 아미타불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그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밖에 인식할 수 없지만 집에 돌아가면 몹시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리움이 많아질수록 인식은 더욱 깊어지죠. 그때서야 진정 ‘부처를 그리워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처를 그리워하게’ 되면 틀림없이 왕생할 수 있습니다. 60, 70, 혹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 바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왕생이란 무슨 뜻입니까? ‘나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나갈까요? 바로 우리의 진체眞體, 또는 진인眞人이 이 몸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내가 말한 컵의 경우와 같습니다. 컵은 원래 물속

에 얹어져 있고 물은 컵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만일 컵을 들어내면 물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겠지요. 컵을 꺼내지 않으면 컵 속의 물은 천천히 변질되어 이상한 맛과 악취를 풍기며 썩어 갈 것입니다. 흐르는 물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면 별 문제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만일 누가 연못을 만들어 물이 고이게 된다면 며칠이 지나선 모기가 생기고 청개구리나 다른 잡다한 것들이 생겨나서 예전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못할 겁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큰 물과 함께 있지 못하면 ‘죽은 물’이 될 테니까요.

똑같은 이치로 만일 우리가 몸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의 빛은 점점 어두워져 날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대광류大光流’와 단절되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서서히 우리도 고장이 나고 닳아서 기껏해야 100년 밖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썩어 버리고 나면 빛도 없고 몸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자신이 왕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생을 하려면 지금 연습을 해 두어야 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왕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연습을 하지 않으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 잘 배워 두지 않으면 커서도 학식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죽고 나선 더더욱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학식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성취할 수가 없지요. 농부는 죽은 후에도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왕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도 우리는 왕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강제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왕생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염불 역시 어떻게 염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비로소 일심불란할 수 있고 왕생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미 알고 있다면 이생의 인과가 해결되는 즉시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러 큰승들은 자신들이 돌아갈 날을 미리 알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언제 죽을지를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다음 날 가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데다 모든 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먼저 목욕재계를 한 후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차를 마실 겁니다. (대중 웃음) 차를 다 마시고 나면 태연하게 앉아 열반에 듭니다. 그는 매일 왕생을 연습해서 이미 습관이 되었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갈 때 매일 왔다 갔다 해서 길이 익숙하여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그에게 왕생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문을 잠가 놓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도 녹이 슬 테니까요. 문이 딱 들러붙은 것 같아 열쇠가 있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문이 있지요. 만일 우리가 지금부터 서서히 매일 열지 않으면 떠날 때 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열심히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죽음에 이르러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영혼, 영혼이라고 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의 영혼이 바로 그의 주인이죠. 그 자신의 ‘진인’이 나가려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우왕좌왕하다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어 매우 고통

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내야 할지 몰라 나가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화재를 만났다고 합시다. 만일 진짜 문으로 나갈 수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커튼을 찢고 창문을 깨고 나가거나 화장실의 조그마한 창으로 뛰어내릴 겁니다. 뛰어내릴 때 어찌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칠 수도 있겠지요. 상황이 다급해져 정문으로 탈출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창이나 다른 출구로 뛰어내립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 아무데나 뛰어들고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물에 부딪혀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정문인지도 모르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잘 열어 두지도 않는다면 세상을 떠날 때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으니 당연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원래의 정문을 열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셋문으로 뚫어나가게 되죠. 그러다 지옥·축생·아귀·아수라의 경지를 만나게 되고 죽은 후 지옥·축생·아귀·아수라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미타경』에서 부처는, 복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서방 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아미타불을 외면 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중: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언급한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더한다면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가모니불이 『아미타경』을 설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왜 『금강경』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부처가 『아미타경』을 설할 때 아난존자도 있었습니다. 아난은 부처의 큰 제자였는데, 그를 위해 부처는 『능엄경』을 설했습니다. 부처가 경전을 설할 때마다 아난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처가

『관무량수불경』을 설할 때도 아난이 곁에 있었지요. 당시 옥에 갇혀 있던 위제희^{韋提希} 왕후는 부처에게 목건련과 아난을 옥중에 파견하여 자신에게 설법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사굴산에 있던 부처는 위제희 왕후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즉시 아난과 목건련을 옥중에 파견한 뒤 자신도 옥중으로 날아가 셋이서 위제희 왕후에게 『관무량수불경』을 설했습니다.

이는 아난이 진정한 염불 법문에 대해 알 기회를 가졌다는 걸 말해 줍니다. 석가모니불이 설법할 때 그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능엄경』에서 부처는 그에게 관음법문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문수사리보살도 관음법문을 배워야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외는 ‘염불’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관음법문을 통해 우리의 지혜안을 열고 부처를 본 후에야 ‘무생^{無生}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꽃이 피니 부처를 보고 무생을 깨닫는다(花開見佛悟無生)’는 것이죠. 부처를 보지 못하고는 불생불사^{不生不死}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를 본다는 것은 그 무량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돈오^{頓悟} 법문’을 통해 아주 빨리 무량광을 볼 수 있는데, 관음법문이 바로 ‘돈오 법문’입니다. 절이나 염불은 천천히 배우는 ‘점오^{漸悟} 법문’입니다. 이러한 점오 법문은 신수^{神秀}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육조 혜능은 ‘돈오 법문’을 가르쳤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즉각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돈오 법문은 지금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돈오’와 ‘점오’ 법문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택해서 원하는 걸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돈오’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점오를 가르치는데, 서서히 수행하며 매일 거울을 닦으라고 가르칩니다.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塵埃: 몸은 이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끼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육조 혜능은 “거울은 없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닦는단 말인가(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라고 말했습니다. 점오와 돈오는 외면상으로는 같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 등급은 전혀 다릅니다.

『아미타경』에서도 관음법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 앞부분에서 호광^{毫光}, 무량광을 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밖에 말할 수가 없군요.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불성’을 보아야 ‘무생을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생을 깨닫는다’는 게 뭘니까? 불생불사한다는 것으로 이미 생사를 해탈했다는 뜻이지요. 조금 전에 내가 말했듯이 『아미타경』에서 석가모니불은 서방 극락세계의 여러 뛰어난 경치들을 소개했습니다. 연꽃이 있고, 팔공덕수가 있으며, 부처가 화신으로 나뉘는 새가 24시간 쉬지 않고 설법을 한다고 말합니다. 중생들은 그런 새가 설법하는 소리를 듣거나 서방 극락세계에서 주야로 계속 흘러나오는 오묘한 음악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일심불란하게 염불^{念佛}·염법^{念法}·염승^{念僧}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부처를 보지 못하면 진정으로 ‘그리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큰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야 어떻게 ‘염’불을 하죠? 석가모니불은 분

명하게 말했습니다. 서방의 이름답고 오묘한 음악을 들은 후에야 중생에게 저절로 염불·염법·염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서야 진정한 ‘염불’이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염불을 해도 당연히 일심불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어떻게 ‘염’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석가모니불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큰 제자들도 모두 갔습니다. 현재 많은 법사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이 그들에게 묻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그들이 몰라서인지 나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염하는 방법은 정확성이 부족해서 50%밖에 미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아직 무량광을 보지 못하고 서방의 오묘한 음악을 듣지도 못했으니 일심불란하게 염불·염법·염승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대중: 예.) 우리는 부처가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염불’을 할 수 있고 일심불란할 수 있습니다.

또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문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옴’이라는 글자 자체에는 아무 뜻이 없고 산스크리트어의 발음일 뿐이지만 우주의 소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의 수행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옴’이라는 말과 비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주문이 된 것입니다. ‘마니’는 무엇을 말할까요? 마니는 마니摩尼입니다. 그것은 마니주摩尼珠, 혹은 여의주如意珠를 말합니다. 이 여의주와 마니주에 내포된 의

미는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을 때 이 마니주를 얻게 됩니다.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니주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불성이 마니주로 변할까요? 불성을 본 후에는 마치 여의주처럼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기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실현이 됩니다. 심지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생겨 버리죠. 그래서 마니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니주는 산스크리트어인데 중국어로 번역하다 보니 여의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니주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의 ‘반메’는 연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화생대사의 이름을 파드마 삼바바Padma Sambagwa라고 합니다. 파드마Padma나 파드메Padme는 지역마다 발음만 다른 것일 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옴마니반메훔’은 이 마니주가 연꽃 속에 있다, 연꽃 속에 우렛소리와 밝은 빛의 보주寶珠가 있다는 뜻으로, 이 역시 ‘빛’과 ‘소리’가 연꽃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아미타경』에도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뜻은 ‘옴마니반메훔’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니주’와 ‘불성’을 보기 전에는 ‘옴마니반메훔’을 외어 보았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주문은 고대의 큰스승들이, 마니주를 찾아야 하고, 마니주가 바로 우리의 연꽃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왜 ‘연꽃’이라 말하고, 왜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라고 말할까요? 왜 ‘열매가 열리니 부처를 보다’ 혹은 ‘손이 열리니 부처를 보다’, ‘귀

가 열리니 부처를 보다’라고 말하지 않고 꼭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의 몸 안에는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중심’(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이며, 몸의 중요한 중심이라는 뜻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들 중심이 연꽃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많은 ‘연합 중심(Yoga Chakra)’이 있습니다. 왜 연합이라 부를까요? 그런 중심을 수행해서 그 문을 연다면 우리가 대우주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컵의 비유와 같습니다. 컵만 들어올리면 컵 속의 물은 바깥에 있던 바닷물과 즉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연합 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그런 중심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생식 기관에도 있고, 단전·심장·목·미간·정수리에도 있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안이 열리면 그것이 연꽃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은 만개한 연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옴마니반메훔’은 보주가 연화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니 부처를 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처럼 생긴 게 아니라 한 송이 연꽃처럼 생겼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 꽃을 피우게 되면 우리의 마니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옴마니반메훔’, ‘꽃이 피니 부처를 보고 무생을 깨닫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전에서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神呪와 현주顯呪도 같은 것이니, 시간이 있으면 참고해도 됩니다. 수행을 한 후에 우리는 그것들이 뜻하는 바가 거의 모두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마도 그 많은 중심 중에 자신이

어떤 중심을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중심을 열어 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알게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으니 회향廻向합시다!



5 장

지혜안의 신비

5장

지혜안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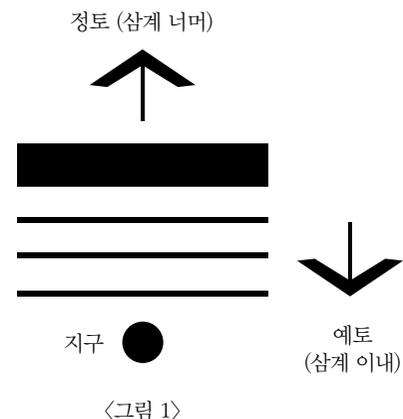
1987. 2. 16. 포모사 평후

오늘 할 이야기는 석가모니불이 우리에게겐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못 찾고 있는지, 또한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왜 찾을 수가 없는지, 부처가 모든 중생은 부처라 했는데 왜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지요.

2, 3일 전에 정토淨土와 예토穢土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정토와 예토 사이에는 그들을 분리시키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아주 어둡고 캄캄하며 길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정토는 아미타불의 나라로서 악업도 없고, 남녀 구별도 없으며, 지옥도 없고, 나쁜 상황도 없다고 합니다. 천주교로 말하자면 이곳이 천국이죠. 이 천국을 석가모니불은 불성 또는 본래면목이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천국이라 했는데, 그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찾을 수 없을까요? 만

일 한 사람의 내면에 천국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착하지만은 않아서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 이유는 예토와 정토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삼계 이내는 하늘·인간·아수라·지옥·아귀·축생의 세계이고 삼계 너머는 정토의 세계, 부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의 빛은 항상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느 곳이나 다 빛이 있다는 의미의 ‘무량광’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삼계 이내는 그 부처의 빛이 없는 어지러운 세계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주 어둡고 캄캄한 세계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1 참조) 내가 우주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단지 외면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는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작은 우주이지요. 바깥 우주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내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면에도 그런 어두운 곳이 존재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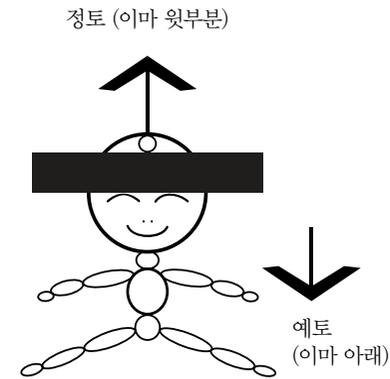
우리 머리에서 사지四肢 사이에는 어둠의 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지혜가 통과할 수 없게 막고 있는데, 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머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지혜도 좋은 일을 생각하겠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길 때엔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지역은 마치 꼭 잠겨 있는 문과 같아서 그걸 열어야만 지혜가 통과되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좀더 활짝 열어야만 ‘부처의 빛’을 볼 수 있는데, 부처의 빛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곳을 우리의 ‘지혜안’, ‘제3의 눈’ 또는 ‘불안佛眼’이라고 부릅니다. (스승님이 이마 위를 가리키심)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불교에서 ‘범천梵天’이라 부르는 문으로 삼계 이내의 최고 지역까지만 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열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혜와 복은 얻을 수가 있지요. 또 하나의 문은 삼계 너머 무량무변의 경지로 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말한 ‘지혜안’은 바로 이 삼계를 초월하는 문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계 이내의 문을 조금 열 수 있는데, 더 크게 열면 빛이나 경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삼계 이내의 빛이고 경지입니다.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빛과 경지임) 오직 관음법문으로 수행하는 사람만이 지혜안을 열 수 있고 부처의 빛이 항상 비출 수 있습니다. 만일 모두 닫혀 있으면 정토에서부터 비춘 부처의 빛이 다다르지 못합니다. 설사 도달한다 해도 어둠의 지역으로 인해 어둡고 더럽게 물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 이하의 부분을 예토, 이마 이상의 부분을 정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천국(그림 2 참조)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말만 다를 뿐이니깐요.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혜안이 열리고 부처의 빛이 항상 비출 수 있습니다. 이후 수행할수록 더 많아지고 우리는 갈수록 자신의 주인이 되어, 지혜가 또다시 어둠의 지역에 물들어 잘못된 정보로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는 정토이고 예토는 예토로서, 이 두 지역은 서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흑의 장막이 삼계 이내의 사람들이 못 나가도록, 정토가 무엇이고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계 이내는 마치 하나의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가 바로 바깥의 자유로운 세계와 감옥 사이를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2>

정토와 우리의 지혜 및 우리의 신체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토는 우리의 윗부분,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스승님이 이마 위의 지혜안을 가리키심)에서부터 그 아래는 예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을 가리켜 ‘머리’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두뇌는 우리의 총사령부입니다. 만일 이 두뇌로부터 내려진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많은 일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거나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다고 말하곤 하지요. 지혜안에서부터 위쪽은 정토·불성·천국·삼계 너머의 지역이고 지혜안 아래쪽은 예토·삼계 이내·생사윤회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총명한 사람을 보면 여기(이마 부분을 가리킴)가 비교적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 아래쪽은 모두 배설 기관입니다.

만일 큰스승의 지도를 받게 되면 수행자는 나날이 지혜가 늘 것이지만 큰스승의 지도가 없으면 수행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잘못 열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서 수행을 한다 해도 신통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중심(차크라)’이 있는데, 여기(지혜안을 가리킴)가 총사령부입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목·심장·단전 등의 부위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혀를 말아 입천장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감로수가 생긴다고 하면서요. 그것은 진짜 감로수가 아닙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혀를 움직일’ 필요도 없이 진정한 감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안 아래쪽의 차크라를 수행해도 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삼계 이내의 것으로 아직 성주괴공(成主壞空)의 단계를 넘지 못한 것입니

다. 그래서 지혜안 아래쪽의 차크라를 수행하면 삼계를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해탈할 수도 없습니다.

삼계를 초월하고 싶으면 지혜안에서부터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장 아래쪽 차크라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수행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무 느립니다. 평생을 힘들게 수행해야 위로 올라가지요. 우리 관음법문은 오히려 지혜안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합니다. 옛날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시간이 많아 수행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가자들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돈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깐요. 만일 그렇게 늙은 소가 낡은 수레를 끄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왕생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려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승의 지도 없이 혼자서 수행하는 사람도 스스로 차크라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전을 열면 열이 나고, 성격이 괴팍해지고, 성욕이 강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몇몇 차크라를 열고 난 후에 자기 스스로 이를 닫을 수 없다 보니 이른바 음마(陰魔)라는 것이 그 차크라로 들어와 사람의 몸을 차지해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그 차크라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행에는 필히 자신을 보호해 줄 법문과 큰스승의 보살핌이 있어야만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수행하기 전에는 마장 같은 것이 없었는데 수행을 시작한 후 갈수록 마장이 생기고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자신을 괴롭히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함부로 차크라를 열었거나 그의 스승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하면 차크

라는 저절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렇게 명상을 해도 몇 몇 차크라가 열립니다. 만일 호흡 조절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화륜차(단전)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 뜨거운 곳을 말이에요. 나중에는 성질이 거칠어지고, 쉽게 화를 내고, 남녀 관계를 아주 좋아 하는 등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죠.

서방 정도와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우주 라면 바깥은 대우주입니다. 지혜안 윗부분은 정토이고 그 아래는 삼계 내의 예토입니다. 지혜는 여기(스승님이 이마를 가리키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당연히 두뇌를 사용 하게 됩니다. 때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미간을 찡그리게 되는 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을 도대체 어디에서 봤을까?' 하고 기억하려 애쓸 때 미간을 찡그리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제3의 눈, 다시 말해 지혜안에다 생각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빨리 문제가 해결되죠. 이곳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를 지혜안·제3의 눈·법안法眼·불안佛眼·보살안菩薩眼이라고 말합니다.

석가모니불의 이마 중앙에도 이 눈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지혜안이 이미 열렸기 때문이지요. 수행을 하지 않고 이 눈을 열여 줄 수 있는 큰스승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계속 닫혀 있습니다. 이 닫힌 곳과 내가 아까 이야기한 우주의 어둠의 경계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장벽의 기능은 정토와 예토를 갈라놓아 정토의 무량광이 아래로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안을 열기만 하면 무량광(불광)은 순조롭게 마치 막혔던 길이 뚫린 것처럼 장

에 없이 아래를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길이 있었어도 가로막혀 통과할 수 없었지요.

지혜안을 열면 지혜가 위쪽에서 사지와 온몸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아주 바르고 분명하며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혜와 온몸이 통하니 장애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 지혜의 차크라를 수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몸 안에 있는 다른 차크라는 다 배설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는 눈물과 눈곱이 나오고, 코로는 코딱지와 콧물이, 귀로는 귀지가, 입으로는 침과 가래, 항문으로는 배설물이 나옵니다. 아래로 갈수록 추잡하지요. 우리 몸의 아홉 구멍은 모두 오물을 배출합니다. 왜냐하면 배설 기관이니까요. 성주괴공과 같으므로 이 배설의 차크라를 수행하면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내가 대강 이야기하지만 법을 전할 때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어떤 세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법문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개한다고 해도 좋을 게 없지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장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로 법을 전할 때는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데, 우선은 몸과 말과 생각이 청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내가 법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모두 알 테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말해 준 건 조금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총명합니다.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지혜 차크라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길이 조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총명하고 도덕적이지요. 전생의 수행이 좀더 높으면 이 지혜안도 좀더 크게 열립니다. 지혜안을 통해 사람의 어디가 열려 있고 어디가 닫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설령 이 지혜안이 완전히 닫혀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큰스승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열 수 있도록 그가 도와줄 테니까요. 마치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고 돌리기만 하면 바로 열리듯이 아주 빠르게 말이에요. 열쇠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행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살아 있는 스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큰스승에게 예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석가모니불을 존경하고 숭배하며 언젠가 우리도 석가모니불처럼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석가모니불은 이미 이 세계를 떠나서 우리가 문을 여는 걸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열쇠도 이미 다른 살아 있는 큰스승에게 전해졌으니 문을 열려고 한다면 살아 있는 큰스승, 아직 왕생하지 않은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을 여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토에서 예토까지 그 중간에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만일 연락해서 통하려면 이 열쇠를 정토에서 예토로 가져올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정토에서 열쇠를 직접 떨어뜨릴 순 없으니까요. 설령 떨어뜨린다 해도 앞에 언급한 우주의 그 어둠의 지역에서 분실될지도 모르지요. 부처의 빛이 그곳에서 소실되어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를 사지로 전달할 방법이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도 화를 내게 되고,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도 실

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어둠의 세계에 의해 방해받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부처의 빛을 이 사바세계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전선 같은 보호 장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선이 없으면 전기가 이곳으로 올 수 없습니다. 전기가 존재하긴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지요. 반드시 도구를 이용해야 그 전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 예컨대 물이 산에서 흘러내린다고 합시다. 만일 그 물을 보호할 수도관이 없다면 물은 더러워져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살아 있는 큰스승은 수원으로부터 우리 집까지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가져다주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이 지혜안(불안·법안 등)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성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라든가 ‘견성성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성불이 그렇게 간단할 수 있죠?”라고 하지요. 어째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불이 “부처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만일 부처가 마음에 있다면 어째서 빨리 찾을 수 없단 말입니까? ‘부처가 마음에 있다’는 말은 돈이 주머니 안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바로 돈을 꺼낼 수 있지요. 부처가 마음에 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아주 빨리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맞지 않다면 그들이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

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가장 위대한 큰스승이었으니까요. 만일 그들이 사람들을 속였다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들을 우러러보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 두 큰스승과 함께 노자가 제일 유명합니다. 2, 3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유명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숭배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는 등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은 것은 아니어서 그들은 석가모니불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가르침들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옳지 않다면 그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2천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중생이나 수행자를 불문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그들을 우러러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왜 어떤 사람은 총명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지, 어떤 사람은 선량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그 이유는 그것이 지혜의 문이 열렸는지 닫혀 있는지와 상관이 있고 정토와 예토가 서로 통하고 있는지 없는지와 연관이 있어서였습니다.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소우주로서 대우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우주가 몹시 불안하고 어지럽다면 외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소우주와 대우주가 서로 통하여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I and my Father are ‘One’).”라고 했습니다. 노자 역시 ‘일—(합일)’의 경지를 얻는 상황

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덕경』 제39장: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爲天下貞)

그러므로 수행은 우리 자신의 소우주를 정리하여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원래는 화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입도 우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지요. 때로는 정말 부드럽게 말하려 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맙니다. 이 손은 사람을 때리고 싶어하지 않지만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게 우리 지혜의 반응보다 훨씬 빠를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혜가 손에게 사람을 때리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그 어둠의 장벽을 통과하면서 사람을 때리라는 것으로 엉뚱하게 바뀌는 바람에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바깥세상도 어지러울 것이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면 세상은 아주 평화로울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남편을 지배해야 가정이 편안해진다는 말이 아니며, 부인을 때리고 압력을 가해야 가정이 평온해진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평온해지려면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인도 변합니다. 설령 부인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엔 동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지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어라.”라고요. 왜냐하면 원망스럽지도, 같이 때리고 싶지도

않고 좋기만 하니 몇 대 맞고 욱 줌 먹는다고 힘들 건 없으니까요.

똑같이 때려도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는 누가 한 대 때리면 곧바로 여러 대로 갚아 주었는데, 수행을 한 후에는 한쪽을 때리면 다른 쪽도 마저 때려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맞는 상황은 같지만 마음 상태는 크게 다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곧 우리와 무관해져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 화내고 싶으면 내고 화내고 싶지 않으면 안 냅니다. 육근六根이나 육진六塵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어둠의 지역으로부터 통제도 받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여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혜능이 정토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서방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방세계는 바로 여기(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 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범문으로 수행을 하면 모든 경지가 여기(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 기어 올라가거나 날아서 올라가야 극락세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야 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면 정토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우주가 대우주와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자는 “수행자는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도덕경』 제47장: 不出戶 知天下).”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수행을 한 후에는 소우주와 대우주가 서로 통해서 모든 곳을 훤히 다 알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불한 사람을 우리는 ‘여래’라 부릅니다. 여래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가 이미 ‘부처’가 되었다, 혹은 ‘여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석가모니불만이 여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체험을 통해 나온 말이므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래의 상황은, 예를 들어 ‘도’를 이룬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다 합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그가 법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천당에서 가르치는 것도요. 우리가 부처를 일컫는 ‘천인도사天人導師’, ‘사생자부四生慈父’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토에 가도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기분 좋은 날 지옥을 둘러보고 싶어 갔다면 아마 거기서도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래’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볼 수가 있지요. 그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그 순간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법계法界와 동일체가 되지요. 법계진체法界眞體와 법계는 같은 것으로, 그와 중생을 분리시킬 만한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중생과 동일체이기 때문에 중생이 어디에 있든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생이 아닙니다.

서방의 경지가 삼계 이내와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면 삼계 이내는 아주 어지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윗부분의 지혜가 이마 아랫부분과 통할 수 없게 되어도 어지러운 상황이 빚어지죠. 이는 마치 주인이 없고 전화도 불통인데 노예와 고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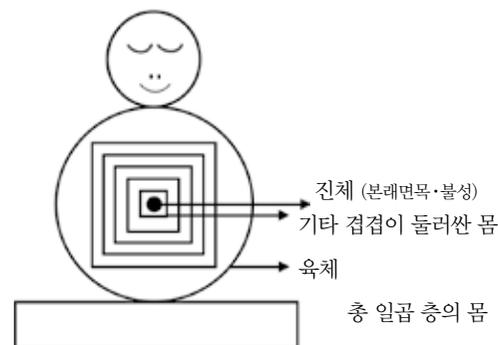
들은 모두 집에 그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총명하지 못해서 이미 주인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주인도 없고 전화도 불통이고 편지도 못 쓰게 된다면 제멋대로 풀어져서 무슨 일이든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 중에 삼매에 들면 세상을 돌아다니며 미국이 어떤지도 보고 어지러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의 유체이탈이지 여래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아스트랄 프로젝션(Astral Projection)(영혼이나 영체가 나가는 것)이라 하는데 ‘여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림 3 참조) 예를 들어 이것이 사람이라면 바깥은 여러 층의 몸으로 싸여 있습니다. 가장 내면은 우리의 본래면목, 우리의 주인 혹은 우리의 진체·불성·천국·영혼 등 무엇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의 불성은 제일 안쪽에 갇혀 있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이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불성을 얻었다는 뜻은 아니고, 육체만 남겨 둔 채 유체(Astral body, 내면은 여러 층의 몸과 진체를 포함하고 있음)를 사용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층 한 층의 몸은 모두 일곱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일곱 겹의 하늘이라고 말하며 이슬람교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직 여래가 아니고 불성이 아닙니다. 불성을 이용하면 아무데도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앉은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걷고 말하지

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곳에 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타이베이에서 명상 중이든 아니든 간에(이것은 각 개인의 수행 등급에 따라 정해짐) 내가 그곳에 있는 걸 볼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가 필요하면 스승의 화신이 가서 도와주죠. 이것은 유체이탈 상황과는 다릅니다. ‘유체이탈을 하려면’ 육체만 남겨 두고 여러 층의 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니까요. 나머지 여러 개의 몸과 함께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돌아와서는 다시 원래의 육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벽에 걸려 있는 옷을 입는다든가 문을 열고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집, 이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전에 떠날 때 짐을 들고 갔다가 여행이 끝나 돌아올 때도 짐과 돈 등 모든 물건을 전부 가지고 돌아오지요.



<그림 3>

(주: 스승님 말씀 - “진체는 본래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시로 이 그림과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여래가 아닙니다. 이른바 여래라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만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래로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며 말을 하고 강연을 하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는 어느 곳이나 다 존재하고 모든 일을 해결하며 다른 중생, 다른 동료 수행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문품 普門品」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법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이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으로 어느 곳이나 다 있다는 말입니다. 문은 법문입니다. 석가모니불의 말은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에 우린 모르는 곳이 없고 어디에든 다 존재하므로 ‘여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 또한 이 보문 普門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어 중생의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알고서 즉시 달려가 구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든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자신의 지혜안을 통해 보는 것이니 천안통이나 천이통과 혼동하지 마세요. 천안통과 천이통은 보문이 아니며 여래의 등급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래’는 그의 여래심과 불심으로 자각하는 것으로서 무엇이든 다 압니다. 그래서 ‘보법’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보’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보문은 중생을 제도하는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죠. 그러나 소개만 해줄 뿐 법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명호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면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외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명호가 아닙니다. 그의 명호는 특별한 청력을 사용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명가명 名可名 비상명 非常名’이므로 일반 범부의 언어로는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진정한 명호는 관세음보살이 아닙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해야만 알 수가 있지요. 범부의 언어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진정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큰스승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을 돌보고 좋은 사람이 되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도’가 더 좋으냐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종파가 더 좋은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파가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도가도 道可道 비상도 非常道’이니, 나중에 그 ‘도’를 찾았을 때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찾기 전에는 모두 무지한 인간으로서, 아무렇게나 추측하고 불필요한 구업만 지을 뿐이지요. ‘도’를 알고 나서야 어떤 도가 나쁜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자는 말하기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도덕경』 제56장: 知者不言 言者不知).”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논쟁과 변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도’는 마땅히 이래야 되고 저래선 안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법을 전할 때는 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문을 소개하고 내면의 상황을 조금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나 개인의 것이므로 나 자신만 알고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루어 관음보살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세간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勝彼世間音)’이며,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런 ‘세간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는 우리 범부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문품」은 보문‘법’이 아닙니다. 보문‘법’은 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보문품」은 보문법의 체험을 약간 소개만 할 뿐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아미타경』을 봤더니 거기에 서방 정토의 경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더라고 했습니다. 땅은 황금이고 나뭇잎은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노래하는 새들·팔공덕수·연꽃 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는 그런 경지가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 동의합니다. 만일 아미타불의 나라가 그냥 그렇기만 하다면 나 역시 그러한 경지를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땅이 황금이든 진흙이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황금이 탐나지 않으며, 진주나 보석 같은 것도 탐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탐내지 않는데 정토에까지 가서 진주와 보석을 탐내서 뭐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주와 보석이나 아름다운 경지를 탐내서 정토에 가려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생이 그곳에 오면 알아볼 수 있도록 석가모니불이 그 정토에 대해 소개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지를 탐내서 수행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행하여 서방 정토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아주 행복해지고, 자신에게도 이롭고 세상에도 이로운 유익한 중생이 됩니다.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관음보살·대세지보살·무량광 아미타불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급에 이르려고 수행하는 것이지 서방 정토의 상황들이 탐이 나서 수행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불국토는 장엄합니다. 서방 극락세계에까지 가서 진흙이나 풀로 만든 궁전을 볼 리도 만무하고, (대중 웃음) 지저분한 이곳의 시장 같은 곳을 볼 리도 만무하지요. 그곳은 대단히 장엄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오묘하며, 눈이 부십니다. 그 외에도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불도 말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묘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범부의 언어로 어떻게 정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약간만 말해 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한 게 아니고, 그의 제자가 당시 명상 중에 체험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제자를 데리고 정토에 올라가 보여 준 것을 제자가 돌아와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아미타경』은 부처가 사바세계에서 설법한 것이 아닙니다.

『관무량수불경』을 보면, 위제희 왕후가 서방 정토를 보게 된 것은 석가모니불이 화신으로 그녀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것은 명상 중에 신의 식神意識이 높은 경지에 있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압니다. 그것은 범부의 등급이 아닙니다. 위제희 왕후는 명상 수행이 이미 높은 등급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처의 화신과 함께 높은 경지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체험을 적어 두었지요. 어떤 사람은 부처가 육신으로 감옥까지 날아가 그녀를 가르쳤다고 해석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논법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처는 천백억 화신이므로 육체로써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 부처는 제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그곳에 갈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여래’의 등급은 무소부재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화신 스승(여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각자의 수행 등급에 따라 화신 스승은 그에 상응하는 경지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아미타경』 역시 똑같은 경우입니다. 부처의 제자가 정토에 다녀온 후 돌아와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수행일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법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체험이 있거나 무슨 경지를 보게 되면 모두 기재를 하게 됩니다. 법을 전하는 동안은 개인의 체험에 속하므로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쓰겠지요. “모월 모일 칭하이 무상사께서 관음법문, 정토법문을 설하셨으며, 아미타불과 정토의 경지, 칠보지七寶池·팔공덕수八功德水 등등을 보았다.”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후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를 보게 되더라도 그에게는 이러한 체험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

다. 왜냐하면 팔공덕수는 이렇게 쓴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팔공덕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정토를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보통 범부들은 정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토를 볼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수행 등급이 이미 대단히 높은 경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이롭고 중생에게도 이로운 불퇴보살이 된 것이죠. 그때는 대단히 큰 힘을 갖추게 되어 어렵지 않게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토가 탐이 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토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살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의 지위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살의 지위를 얻었다면 당연히 장엄한 곳에 살아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에도 여러분은 옛날처럼 작고 어둡침침한 집에 살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의사가 되었으니 당연히 아름답고 위생적인 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지위에 어울리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중생을 위해, 환자를 위해 의학을 배우러 갔지 아름다운 집을 얻기 위해 배우러 간 것은 아닙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법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서방 정토의 아름다운 경지를 모두 적어 두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도 별다른 느낌이 없겠지만 당사자가 보았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상태도 다르고 수행 등급도 다릅니다. 그는 대단히 편안하고 행복하며 아주 흥가분하고 지혜가 크게 열리는 걸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가 보았다고 해서 중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체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본 경지들이 그에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 정토를 보게 되면 큰 힘과 신통, 많은 지혜 등이 생겨 아주 즐겁고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의 체험 일기를 보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별 의미가 없을 수밖에요. 서방 극락세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된다 해도 우리 자신이 그러한 등급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입문할 때 관음보살을 보았다고 말했습시다. 그렇지만 누가 관음보살을 보고 싶어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관음보살을 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관음보살을 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관음보살을 본 것 외에 아름다운 궁전도 있었는데 관음보살은 아주 아름다운 곳에 살고 계셨으며, 제가 관음보살을 보는 순간 온몸과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관음보살을 보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관음보살을 보았을 때 온몸과 의식이 완전히 변하고 지혜 역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그런 변화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지혜가 열려서 행복한 것이고, 꽃이 피니 부처를 보고 무생을 깨달아서 즐거운 것입니다. 부처를 보게 되었을 때가 ‘무생無生’입니다. ‘무생’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으로 생사윤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견성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견성을 하여 다

른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불을 하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불을 하려고 할까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야 고통스러운 중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도 그들 중의 하나였기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중생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그런 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성불할 수 있으며, 부처와 보살을 보게 되고, 늘 부처를 따라 배우게 됩니다.

절대로 정토의 아름다움을 탐하거나 부처의 지위·신통·능력·지혜를 탐하여 성불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훌륭한 시민, 훌륭한 도구가 되어 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서로 평화롭게 함께 지내도록 돕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서로 살상까지 하고 있으니깐요. 인류는 이 세상에서 본래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삶이라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고통과 다툼·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 살해당하는 사람,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누구도 생로병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죠. 일생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나중에 손만 탁탁 털고 떠날 수 있다면야 너무나도 좋고 해탈 또한 바라지도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생로병사가 있어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내는 삶을 보면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지요. 동물들도 먹고 자고 새끼를 기릅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총명하긴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완전히 다 사용하지 않아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10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낭비하니 말입니다.

만일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수행에 매진한다면 대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의 것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고, 누구든 다 구할 수 있으며, 가고 싶은 곳은 비행기 표를 살 필요도 없이 어디든 저절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육체는 아직 비행기 표를 이용해야겠지요. 나에게神通력이 있어-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하늘을 날아 여기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 동료 수행자(스승님의 제자를 가리킴)를 만난다고 합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리 오래 살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누군가 나를 새로 알고 총으로 찌서 잡아먹어 버릴지 모르니까요. (대중 웃음)

그래서神通은 별로 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神通을 쓰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여기에 있지만 화신은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을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래와 같지요. 그의 화신은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입으로 불면 나타나는 수많은 손오공과는 다릅니다. 이런 건 천백억 화신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神通일 뿐입니다. 그런 손오공은 머리털이나 몸의 털을 가지고 변화를 부려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2, 3분

이 지나면 사라지고 다시 털로 변합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이 아닌 것입니다. 제발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천백억 화신은 여래여거(如來如去)합니다. 사람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그 어느 곳이나 모두 존재하며, 그 어떤 일도 다 압니다. 그는 특별히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날마다 먹고 자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손오공이 되고 싶습니까, 석가모니불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부처가 되어야 궁극적이며 영원할 수 있습니다. 손오공은 여전히 삼계 이내에 있으며 여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불하고 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나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의 겉모습은 범부와 똑같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먹고 자고 일을 하지요. 그러나 그는 먹고 자는 순간에도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며, 명상을 하고 말을 할 때에도 중생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우리는 먹고 잘 때 아무 이로움도 주는 게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충분히 이로움을 주지 못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선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성불하고 나면 겉보기엔 중생과 다름없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긴 하지만 같은 시간에 그는 대단히 많은 무형의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서 천백억 화신을 나눌 수도 없고, 여래여거하지도 못하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없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도 못합

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불보살은 이처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중생이든 여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문을 열고 나서 열심히 수행하여 똑같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6년 동안 수행을 했고 혜능은 16년을 수행하여 성불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모든 중생에겐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의 말은 동물도 불성이 있다는 뜻인데, 왜 그들은 성불할 수 없고 인간만이 성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어 판단할 수 있고, 수준 높은 판단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판단을 할 수는 있으나 어느 곳이 위험한지, 어느 곳에 먹이가 많은지, 어느 곳에 먹을 물이 있는지 같은 것들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후각은 인간보다 예민하지만 도덕과 악업에 관한 일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무엇이 선악善惡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천당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사바세계에 남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지혜가 달라서 천당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지옥으로 가고, 해탈을 선택하려 했으나 잘못하여 생사를 윤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면 선지식을 찾아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도 시작할 때에나 받는 것이지 이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야 하고, 스스로 선지식이 되고, 스스로 큰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큰스승이니까요. 누구든 배우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에게 배우면 나중에 마찬가지로 의사가 될 수 있지요.

성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모든 중생에겐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세에 성불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석가모니불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체험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일세에 성불할 수 없다면 최소한 보살은 될 수 있습니다. 대보살마하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보증합니다.

Q: 만일 누군가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면 그 부처와 석가모니불은 같은 부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입니까?

A: 그들의 등급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Q: 입문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런 신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만일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진짜와 가짜의 경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A: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리는 아닙니다. 또한 항상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떤 경지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법문은 완전하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고 보호의 힘도 갖추고 있어 마장이 와서 곤란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경지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내면의 소리가 존재하며, 경

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본 것이 내일 없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경지가 아닙니다. 진짜 경지는 오늘 봤으면 내일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절은 진짜로 존재합니다. 환상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와서 봐도 똑같습니다. 만일 꿈을 꾸는 것이나 환상이라면 오늘 봤어도 내일은 볼 수 없을 겁니다.

큰스승을 따라 배우면, 그는 어떤 경지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법을 전한 후에 여러분은 매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언제든 듣고 싶을 때마다 항상 들립니다. 법을 전하는 것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정진하여 수행에 진력하면 경지는 나날이 높아질 것이고, 자신이 듣는 소리로써 자신의 경지가 어떤지, 등급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을 전하기 전에 내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 줄 테니까요. 지도와 같이 각 지역마다 표시가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귀중한 것입니다. 나는 개에게 법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지만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설령 개에게 법을 전해 준다 해도 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기 때문이지요.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이해할 테니까요.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법을 전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법을 전하기 전에 소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가 하는 대로 여

러분이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이 법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필요 없으며, 조금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법공상 諸法空相'이기 때문이지요. 육조 혜능이 전한 법이 '무상법 無相法'이었는데, 이는 내가 전하는 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6장

아수라 증생

6장

아수라 중생

1987. 3. 13. 포모사 타이베이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아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포모사에는 명상이나 다른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처음 배울 때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문제가 생겨 빙의가 되고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내게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 신력神力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거나 이상야릇한 동작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드라를 못 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니 즉시 무드라를 할 수 있거든요. 무드라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리저리 뛰거나 몸을 진동시키는 동작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묻기도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그걸로 정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겁니다.

이런 일이 포모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도 많이 봤는데 그들은 제대로 된 스승에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밤이나 낮이나 쉼 없이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 소리란 것이 아름답고 즐거운 소리도 아니고 누군가 말을 하는 소리인데 아주 시끄럽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설치게 됩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다 보면 피곤이 쌓여서 몸이 점점 허약해지고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저급한 아수라 중생들의 짓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 큰 복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좀 더 복이 많다면 천인이 되지요. 가장 큰 복을 쌓아야 겨우 보살이 될 수 있으니 성불에 이르는 사람은 아주아주 드뭅니다. 지금은 성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살아 있을 때 복도 별로 없고 죄도 어중간히 지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도 안 가고 외롭게 떠도는 원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낮은 등급의 아수라가 되어 아수라 지역에서 사는데, 그곳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좀더 높이 올라가야 하늘이 있지요.

아수라 지역은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지는데, 첫 번째 등급은 천당이고 두 번째 등급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천당과 지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아수라 지역에 있거든요. 지옥에 있는 아수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자유가 없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당의 아수라는 자유가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약간의神通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워낙 싸움을 좋아하고 장난을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물의를 빚기도 하지요. 그들은 사람들을 맘대로 조절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놀리고 그들과 장난하러는 것일 뿐 전혀 악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아주 민감해서-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나 주인은 같은 것입니다.-간혹 영혼이 몸에서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중생이 잠시 우리 몸을 빌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몸을 빌려 뭔가를 하고 싶어하겠지요. 나쁜 일을 하거나 세상의 온갖 것들을 즐기려고 할 겁니다. 때로는 한 몸에 여러 중생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빙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빙의된 사람이 내는 여러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본인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입이 통제 가 안 돼 여러 가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미 여러 명의 아수라 중생이 몸에 들어온 상태라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신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선량한 아수라도 있지요. 그들은 들어와서 잠시 놀다가 떠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수라들은 욕심이 많아서 인간의 몸을 사용하길 좋아하여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번 차지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빈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난 후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도 나가지 않고 그 집을 강제로 독점하려는 것처럼요.

만일 정법으로 수행하지 않는 데다 민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스승의 지도도 없고 좋은 힘으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그런 낮은 등급의 아수라 중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어느 날 귀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수라가 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라는 올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神通이 있어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지요.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로 변하거나 심지어 나(스승)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은 수행자라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수라가 내 모습으로 변하여 화신으로 나타나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온다고 했을 때 내 제자라면 즉시 아수라가 변해서 온 것인지 진짜 스승의 화신이 온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배우지 않았거나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수라가 아미타불이나 예수 그리스도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다른 불보살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에 속게 되지요. 그 아수라가 어떻게 하라고 시키면 그들은 진짜 불보살을 만난 줄 알고 엎드려 절을 올리며 아수라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에게 난잡한 일만 시키고 나중에는 급기야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법을 전수하게 합니다. 온갖 무드라를 취하게 하고, 감정을 자극시키고, 이리저리 뛰게 만들거나 내면에서 목소리가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지만 전부 다 무의미한 일들뿐입니다. 그 가짜 부처가 하는 말

은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 작은 일 정도는 예언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대다수가 거짓이고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막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쩌다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 아수라들이 올 때 제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몸을 점거하거나 잠시 들어와 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사람들과의 불화를 조성하기 때문이지요.

8개월 전 내가 독일의 절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어울락 부인이 하루 종일 그런 목소리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인즉 그녀의 아들이 얼마나 나쁘고,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지, 그녀에게 어떻게 안 좋게 대하는지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었고, 시뻘거리기를 찾아 일부러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직장에 가서도 폭력을 휘두르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사람들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늘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 당연히 직장에서 쫓겨났지요. 그녀는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아들과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겨 싸움을 걸었으며 모든 사람을 다 의심했지요. 왜냐하면 늘 아수라가 이렇게 일러줬거든요. “사람들이 다 당신을 의심하고 안 좋게 대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신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서 5분 후에 당신을 때리거나 2시간 후에 당신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할 거야.” 아수라가 매번 그렇게 말하면 빙의된 사람도 그걸 믿게 되면서 상대와 싸우게 됩니다. 사

실과는 전혀 다른데요.

그런데 그런 아수라들은 사람들의 불화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아수라이고 아수라는 본성이 호전적이니까요. 호전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 있을 때 싸움을 좋아하다 죽어서는 아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호전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해, 지혜가 부족하고 남의 말을 잘 믿는 예민한 사람들을 골라서 싸움을 붙여 놓고는 한쪽에서 비웃습니다.

때로 그들은 석가모니불이나 관세음보살·제공할불 또는 이름도 모르는 많은 신들로 변신해서 나타납니다. 다들 자칭 모모 신불神佛로서 사람들을 교화하러 왔으니 예를 올리라고 하거나 설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그들 자신도 배운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인간들도 배울 수 있는데 왜 아수라들이라고 못 배우겠어요? 그들은 먼저 설법을 들은 뒤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말해 주며 자기에게 예를 올리고 공양하라고 합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여러 명의 부인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그들이 여자를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육체가 없어 그런 상황을 즐길 수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결혼을 여러 번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고기 요리나 특이한 것들을 먹게 하지요. 이걸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육체가 없어 즐기 못하니 즐길 목적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 그 몸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도 다 아수라의 영향 때문이지 우리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을 하여 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 담배 피우고 마약을 복용하고 도박을 하고 술

을 마시는 사람들의 주변을 많은 무형의 아수라 중생들이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담배 냄새를 좋아해서 맡기만 해도 쾌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몸이 없어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도박을 할 수도 없으며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을 골라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을 봐도 마실수록 주량이 점점 늘어나지요. 그것은 아수라 중생이 한 명이 아니라 그가 올 때 서너 명의 친구들과 함께 와서 그들 각자에게 조금씩 나눠 주다 보니 아수라 숫자가 많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지요. 마음먹고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끊기가 쉽지 않으며, 마약이나 도박을 하는 사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로는 그들을 술 귀신, 도박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웃자고 하는 말이나 일반인들의 편견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주 빨리 끊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자리에 많은 동료 수행자들이 있지만, 사실 많은 것도 아니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려는 경우가 결코 많지 않으니깐요. 몇몇 동수들도 전에는 하루에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아는 걸 본인이 싫어할 테니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은 원래 하루에 담배를 서너 갑씩 피웠는데 입문하자마자 바로 끊고 나서 지금까지 한 개비

도 손에 댄 적이 없습니다. 자신만 안 피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모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50세가 되도록 술을 마셨으나 입문한 후에 바로 끊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법문을 수행하면 즉시 끊을 수가 있지요. 지금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습니다. 아주 빠르고 자연스럽게 완전히 바뀌었지요. 입문을 한 후 그들이 담배나 술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 지금은 그들의 친구들조차도 그들을 몰라볼 정도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싹 변할 수 있느냐며 놀라워한답니다. 이것은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화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아수라 때문이라니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중에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수라도 못된 아수라, 장난기가 많은 아수라, 담배나 술을 좋아하는 아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수작에 말려들게 되면 어떤 아수라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좋지 않은 법문으로 수행하거나 수행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수행을 해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수행 목적이 더 많은 명에나 신통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수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중생들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문란한 성생활 등을 즐긴다면 그 정도가 심하거나 너무 지나칠 때엔 곧 아수라 중생들에게 몸을 이용당해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아수라들은 좀 골치 아픈 아수라들이지요. 좀더 순한 아수라들은 우리가

리 싸움을 붙이고, 그보다 더 순한 아수라들은 우리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게 합니다.

아수라는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아수라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류는 청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 또는 수행 목적이 불순한 사람이며, 풋내기 아수라들은 예민하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담배나 술·마약에 빠지게 해서 몸과 정신을 망치게 합니다.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지가 약한 탓에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 신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수라들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불보살로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그 정도는 판단할 만한 총명함이 있을 테니 의심을 할 겁니다. ‘무슨 불보살이 저런 세속적인 일을 좋아할까? 불보살이라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며 대지혜와 대자비심을 갖추고 있을 텐데 어떻게 더 많은 부인을 원하고 생선이나 고기 요리를 먹고 술을 마시고 싶어할까?’ 그러나 그때 아수라는 그들 나름의 그럴싸한 논리로 이유를 말할 것이고 아수라에게 이미 몸을 점거당하고 있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게 됩니다. 일단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주도권을 뺏기고 갈수록 더 나약해지고 자기 능력을 상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에게 의지해야만 하고, 자기의 존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자기 또한 아수라가 되고 맙니다.

만일 우리의 주인이 없으면 몸이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주인, 다른 말로 영혼 혹은 본래면목·지혜라고 해도 됩니다. 이 주인이나 영혼이 없으면 몸은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일단 아수라가 들어와 우리 몸을 이용하게 되면 그 몸은 아수라의 것이 되고 말지요.

이 세계는 수많은 아수라와 각종 중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안이 열렸다면 이 강연장에 여러분만 강연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강연할 때 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보살과 나의 본래면목이 와서 강연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중생·천인·아수라가 모두 와서 강연을 듣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지혜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는 아수라도 많고 귀신과 마귀도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결코 다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안이 열리지 않아서 누가 사람이고 누가 귀신이며, 누가 마귀이고 누가 아수라인지 분별할 수가 없지요. 만약 볼 수 있다면 무서울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무서울 거예요.

아수라 중생은 직접 우리를 괴롭힐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친지를 통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와서 훼방을 하다 뜻대로 안 되면 우리의 친지를 건드리는데, 아버지·어머니·자녀·부인·남편 등을 시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수행을 방해하지요. 이는 다 아수라의 영향으로 인해 비롯되는 결과들입니다. 아수라의 등급은 아무리 높아 봤자 삼계 이내입니다. 비상비상천非想非非想天이나 다른 불교 용어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

니다. 그런 건 아주 골치 아프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세계, 두 번째 세계, 세 번째 세계, 네 번째, 다섯 번째 등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아수라 중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착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세계는 아주 많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교 경전에 모두 언급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지들에 대한 명칭을 알고 싶으면 집에 돌아가 불교 사전이나 경전을 보십시오.

두 번째 세계는 아주 많은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세계의 중생들 중에서도 어떤 부류는 그다지 선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좀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갔을 때, 예컨대 두 번째 세계의 등급에 올라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곳의 중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괴롭히는 정도도 훨씬 더 심합니다. 두 번째 세계에 올라가서도 이미 그렇게 힘이 드는데 불보살을 만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는 도중 각 입구마다 수많은 중생이 막고 서서 우리를 괴롭히며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아수라 중생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신통이 있는데, 그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안통 같은 능력을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자유로워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 있고 어디든 더 빠르게 갑니다. 그들은 본래 무형의 중생이기 때문에 무형의 중생들을 우리보다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어 한두 가지 일을 맞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날 아수라 중생이 몸에서 떠나 버리면 우리는 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더 멍청하거나 나약할 수도 있지요. 아직 습관이 안 되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수라들이 우리 몸을 사용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넣어 우리는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혼은 한쪽 구석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수라에게 죽은 듯이 억눌려 있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민감한 사람들이 마귀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이는 그들이 순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믿는 탓에 아수라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한 가지이고, 그 외에 또 다른 경우로는 수행을 하면서 훌륭한 스승의 지도가 없거나 좋은 법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혹은 수행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여 신통력을 갖고 싶어한다거나, 나중에 명예와 부를 겸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대감으로 급히 신통을 얻으려 든다면 그때가 바로 아수라 중생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탐심을 이용해 신통을 부러 믿게 한 뒤 진짜로 불보살이 사람들을 교화하려 내려왔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진짜인 척하며 “네가 열심히 수행하려고 해서 너를 가르치러 왔다.”라고 말하지요. 그들도 설법을 할 수 있으니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가짜 경지로 데리고 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려면 좋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

장 중요한 점입니다. 높은 이상이란 스스로 해탈을 구하는 동시에 중생들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제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고귀하고 순수한 목적 이외에도 높은 법문과 높은 스승이 있어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호흡이나 세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초보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신통력을 좋아하면 불보살로 변한 아수라들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라가 만든 가짜 경지에 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서방세계로 데려갔다면 그곳은 진짜 서방 정토가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아수라 지역에서는 아수라들도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복덕이 많은 아수라들은 가짜 경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세계의 모습들을 조금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 주며 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진짜 서방 정토를 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본 광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는 최면술에 걸리거나 술에 취한 상태와 같아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옳다고 합니다. 진정한 지혜도 없고 머리도 명석하지 않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저 멍하기만 하죠. 부처를 보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서 그저 부처라고 생각하고는 즉시 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가면 부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일까 염려하여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 가짜 부처는 “너는 이제 성불했다. 아라한이 되었다. 모모 보

살이 되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며,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른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많은 스승에게서조차 사람들이 감응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몸을 이리저리 뛰지 않으면 흔들거나, 온갖 무드라를 취하거나, 귀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거나,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모래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등의 예언을 하지요. 아수라 중생들도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사소한 병밖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점점 더 믿게 되고, 일단 믿게 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즉시 따르게 됩니다.

아수라 중생은 간혹 한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비행접시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우리를 태우고 가서 구경을 시켜 주면 우리는 천인들이 온 줄로 압니다. 사실 비행접시에 우리를 태우고 가서 보여주는 곳들은 다 아수라 세계일 뿐인데 말이지요. 하지만 알려주건대, 아수라 세계도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진짜 천국에 왔거나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에 온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보다 100배 이상 아름답거든요. 그곳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굉장한 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스승이 없고 올바른 안내가 없으면 혼자 수행을 해서 가거나 아수라 중생이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도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그곳이 정말로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만약 지금 그들을 믿는다면 죽은 후에 그들이 와서 우리

를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은 복이 없으면 죽어서는 당연히 곧바로 지옥으로 가지요. 복이 조금 있는 사람은 ‘일류 지옥’에 갈 수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아수라의 천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외에 ‘이류 지옥’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아수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모두 지옥인 셈이지요. 비록 아수라 세계에 있긴 해도 장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천 년을 살 수도 있고, 이천 년, 삼천 년도 문제없습니다. 심지어는 수백만 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이미 그곳이 궁극적인 곳이고, 불로장생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이고, 서방 극락세계라 여기고는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행을 한 뒤 스스로 성불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처가 다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를 가르친다.”라고 말하지요. 부처를 만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해야 하고,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순수함의 순도는 마치 투명한 유리琉璃처럼 티끌만한 불순물도 함유하고 있지 않지요. 비록 성심성의를 다해 해탈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진짜로 훌륭한 ‘깨달은 큰스승’을 찾아야 하며, 그의 가르침대로 몇 년을 수행하고 나서야 한두 분의 부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은 빨리 되는 것이라 부처를 보고 싶으면 즉시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신이 좀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인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는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해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해도 여러 해 교사 수업을 받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나서야 교사가 될 수 있지요. 어떤 분야든 뭘 배우는 데에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배우는 데도 이처럼 쉽지 않은데 허물며 부처가 되는 걸 배우는 건 어떻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 우주의 법칙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어떻게 상관이 없겠어요? 어떤 중생이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한, 자신이 누구든 간에 사바세계의 법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석가모니불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부처로부터 중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국가와 부모와 스승과 친구의 은혜인 사중은四重恩(중생의 네 가지 깊은 은혜)을 입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있는 한 부처·보살·중생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사중은을 입고 있으며,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태도로 이 사바세계의 법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이나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우선 도덕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도덕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 없으며, 수행을 한다 해도 부도덕한 부처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도덕한 사람은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서방세계로 보내 부도덕한 보살이 되게 하겠어요? 『능엄경』에 아주 분명하

게 씌어 있습니다.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수행을 해도 마귀가 될 뿐 보살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말한 건 작은 예에 불과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행막식 하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법칙보다 높다고 생각하고선 중생의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남편이나 부인을 많이 두어도 괜찮으며,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돈을 많이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성불을 했고 자기가 성취한 것이 우주의 법칙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요.

해탈을 했다 해도 계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것도 아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 우주의 법칙을 존중하고서야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보살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퇴보하거나 도덕심이 부족하면 즉시 아랫자리로 불러내려지죠.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대통령은 한 국가의 원수元帥입니다. 그런데 그가 법을 어기면 마찬가지로 경찰에 잡혀 가고, 마찬가지로 법의 제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가지 않나요? 그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개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채식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자신은 일개 범부라서 아직 많이 모자라 진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은 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 해도 업장을 피해 갈 수는 없겠지요.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다 업장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요리를 해주지 않는

다거나 또는 채식을 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합시다. 이런 것은 실제적인 상황이고 꾸며 낸 말이 아니기에 그런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채식이 어렵고 수행을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자신들의 상황이 아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직장 때문이거나 배우자가 반대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자신들이 무엇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모두 괜찮다고 생각해서 막행막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란한 성생활·살생·육식·음주·도둑질·사기 등등을 일삼지요. 그래 놓고도 자신들을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부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범부들도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처에게 절을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성불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법칙을 몰라서 아수라 중생에게 속기 때문이지요. 아수라는 “나는 너를 가르치러 온 모모 부처이다. 너는 이제 성불을 했으니 그런 소소한 일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수행에 집착해선 안 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말로 아수라는 우리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게 하며, 자신의 등급이 이미 높아서 우주의 법칙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쉽게 속임수에 빠져서 헤어 나오기가 어려운 것

이죠. 그런 마장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끌어내려 도망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떠 큰 돌로 우리 앞길을 막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스승의 지도가 있어야 하며, 살아 있는 스승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이고 수행의 도덕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높은 이상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장에 걸리거나 아수라에게 속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이를테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현재 살아 있는 스승을 보게 되면 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 명상 중에 스승이 나타난다 해도 똑같은 모습일 테니까요. 그러나 만일 현재 스승이 없다면 명상을 할 때, 예컨대 과거의 스승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거나 설법을 해주어도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가 진짜 과거의 스승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가신 지 거의 2,000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는 그분들의 모습은 모두가 사람들의 상상에 의한 사진이나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명상할 때 그들이 우리 내면에 나타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존하는 스승을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데, 그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장애가 있으면 도와 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높은 경지로 데려갈 것이며, 그곳에 가서야 진짜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무턱대고 수행할 때 나타나는 과거의 스승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불의 생전 모습도 모르고, 또 아수라 지역에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허다하니까요.

그러므로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스승의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라 지역을 통과할 때 어떤 것은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가르쳐 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뭔가를 이용하여 좋지 않은 경계들을 가려 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데, 명상할 때 깜깜하기만 하다거나 커튼으로 앞이 가려진 것처럼 그저 밝다고만 느낄 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야 스승은 우리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아수라 지역을 통과한 뒤 다시 가렸던 것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지요. 왜냐하면 근기가 약한 수행자들이 아수라 지역에서 인간 세계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 그곳이 궁극의 경지인 줄 알고 머물고 싶어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수라에게 끌려 내려가게 되고, 그때는 스승이 아무리 진상을 말해 줘도 여러분은 듣지 않을 겁니다. 아수라 증생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의 스승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리 와 봐! 내가 널 아미타불에게 데려가 줄 테니!” 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현혹시키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법문으로 수행을 하면 경지를 곧바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낮은 경지들은 스승이 못 보게 할 테니까요. 그러나 약간의 인중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빛을 보거나 길 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만 경지를 못 본다는 것 뿐이지요. 경지를 본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낮은 경지를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한번 함정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좋아하면 당연히 그들은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고, 온갖 술수로 우리를 믿게 한 뒤 자기들 부하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설령 부처를 본다 해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궁극의 경지에 이른 건 아니니까요. 마땅히 그런 음색의 경지를 초월해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주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음과 색이 있고 부처와 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처’를 본다는 것은 아직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할 때 부처를 본다는 스승이 내면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을 높은 경지로 데려가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선 마치 지붕에 부딪힌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승이 우리를 도와 이 단시간의 장애를 빠져나가게 이끌어 주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할 스승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명상할 때 내면에 스승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경지로 데

리고 올라간다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는 아직 내게 스승이 있고 내가 스승을 숭배하는 것이어서 아직은 ‘내가 스승’인 경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스승이 되어야 옳으며, 우리 자신이 바로 깨달은 스승인 등급에 도달해야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이 깨달은 스승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를 데려가 줄 다른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베고 마가 오면 마를 베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대부분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체험을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성불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체험을 하고서야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베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를 본 적도 없다면 뭘 베겠습니까? 부처를 베라는 말은 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에 아주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스승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수행했는데 성불하기 전, 아직 금강삼매에 들기 전, 그리고 궁극의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기 전에 한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관음보살을 숭배하듯이 그는 그 여신을 지극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여신상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불상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 불상과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가 절에 가면 그 불상도 단상에서 내려와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르침을 주곤 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불상과 친해진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스승을 만나게 되어 스승의 설법을 듣고는 그런 현상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테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마리아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들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벽찬 감격을 맛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가까이하고 숭배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외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게 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찾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래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 우주의 실상이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 인도 수행자는 스승을 만난 후 자기가 본 것들이 궁극적인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에게서 법문을 배운 후 열심히 수행한 덕분에 그는 진보도 아주 빨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이르자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그 경지를 초월하려고 할 때마다 이전에 자신이 숭배했던 그 여신이 앞을 가로막으며 지나가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음식의 장애를 뚫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스승에게 원망을 하자 그의 스승은 왜 그걸 물리치지 못하느냐며 호통을 치고는 아주 날카로운 돌을 집어 뾰족한 부분으로 제자의 이마 한가운데를 피가 나도록 짓이겼습니다. 만약 일반 사람들이 보았다면 틀림없이 그 스승이 아주 잔인하여 제자를 죽이려 든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스승이 너는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진짜 최선을 다해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그 여신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지혜로 그녀를 두 동강 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 경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그런 상황을 겪어 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훌륭한 스승이라면 우리에게 아주 낮은 차크라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많은 중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단전 수행을 해도 힘이 있고 가슴이나 어느 곳을 수행해도 다 힘이 있습니다. 코를 보기만 해도 힘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궁극적인 차크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안 아랫부분의 차크라에 집중하여 수행을 하면 나중에 높은 경지의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은 차크라 부위에 두는 데 너무 익숙해져 위로 올라가기가 결코 쉽지 않지요. 그래서 큰스승들은 마음을 낮은 경지에 두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혜안 아랫부분은 모두 배설 기관으로서 보기만 해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배설 기관을 이용하여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경지는 아직 성주괴공 안에 있습니다. 성주괴공은 영원하지 않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문이 제일 좋은 법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칭 최고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요. 어떤 사람은 호흡이나 단전을 수련해도 뭔가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궁극적인 게 아니지요. 이러한 것들은 경전을 참고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수행을 해보면 그런 법문들이 다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이 높은 사람은 TV나 영화·음악 등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외부의 많은 부분에 쏠려 있어 눈만 뜨면 바깥 세계가 보이고 귀도 바깥 세계의 이런저런 소리를 듣느라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내면에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음악까지 듣는다면 마음이 외부로 흐트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경각시켜 내면에 두는 ‘내수內修’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수행자들이 음악이나 세속의 즐거움을 가까이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신히 마음을 내면에 붙잡아 두었는데 뭐 하러 음악을 들어서 마음을 밖으로 분산시키겠어요?

방금 난 많은 종류의 수행 방법이 전부 마음을 ‘지혜안’ 아래의 각 차크라에 두는데 그런 차크라라는 성주괴공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경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압니까? 우선 지혜나 신통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두뇌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항상 두뇌를 사용하고 두뇌에 집중해야만 문제나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두뇌 의식을 낮은 차크라에 둔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미간을 찌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의식을 이곳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스승님이 이마 한가운데를 가리키심) 간혹 두뇌를 너무 사용했다 싶으면 좀 누워서 피를 뇌 쪽으로 흐르게 한 뒤에야 생각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가 중요한 이유는 두뇌 속에 지혜가 있고 두뇌 속

에 우리의 사고를 관장하는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을 코나 목·심장·단전에 두거나 심지어 생식기에 둔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불교 경전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마지막에 배가 뜨거우면 아귀로 태어나고, 심장이 뜨거우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무릎이 뜨거우면 축생으로 태어나며, 이마 부위가 물러지면 천인이 되고, 머리 정수리가 물러지면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이마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이마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여기로 (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수행을 할 때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갑니까? 이 배는 소화를 시키는 곳이고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식기로도 수행을 하는데, 그런 곳을 수행해서 뭐 합니까? 그곳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단지 아이를 낳고 대소변을 배설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나 포모사·미국 등지에서는 생식기에 집중하여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도 모르다 보니 즐거움을 주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고선 그곳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처는 마음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심장에 집중하여 수행을 합니다. 심장은 본래 피를 운반하는 도구일 뿐 사고 능력이 조금도 없는 곳이죠. 단전을 수행하면 공교롭게도 우린 단전에 의해 소화가 되어 (대중 웃음) 나중엔 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갈 것입

니다. 코를 관하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혀는 야채를 먹는 데 사용하는 부위인데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러운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데 이용합니다.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시비를 만들어 내도 혀 자체는 생각을 못 하지요. 두뇌가 없으면 혀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뇌가 없으면 배도 소화를 못 시키고, 두뇌가 없으면 심장도 박동을 멈춥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몸도 그대로 있고 눈·귀·심장·배 등 모든 기관도 그대로 있지만 전부 다 정지한 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주인이 떠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두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뇌는 본래 고상한 곳에 있었는데 만일 그걸 억지로 끌어내려 낮은 부위에 둔다면 결과적으로 채소나 술과 고기와 함께 밖으로 배설되어 점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 있겠어요?

호흡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뇌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호흡도 없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호흡은 없었으니 호흡이란 원래가 무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을 조절하는데, 만약 두뇌가 없으면 호흡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뇌에 달려 있지요. 그렇다면 왜 바로 두뇌에 집중해서 수행하지 않을까요? 왜 두뇌에게 배·코·심장·생식기 등을 조절하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게 하는 등 혹사를 시킬까요? 왜 두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왜 두뇌

에게 그렇게 열심히 일만 시키는 걸까요? 제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두뇌에게 일만 시키고 사용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수행을 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두뇌를 통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두뇌를 극히 일부분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늘 대수행자들은 대지혜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그들이 두뇌를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두뇌를 100%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주 만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불’했다고 말합니다. 성불이란 것도 실제로는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두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일 뿐이지요. 반면에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부처는 총명한 것입니다.

이 두뇌를 ‘지혜’라 부르는 이도 있고 ‘영혼’이라 부르는 이도 있는데 다 이마 중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이마 아래 부위는 전부 잊어야 합니다. 호흡 또한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수행해야 합니다. 지혜의 부위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뭘 수행해야 할까요? 그건 법을 전수받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오늘 나는 강연을 하는 것일 뿐 법을 전수하고 있지는 않으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강연은 다만 여러분에게 참고로 삼으라고 하는 것일 뿐이고, 법을 전수할 때 여러분은 즉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전수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비록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쓸모 있고 가장 힘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은 아직 얻은 게 없습니다. 약간만 이해했을 뿐이죠.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모두 소개하고, 농담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교우 관계를 맺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한 곳뿐인데 그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마 한가운데에 이른바 제3의 눈·지혜안·불안·법안·보살안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눈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에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눈은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 들을 수가 있고, 무엇이든 만질 수 있으며,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안’이라고 부르지요. 이 지혜안을 사용하려면 열쇠로 그것을 열어야 합니다. 열고 나서야 사용할 수가 있지 열지 않으면 그 눈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높은 경지에서는 우리 자신의 ‘지혜’가 자동으로 압니다. 대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번거롭게 불佛·법法·승僧을 생각할 필요 없이 대뇌가 저절로 불법승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불을 해야 한다, 부처를 봐야 한다, 부처의 나라에 가야 한다, 불국토의 경관은 어떨까? 부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길 바란다면 아직은 ABC 단계이며,

진짜 지혜가 열릴 때 우린 자연스레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보게 되고, 기대하지 않아도 알게 되며, 참고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지만 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며, 날마다 지혜를 사용하다 100% 완벽하게 사용하게 되면 두뇌 전체 또는 모든 지혜가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아직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법을 전수받을 때 알아야 할 수 있지요. 여기서는 아무리 길게 설명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법을 전수할 때는 말을 하지 않으니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이마 아래 부위의 차크라에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마 한가운데 위치한 ‘제3의 눈’(지혜안·법안이라고도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혜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진정한 스승을 찾지만 하면 그가 여러분을 위해 지혜를 열어 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즉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 스승은 전문적으로 사람들의 지혜안을 열어 주는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지혜가 열릴 때 우리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교사 한 분이 4, 50명의 학생을 데리고 우리의 명상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었지만 모두 깨달을 수 있었

습니다. 난 그들에게 약간씩 깨달음의 체험을 주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체험을 했지요. 어린아이들도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어떤 문을 여는지 안다면 아이들도 자신만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중생들에겐 모두 이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열지 못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Q: 스승님, 이 생명의 열쇠란 게 어떠한 것입니까?

A: 그건 법을 전수할 때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지금은 말해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을 전수할 때 나는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은 그걸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승님께서서는 언제 저에게 법을 전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중 웃음)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전수해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 말은 스승님께서 언제쯤 저에게 그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는냐는 겁니다.) 그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많으면 하루 짬을 내서 전수해 주도록 하지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정화시키세요. 만약 보통의 중생으로 살겠다면 상관없겠지만, 보살이 되고 싶고 성불하기를 원한다면 자비심을 가져야 하고 중생의 고기를 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문을 수행할 때는 무엇을 먹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호흡법이나 단전 수행을 할 때는 굳이 채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살이 되려면 당장 채식을 시작해야 하고 다시는 중생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도덕적 관점입니다. 보살이 되려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하

기도 전에 전부 다 뱃속으로 '제도'해 버릴 수 있겠어요? (대중 웃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도할 중생이 없을 겁니다. 우린 본래 성불을 하고 보살이 되고 나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전부 다 뱃속으로 제도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Q: 수행하는 사람이 중매인이 될 수 있습니까?

A: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설마 그거 아니면 다른 할 일이 없는 건 아니겠죠? (대중 웃음) 그것이 그의 직업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스스로 배우자를 찾게 놔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중매인 없이도 잘만 결혼하지 않습니까? (대중 웃음)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그의 아들이 참 착한데 여자 친구를 사귀 줄 모른다고 해서요. 31세인데 아직 미혼이라네요.) 결혼 상대를 못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에게 출가하라고 하세요. (대중 웃음) 포모사에는 인구도 많은데 왜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죠? 아이들 먹을 것도 거의 없는데요. 출가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대중 웃음) 아이가 줄어들니 국가가 파산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중매하지 말고 그냥 출가하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배우자를 못 찾는 것도 자신의 인과입니다. 부인이 없는 게 더욱 좋은 거예요. 부인이 있으면 뭐 해요? 부인이 생긴 뒤에 채식을 하려 해도 부인이 만들어 주지 않거나 수행을 못 하게 하면 지혜를 확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행하려는 부인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인은 수행하려는데 남편이 막는다거나 남편이 수행하려는데 부인이 방해하는 경우들이 허

다하지요. 그러므로 중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 게 하도록 놔두세요. 남편이나 부인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 다. 결혼은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좋지요.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마세요. 업장만 지을 뿐입니다.

Q: 스승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수행의 기본 조건은 우선 도 덕적이어야 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나이가 보다 송고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송고한 이상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최고의 이상은 당신 스스로 알 테니 나에게 묻지 마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좋아요. 그럼 당신의 수행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성불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되고 싶죠? (기본적으로는 성불을 하고 싶지만 성불을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란 도대체 무엇이죠?)

좋아요. 지금 가르쳐 드리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포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을 갖기 위해 서지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서방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하면 당신은 성불한 후에 그를 아주 빨리 서방세계에 데려다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당신이 데려다줄 수 있지요. 당신이 성불을 하거나 대지혜를 갖춘 후에 지혜를 열어 달라고 당신에게 기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즉시 열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송고한 이상입니다. 부처가 되든 어떤 존재가 되든 간에 신경쓰지 마세요. 그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의 사나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니 명칭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고자 하는 이상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워 삼계를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중생의 고통을 보고 중생을 구제하여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삼계를 벗어나 다시는 윤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지요. 만약 당신에게 이런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송고한 이상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구 하여 삼계를 벗어나려는 이유는 이 불공평한 세계에 대해 염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린 생로병사가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나중에 또다시 친지나 동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좋아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송고한 이상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든 이런 이상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Q: 이른바 삼계가 가장 높은 곳입니까? 아니면 삼계 너머에 더 높은 곳이 있습니까?

A: 삼계 너머에도 당연히 더 높은 경지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삼계를 초월한 후에 무엇을 하겠어요? 삼계 이내는 모두 성주괴공으로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삼계 너머에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행복한 곳이 있습니다.

Q: 제 친구는 늘 인간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다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A: 그러므로 몸과 말과 생각을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이 업장을 가져오니까요. 우리가 업장을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모두 업장을 짓기 때문입니다. 수행하고 나서 아라한이 되거나 보살이 되면 업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장이 깨끗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업장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계로 내려오는 것은 스스로 원한 것이 업장과는 무관합니다.

Q: 스승님, 마음의 힘은 얼마나 큼니까? 삼계가 모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A: 삼계 이내는 아직 이 마음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삼계에 이르면 업장은 없지만 여전히 성주괴공 안에 있기 때문에 삼계는 언젠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뿐만 아니라 삼계 전체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계 이내에 있으면 아직 영원한 해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까?)

해탈은 삼계 너머, 예를 들면 제4, 제5세계 등 삼계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세계에 이르러도 아직 영원한 해탈은 아닙니다. 이 무색계無色界는 본래 삼계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삼계 너머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경계 지역

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세계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그 경계에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이를 지칭하여 네 번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색계에 속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무색계에도 대단히 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세 번째 세계와 네 번째 세계의 경계 지역은 무색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합니다. 본래는 그곳도 삼계 너머에 있지만 역할이 크지 않아 삼계 이내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곳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고, 해탈한 것도 아니며,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려오는 건 가능하지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곳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삼계 이내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삼계 이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불은 비교적 간단하게 삼계 이내와 삼계 너머로만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알려주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세계는 크게 소용이 없어 그곳을 삼계 이내에 귀속시키는 사람도 있고 삼계 너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법을 전수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천기를 대중 앞에서 함부로 누설할 수는 없으니까요.

Q: 평상시 수행하고 명상하고 염불할 때 어떤 영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당신은 어떤 염불을 합니까?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럼 계속 의

도록 하세요. (잠을 잘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안 자는 거지요. 그렇게 염불하는 것은 수행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염불하는 것일 뿐이지요. 석가모니불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의 법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음법문을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음’ 수행은 최고의 등급이며 아주 높은 법문입니다. 관음보살을 염하는 것도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나도 당신을 가르칠 수 없으니 관음보살을 계속 외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군요. 당신이 진심으로 해탈을 원하고 입문을 원한다면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법문을 청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문은 공공장소에서 대중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법문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지만 ‘법’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관음보살 외기를 좋아한다면 계속하세요. 경지를 보게 되면 보는 것이지 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경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할 테니까요. 지금은 당신에게 말해 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우리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서요. 필요하다면 방향을 돌려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추고 수행을 하지 마세요.



7장

깨달음이란

7장

깨달음이란

1987. 3. 5.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보았다’고 하거나 ‘보살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친 노스님이 살아 있을 때 어떤 법사가 자기가 관세음보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장엄하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친 노스님은 껄껄 웃으며 “정말인가? 그렇게 쉽게 말이지?”라고 했지요. 그는 수행이 높아 부처나 보살을 보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꽃이 피어야 부처를 볼 수 있지요. 꽃이 핀다는 것은 곧 지혜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지혜를 어떻게 여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꽃이 피니 부처를 보고 무생을 깨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어떻게 핀다는 것일까요? 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겐 꽃이 있습니까? 꽃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무슨 꽃일까요? (어떤 사람: 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핀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내가 농담을 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큼니까? 믿을 수 없어요.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불조佛祖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죠? (불심은 평등합니다.) 불심은 평등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만일 평등하다면 당신이 여자를 볼 때 남자를 볼 때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느낍니까? (마음의 본질은 본래면목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찾지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그 꽃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꽃이 있습니다. 나는 아래에 있는 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어제 이야기했으니까요. 모든 차크라는 연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능엄주를 설할 때 천엽연화 위에 앉은 것입니다. 그 천엽연화는 제1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1세계의 최고 등급, 다시 말해 제1세계의 정상에 이르면 천엽연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내면의 체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수행하면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요.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연꽃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도 연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혜안으로만 볼 수 있지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아래 차크라에도 모두 연꽃이 있지만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죠.

이(지혜안을 가리키시며) 연꽃 속에는 마니주가 있습니다. 이 꽃이 피면 마니주 또는 불안·지혜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지혜안이 열렸다거나 깨달았다는 의미인데, 옛 스승들이 여러 가지 진실된 말로 묘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꽃이 여기(지혜안)에서 핀다고 해도 여러분은 꽃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알지요. 제자들 중 일부는 이미 그 꽃을 보았거든요. 여기에서 꽃이 어떻게 피는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연꽃이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이 필 때 우리는 부처를 보게 됩니다. 부처를 본다는 건 아미타불의 모습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형상을 보거나 관음보살의 형상을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도 진짜는 아닙니다. 꽃이 피어 부처를 보게 되면 무슨 부처를 보게 될까요? 우리의 불성을 보고, 우리의 본성을 보고, 우리의 본래면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부처를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불교의 신주神呪 중에 ‘옴마니반메훴’이라는 주문을 알 겁니다. 그 주문은 무슨 뜻일까요? 마니주가 연꽃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주문의 본래 의미입니다. 마니는 마니주이고 반메는 연꽃입니다. 티베트에 연꽃에서 태어난 대사가 있었는데 그를 파드마 삼바바라고 불렀습니다. 파드마는 연꽃이라는 뜻이지요. ‘옴마니반메훴’의 의미는 마니주가 연꽃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옴마니반메훴’을 원다고 반드시 영적인 감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문에 함축되어 있는 심오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의 선사들이나 대사들이 이 주문에 대해 말했던

것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 보주가 연꽃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이 법문을 수행해야 하고, 이 보주가 있는 곳, 이 연꽃 속에 집중하여 수행하도록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어떤 말은 나의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여기서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간혹 내가 아무 말 없이 손짓만 해도 제자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금방 압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그렇게 말없이 통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법을 전수해 준 후 나는 별도로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면 내가 그저 손짓만 해도 그들은 바로 알아차리고 문제도 즉시 해결됩니다. 말이 필요가 없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제자에게 나는 ‘염불’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아직 입문하지 않은 여러분은 분명 내가 제자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외라고 한 줄 알고 따라서 계속 아미타불을 외겠지만 사실 그건 내 뜻과는 무관합니다. 내가 염불을 말한 건 내 제자에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부처를 외어야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외어야’ 하는지도 아니까요. 입으로만 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염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조용히 경전을 보면서 속으로 ‘옴마니반메훴’을 외며 그 주문을 반드시 외어야 하는 아주 신비한 비밀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외어도 전혀 감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전심을 다해 원 날에는 감응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전심을 다했기 때문이지 그 주문이 영험해서가 아

됩니다. 옛날에 큰스승들이 이 주문을 전수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수행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비밀 주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제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비밀 주문이 된 것이죠.

이를테면 내가 ‘염불’이라고 말하면 나의 제자들에게는 비밀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제자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일이 있어 직접 나를 찾아오지 못하고 동료 수행자에게 부탁해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나는 “돌아가서 그에게 염불을 하라고 전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라고 합니다. 동료 수행자는 돌아가서 그에게 염불을 하라고, 우리 법문을 수행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중심에 두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외부 사람에게 말하면 마음을 중심에 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곳이 중심인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왜 마음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는 그 말이 비밀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이니까요. 만약 날마다 항상 이 비밀 주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의 수행은 아주 빠르게 진보할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마음을 중심에 두자, 마음을 중심에 두자, 마음을 중심에 두자.”라고 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비밀 주문이 될 수가 없지요. 그가 그 주문을 기억하고 이해해야만 비로소 주문을 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옛 선사들이 제자들에게 옴마니반메훔을 가르친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내리는 일종의 짧은 지시였던 것입니다. 오직 사제

시간에만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밀어(密語)였던 것이죠. 제자에게 문제가 생겨 수행도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도 잊었고, 수행할 때도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옴마니반메훔을 가르친 것입니다. 보주가 연꽃 속에 있으니 마음을 연꽃에 집중해야 보주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에게 이미 배운 법문, 즉 보주가 연꽃 속에 들어 있는 그 법문을 수행하라고 일깨워 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하루 종일 옴마니반메훔을 외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도장을 찍으려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심심미묘법(甚深微妙法)을 모르고, 옛 큰스승들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철 행사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명상을 합니다. 그때 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각기 다른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요. “염불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는 즉시 염불을 합니다. 내가 그를 봤을 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염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다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보면 “마음을 중심에 두세요.” 하고 말하지요. 가다가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스승님이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 보이십시오)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각기 다른 법문을 가르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겐 염불을 하라고 하고 저 사람에겐 마음을 중심에 두라고 해서 이 사람에겐 이걸 가르치고 저 사람에겐 저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법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저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해야 그들에게 즉시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행하도록, 그들이 온 마음을 다 기울이도록 일깨워 준 것이지요. 당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지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법문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때 공교롭게도 아직 나를 따라 수행하지 않는 외부인, 자신들의 법문으로 코나 단전·호흡 등을 관하는 수행자들이 함께 명상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내가 뭘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왜 스승이 이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저 사람에겐 마음을 여기에 두라고 하며,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 사람에겐 마음을 중심에 두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스승이 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가르치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뭘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으려면 법문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모호하게 수행해선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수행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깨달음이 뭔지 알지 못한다면 수행을 한다 해도 모를 겁니다. ‘이런 게 도대체 깨달음일까?’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름은 무슨 뜻일까요? 오름은 명백(明白)하다(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명(明)은 일(日)과 월(月)로 이루어졌지요. 한자는 아주 명확합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수행이 대단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마다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명(明)에는 일(日)과 월(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내면에서도 일종의 명확함이 있지요. 오름(明)이 깨달음이라면 마땅히 일(日)과 월(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달을 보고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선 수행자들은 이에 관해 잘 알 겁니다. 가끔씩 법사가 죽비를 들고 선방 안을 돌다가 여러분에게 태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태양을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여러분 스스로 찾으라고 합니다. 정말로 난감한 일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은 겨울이라 오늘은 태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죽비가 날아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태양은 서쪽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은 아침이라 태양이 방금 떠올랐으니 태양은 동쪽에 있습니다.”라고 해도 역시 죽비가 날아올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다 틀렸다고 할 겁니다. 태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참선을 한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태양을 찾는 것도 아직 낮은 단계의 선입니다. 진짜로 수행해서 깨달았을 때 태양을 보고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난 약간 귀뽀만 해줄 뿐 너무 많은 것을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고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 깨달음이지요. 깨달음은 명백(明白)하다는 뜻이며, 명백함 속에는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수행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해와 달은 보았을 테니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은 개(開)오름(開明)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수행자가 이미 햇빛과 달빛을 보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

다. 그러나 해나 달을 보았다 해도 아직은 삼계 이내에 있으며 삼계 이내의 등급에 있는 것입니다. 삼계 너머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을 전수할 때 외에는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빛을 보았고, 빛과 연결되었으며, 빛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도 깨달았을 때 빛을 봤을까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깨달음은 명백하다는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음을 얻을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했으니까요. 우린 우리 자신의 빛인 불광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불성입니다. 불성은 범부의 성품과는 달리 사람들이 잡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을 수 있는 어떠한 형상이나 품성이 없습니다. 그 빛은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빛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모든 지혜가 있으며, 모든 우주 만물이 분명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 빛에서 나옵니다.

비교적 투박한 빛은 소리로 변합니다. 그 소리는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음악과 같은 소리인데 아주아주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고 시원해지며, 지혜가 열리고 성격이 변합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의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나날이 더 즐거워지며, 우주 만물과 경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서 다른 중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교류하고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부처를 보고 불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무형무상이니까요. 만일 부처가 육신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출현한다면 그건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이지 부처가 원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경지에 가서 어떤 상황이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설령 그것이 진짜 부처의 나라라 해도 아직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이등급의 현시顯示인 것이죠. 일등급의 현시가 최고의 현시입니다. 최고의 진리는 무형무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자마자 유형유상·유음유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부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이 음과 색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과 색이 있는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계의 음색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음색이며, 높은 경지의 음색, 아주 미세한 음색입니다. 범부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범부의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음색으로서 외면의 음색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미세한 음색이라 해도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단에 의지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범부에서 아홉다라삼막삼보리의 경지까지 곧바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빛과 내면의 부드러운 소리는 우리가 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계단인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도 음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말하기를 “부처는 이 음류를 따라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과 중생은 이 음류를 따라 올라가서 성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짧은 구절인데 아마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아서 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음류’란 바로 이 소리의 통로이죠. 석가모니불이 아주 명확히 말했으나 체험을 하지 못한 범부로서는 당연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비행기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비행기라는 단어를 말해 줘도 비행기를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엄경』에는 스물다섯 분의 보살들의 수행 체험이 써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빛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같은 빛은 아니지만 모두 빛이 있었는데 그렇게 빛을 봐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북소리·종소리·파도 소리·범음 소리 등을 듣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깨달았을 때 체험한 것입니다. 빛과 소리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모두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온갖 무드라를 해 보이나 해도 그런 것들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경전에서도 이렇게 무드라를 행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지요.

천주교의 성경에도 빛을 본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하느님을 보았을 때 그것은 빛과 같았고 커다란 불길과 같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대해(大海)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깨달음의 체험은 모두 같으며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에도 깨달았을 때 마찬가지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는 체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몸이 심하게 이리저리 움직인다거나 저절로 온갖 무드라를 행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경전에는 모두 그렇게 써어 있었기에 그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 개인의 체험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체험도 경전에서 말한 것들과 같습니다. 그러므

로 나 개인의 체험과 경전에 기록된 체험들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빛을 보는 것은 불성을, 약간의 불성을 보는 것이다.’ 빛 속에도 많은 경지가 있고, 많은 지혜가 있으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빛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깨달을 때 그 빛과 교류를 시작하기 때문에 빛을 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하려면 빛이 있어야 명백할 수 있습니다. 깜깜하다면 어떻게 명백하겠습니까? 또 깜깜한데 어떻게 우주 만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암흑 속에 있습니다. 우리 범부의 시력으로는 기껏해야 여기에서 저기까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력 또한 여기에서 저기까지밖에 들을 수 없지요. 우리에게겐 우주 만물을 보고 높고 아름다운 초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량무변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깨닫기 전에는 진동수가 높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 같은 범부는 귀가 상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소리의 진동수가 너무 높으면 우리 귀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너무 강렬하면 우리 범부의 눈 역시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에는 것처럼 강렬한 빛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주파수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귀를 망가뜨리지 않고 말이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법화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도 종류가 많으며 아주 많은 등급의 빛이 있으므로 빛을 보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빛은 아수라 지역의

빛입니다. 아수라 지역에도 빛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수라의 빛을 보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깨달을 때 아수라의 빛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수라의 경지를 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빛을 보았다는 것은 그의 등급이 아수라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등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아수라는 제1세계일 뿐입니다. 제1세계를 넘어가면 제2세계에 이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제3세계, 제4세계, 제5세계 등이 있습니다.

부처의 빛에는 원래 그림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빛 아래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달이나 태양 아래에 서 있어도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의 빛을 보았을 때 불광의 경지에는 그림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별것도 아닌 이 말을 가지고 연구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깨달으면 알 수 있으니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도 없고, 경전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다 불살라 버려도 됩니다.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부처의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가 무슨 뜻인지, ‘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컵이 아니다’가 무슨 뜻인지 날마다 앉아서 논쟁만 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떠들어 대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누군가 한 차례 때리기만 하면 바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색불이공이라면서도 왜 아파합니까? 경전은 이해하지

도 못하면서 논쟁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한 두 마디만 들어 봐도 우리는 그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지는 건 제일 짜증나고 피곤한 일이지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출가자라서 나의 사명이기도 하거니와, 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와서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강연을 요청하여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에게 내 내면의 등급을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코끼리가 뭘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비행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범부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말조차도 하기 싫는데 어떻게 시간을 낭비해 가며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즉시 그의 등급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논쟁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한참 동안 논쟁을 한 후 얼굴을 붉혀 가며 서로 자신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 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깨닫게 되면 ‘부처의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색불이공’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논쟁이 필요 없으며 말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말을 한다 해

셈이죠. 우유를 한번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적어도 우유가 무엇인지는 아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양이 충분할까요? 어린아이에게 우유 한 모금을 하루만 주고 그 이튿날, 또 그 다음날도 주지 않는다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이치로서 우리의 깨달음 역시 매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열고 나선 영원히 다시는 닫히지 않아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요. 소리를 들은 다음엔 영원히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동료 수행자 이외에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그럼 아직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우연히 빛을 보았다거나, 보살을 보았다거나, 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것들은 별것 아닙니다. 모두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눈먼 고양이 죽은 쥐와 부딪히는 것처럼 아무 노력 없이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 고양이는 사전에 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쥐를 잡게 된 것이니까요.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매일 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원하는 대로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이죠. 설령 이러한 깨달음일지라도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일 천둥소리·파도 소리 등을 듣는다고 해도 굉장할 게 없지요.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등급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삼계 이내에 존재하지요. 제3세계에도 못 미치니 삼계 너머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계 너머에는 또 다른 소리가 있고 또 다른 빛, 또 다른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고 스승이 없

으면 알 수 없습니다. 경전만 봐선 부족하지요. 왜 그럴까요? 경전에 언급된 것들은 옛날에 수행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체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석가모니불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혹은 백 사람에게 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당시 각자의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법을 전수받을 때 자신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모두 기록하여 경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경전은 사람들의 체험, 옛사람의 체험이므로 우리가 읽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는 경전에는 여전히 낮은 경지의 체험에 관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막 석가모니불을 따라 배우기 시작했고, 그 체험들은 법을 전수받을 때 기록했던 것이니까요. 법을 전수받을 때 깨달았기 때문에 '돈오'라고 합니다. 즉 각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깨달았을 때 본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 아직은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르려면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있으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거나 높은 경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어 나중에 우리가 수행할 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교할 필요도 없이 알게 됩니다. 제3세계 혹은 삼계 너머에 이르게 되면 우린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과자를 먹는 것은 과자를 먹는 것이라는 걸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바로 알게 됩니다. 삼계 너머에 이르면 우리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해도 달라지고 확실하게 변하지요. 진짜로 크게 깨달아 한 점 의혹도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불퇴보살不退菩薩 혹은 팔지보살八地菩薩이라고 말할 수 있

습니다. 그는 영원히 마음이 퇴보하지 않을 것이며, 의구심도 일지 않고 아주 명백할 것입니다.

듣자하니 근대 중국에 대사(大師)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진 단 지 들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가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이 담 밖에 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 분 아십니까? 사실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그가 왜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담으로 둘러싸인 그 안에서 다른 중이 담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뜻 일까요? (어떤 사람: 눈이 열렸습니다.) 무슨 눈이 열렸단 말이죠? (천안통이 열렸습니다.) 천안통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천안통은神通력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건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이 육체 이외에 또 다른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은 눈이나 귀·코·입·신체 따위가 필요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체이지요. 그 영체가 이 육체를 이탈할 때 우리는 많은 곳에 놀러 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육체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대단히 유사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작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제2의 육체가 이탈했다는 것을 나타낼 뿐, 결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 세계의 것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지의 상황, 높은 경지의 빛, 높은 경지의 소리와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영체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영혼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아스트랄 프로젝션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그건 깨달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빛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그런 현상은 단지 영혼이 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영혼이 나간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란 또 다른 것이니까요. 우리는 대단히 많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육체를 가리킴)이 그중 하나이고, 그 안에 좀더 미세한 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안쪽에 훨씬 미세한 몸이 하나 더 있으며, 더 안쪽에 보다 더 미세한 몸이 또 있고, 그보다 더 안쪽에 더욱더 미세한 몸이 하나 더 있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에 가장 미세한 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미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면목, 즉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대단히 많은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장 바깥쪽의 몸(육체)을 여기에 둔 채 다른 몸을 전부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논다고 합시다. 그때도 우리의 영혼인 제일 마지막 몸은 여전히 다른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아직 깨달음이 아닙니다. 단지 이 육체를 떠나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 조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수행이 높은 사람은 이 모든 몸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다른 모든 몸을 남겨 두고 자유로이 떠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혹은 본래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일 마지막 몸이 우리의 육체를 조금 벗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저기까지의 거리만큼 조금만 올라간 것이죠. 본래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안에 갇혀 있었는데, 만일 그 영혼이 위

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물론 절반은 아직 안에 있고 절반은 밖에 있는 거지만, 그때 우린 다른 경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제1세계의 등급에 이르면 제1세계 경지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좀더 높이 올라간다면 제2세계 등급의 빛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영원히 해탈하여 이 세계를 떠난 뒤에도 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여래'의 경지입니다. 왜냐하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까요. 높은 경지에서 이 몸을 지휘하는데, 이 육근과 육진을 지휘하여 일을 하지요. 그는 이미 여래여거하고 아주 높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볼 수 있고 모르는 세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존재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는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조그마한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타이베이 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래를 보면 모든 집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깃발을 계속 흔들어 대면 비행기 안의 사람들이 즉시 발견하고 당장 와서 밧줄을 내려 우리를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여래의 경지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는 갈 필요도 없이 뭔가를 내려보내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지 않아도 오는 것과 같고 가지 않아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는 대단히 높고 최고의 경지에 있으므로 어떤 곳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그

어떤 곳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경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관세음보살은 모두 압니다. 관세음보살이 단 한 명뿐이라면, 만에 하나 전세계에서 기도할 경우엔 그는 바빠서 죽을 지경이 될 겁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다닐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는 여래이기 때문에 어디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들을 수 있고, 어디로 가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래의 경지인 것입니다.

여래의 경지는 영혼이 이미 해탈하여 주인이 최고의 경지로 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장이 부재중인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밖에 나가고 없어도 사무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비서나 노동자들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사장만 부재중인 것이죠. 그러나 사장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전화를 걸어 공장 직원들에게 어떻게 일하라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자동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주인이 부재중이어도 공장 기계들은 똑같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요. 이것이 바로 여래입니다.

이곳을 통해 밖에 나가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을 여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나가서 노는 것이죠. 육체를 두고 나가서 노는 것이 비교적 빠릅니다. 그러한 현상은 혼령과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외국 서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 금방 죽은 사람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 한 시간이나 두세 시간 뒤에 다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지 3, 4일 후에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일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있습니다.)

포모사와 어울락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야기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 치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죽을 때 다른 몸이 위쪽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 있는 모습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와서 무엇인가 적고 있었고 의사도 왔지요. 그는 그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다음에 의사와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이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을까?’ 하고요.

이 육체를 그대로 남겨 둔 채 다른 몸이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놀러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가 투과할 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 망혼들을 뚫고 지나다니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금방 사망한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들은 죽었을 때 자신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올라간 다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누워 있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 혹은 끔찍한 차 사고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을 때 영혼이 육체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걸 영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 꼭 영혼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면 이런 종류의 영혼은 우리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지혜 혹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종류를 가리키며,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내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내면도 아닙니다. 수술을 하듯이 한겹 한겹 안쪽을 찾다 보면 우리의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면이라고 해도 내면이 아니지만 표현할 만한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내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당장 외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면도 아닙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칼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절개하거나 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나죠. (대중 웃음) 찾을 수도 없어요!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은 때로 자신이 육체를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실에 가서 그곳 환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둘러보고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와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매우 분명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죽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낮은 등급이고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수행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바로 서방세계로 가거나 여래여거하는데, 그러한 경지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혼령이 되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혼령의 상태는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지요. 악독한 사람은 죽자마자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들은 사바세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육체나 다른 가족들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 여전히 자기 집에 남아

자기 가족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만져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비통해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육체를 보니 예전과 똑같은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며, 음식을 먹으려 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뭘 하든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때로 그가 아주 크게 힘을 쓰면 약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린 누군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거나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혼령은 문을 움직여 쿵쿵 소리를 내거나 컵을 만져 땡그랑 소리를 내기도 하고, 침대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매우 화가 나 있거든요.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대중 웃음)

그는 자기 부인을 안아 보려고 하지만 부인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데다, 다른 남자까지 데리고 와서 (대중 웃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정을 통하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약간의 소리라도 내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를 볼 수는 없습니다. 복덕이 좀더 많은 혼령은 힘도 더 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한 차례 혹은 한동안 나타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아, 귀신이다!” 하고 말하지요. (대중 웃음) 이걸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온종일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뭔가를 알려주려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고독한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

죽었는데 아내가 벌써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당연히 매우 고통스럽겠지요. 혹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되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몸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고 무엇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죽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싶은 것이지 혼령의 상태로 지배당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암담하며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무덤에 가서 다른 귀신들과 이야기하며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유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높은 사람은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부터 미리 알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다 알고 있어야 비교적 자유로운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와야지 어떻게 귀신이 와서 잡아가기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마귀가 데려가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런 것은 군자의 품모가 아니며, 고귀한 품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나쁜 일은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귀신이 우리를 범인 잡듯 잡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하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주권을 지녀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사전에 미리 알고서 부인이나 남편·자녀, 혹은 제자에게 “내가 3일이나 5일 후면 죽을 것이니 너희는 준비를 하라.”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대장부의 품모라 할 만합니다.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것이 자유

자재하므로 귀신에게 잡혀갈 리도 없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생사를 자기 스스로 주관할 수 없다면 정말 사람이 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마귀의 등급은 원래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용인이지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우리를 잡아서 처벌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경찰이 원래는 대통령의 직속 부하이지만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경우엔 똑같이 경찰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고 형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아무런 권력도 없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도고三途苦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옥·아귀·축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원래 우리 인간보다 아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심하게 욕설을 듣고 두들겨 맞게 된다면 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고귀한 풍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수행자는 가장 고귀합니다. 그가 떠날 땐 부처가 떠날 때처럼 음악이 흘러나와 그를 맞이하고, 천사가 와서 그를 환영하며, 불보살이 와서 그를 환영하고 불퇴보살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지요. 만일 수행을 하지 않거나 수행을 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잡혀가 두들겨 맞고 감금될 것입니다. 이런 건 군자의 생활도 아니고 인간의 생활도 아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을 돌보고 열심히 일합니다. 돈도 조금씩 모아 나이가 들었을 때 사용할 노후 자금도 마련하지요. 그런데 왜 우린 죽을 때 사용할 공덕은 조금도 쌓지 않

지요? 공덕은 노후 자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늙기도 전에 죽을 수가 있죠. 죽음은 꼭 거쳐야 하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 언젠간 반드시 죽겠지만 꼭 늙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덕을 쌓고 열심히 수행하면 우리가 죽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륜지대사입니다. 노후 자금을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요.

Q: 스승님도 수행하실 때 큰 마장이란 게 있으십니까?

A: 내가 수행을 할 때에도 마장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나의 마장을 당신에게 들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요? (대중 웃음) (그렇다면 당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인연은 무엇입니까?) 나의 제자들이 바로 나의 외부적 힘이며, 내게 도움을 주는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날 못 가게 잡으니까요. 마장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장은 대단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해 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장은 우리의 선정의 힘을 보다 강하게 해줍니다. 만일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마장이야말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없다면 문제는 복잡해지죠. 사실 마장이라고 해봐야 별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별게 아니에요. 일종의 세상의 현상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딜 가더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명상 중에 대단히 미세한 소리를 듣습니다. 책을 보니 소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A: 좋지 않은 소리도 있고 좋은 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좋아하는 소리가 낮은 경지의 소리라면 당연히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제자가 나에게 “스승님! 저는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듣는데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라고 물으면 나는 “어떤 소리는 등급이 낮은 것이니 듣지 말고 다른 소리를 듣도록 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이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 듣기가 좋은데요.”라고 한다면, 그때 난 “집착하지 마세요. 다른 소리가 듣기에는 비록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경지는 더 높아요.”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을 보아 봤자 당신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수행자가 쓴 것이라 그들 자신에게만 유용하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을 아마 훗날 다시 볼 수 있도록 적어 뒀을 겁니다. 혹은 그들의 스승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써서 보낸 편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릅니다. 지도해 주는 스승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관음법문을 수행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절로 듣게 되었나요? (대비주를 될 때 들은 소리입니다.) 간혹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는데, 스승의 지도가 없으면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소리는 무척 많은데 그 소리들의 경지가 어떠한지 당신은 모르니까요.

Q: 빛의 색깔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빛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A: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많은 현상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일일이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전한 이후 내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일이라서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Q: 저의 누님은 검은 옷이나 흰 옷을 입은 수행자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A: 그러한 일은 대단히 흔합니다. 공중에는 대단히 많은 무형의 중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들도 마귀를 볼 수 있지요! 우리는 개가 왕왕 하고 끊임없이 짖어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이빨을 험악하게 드러내고 사납게 짖어 대죠. 개의 눈에는 무형의 중생, 또는 마귀가 보이거든요. 혹은 당신이 말한 ‘검은 것’과 ‘흰 것’도요. 그러나 만약 검은 것이라면 수행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수행자는 밝게 빛이 나니까요.

Q: 재가자는 어떤 법문으로 수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좋은가요? 관음법문이란 어떻게 수행하는 것입니까?

A: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입니다. 그리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라는 오계를 지켜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에는 마약

을 해서도 안 되고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며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음란 영화나 음란 서적, 폭력 영화를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에는 간접 살생도 포함되는데, 이는 채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을 염하세요. 재가자도 다른 법문을 수행할 수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의 재가 제자들은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합니다.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해탈을 원한다면 나에게 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8 장

부처란 무엇인가

8장

부처란 무엇인가

1987. 3. 10.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어제 누군가 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나는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시다. 여러분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압니까? 진리는 본래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려고 해도 다 말할 수 없지요. 사실상 별로 말할 것도 없습시다. 진리는 반드시 자기가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논쟁하기를 좋아하거나 진리에 대해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도덕경』 제56장: 知者不言, 言者不知).”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꼭 알고 싶다면 마지못해 일종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불이 진리를 대표하고, 노자가 진리를 대표하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일종의 진리를 대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활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도 우리가 진리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는 아주 많은 업장에 싸여 있어서 우리 자신이 곧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래면목, 우리의 주인, 우리의 천진함, 우리의 천국 등을 보지 못하지요. 불보살은 진리를 대표하므로, 만약 진리에 대해 묻고 싶다면 불보살을 찾아서 물어야 마땅합니다. 석가모니불이 부처는 마음에 있다, 어떤 중생이든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아무 중생이나 찾아서 물을 수 없는 것 일까요? 왜 꼭 깨달은 스승이나 불보살을 찾아서 물어야만 하는 것 일까요? 불보살은 이미 진리를 알아서 그 자신이 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진리가 무엇인지 물으려면 깨달은 스승이나 살아 있는 불보살을 찾아가 보면 자연히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불은 49년을 설법했지만 제자에게 “내가 아는 것은 숲 속의 나뭇잎 같은 것이지만, 내가 그대들에게 말해 준 것은 내 손안에 든 나뭇잎 정도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불도 모든 진리를 말할 수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만 결코 진리를 알려고 갈망하거나 지혜를 얻길 갈망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논쟁하려는 것뿐이지요.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고 자신의 등급이 스승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는 집착하지 않는다며 육식이나 채식이 같고, 동물을 먹으나 사람을 먹으나 다 같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채식이나 육식을 같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잡아먹을 동물이 없어졌을 땐 육식이나 사람을 먹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로지 논쟁하는 것만 좋

아할 뿐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강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장 달려가 쟁론을 벌이는데, 결코 마음속으로 겸손하게 도를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에고가 너무 커서 단번에 끊어 버리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질문만 듣고도 그들의 등급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큰스승은 제자에게 법을 전해 주려 하기 전에 언제나 여러 차례 시험을 거치고 질문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에고가 없고 교만한 태도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질문을 하고 나서야 법을 전해 줄 수 있었지요.

약 4, 5백 년 전 인도에 많은 제자를 거느린 아주 유명한 큰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까비르Kabir로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는 가장 낮은 수드라 계급이었습니다. 그 계급에 속한 사람은 인도에서는 본래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지만 그는 아주 유명하고 지혜를 갖춘 깨달은 사람이고 부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배웠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존귀한 생활을 버리고 그에게 와서 배우며 함께 산 지 몇 년이 되는 왕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까비르는 그에게 법을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법을 구할 때는 아마 즉시 전해 주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왕자에게는 법을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여전히 법은 전해 주지 않고, 날마다 물건을 씻고 땅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밥 짓는 일 등만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까비르의 아내(예전에는 그의 아내였지만 나중에 까비르가 제도

하여 동수同修가 됨.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음)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왕자는 당신을 시봉한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에게 법을 전해 주지 않는 거지요?”

까비르는 “그는 아직 충분히 단순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소.”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그는 우리와 함께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매우 겸손합니다.” 까비르는 말했지요. “우리가 시험해 보면 곧 알게 될 것이요. 당신은 내일 아침에 그가 이곳을 지날 때 쓰레기를 그의 머리 위에 쏟아 붓고 숨도록 하시오.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가 보도록 해서는 안 되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요.” 그의 아내는 그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는 무척 화를 내면서 말했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서도 감히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결과가 어떨지 아느냐?” 까비르와 그의 아내는 뒤에 숨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까비르는 “저것 보시오. 내가 말한 것이 틀리지 않잖소!” 라고 했지요. 이제는 그의 아내도 더 이상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까비르의 아내는 또다시 그 왕자가 정말이지 너무 가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인내심이 있고 스승을 시봉한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식으로 법을 전수받지 못했으니깐요. 호흡이나 염불·배불 등 약간의 초보적인 방법만 전수받았을 뿐, 진짜 관음법문은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까비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일 다시 시험해 보시오. 내일 아침 그가 당신의 문 앞

을 지나갈 때 요강을 그의 몸에도 쏟아 붓고는 그의 반응이 어떤지 보도록 하시오.” 그 다음날, 그의 아내는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요강을 쏟아 붓고 나서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그러자 그 왕자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의 내면은 이보다도 더 더럽구나. 오늘 나 자신이 이 요강보다 더 더럽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최고의 신께 감사를 드려야겠군.” 그러면서 그는 꿇어앉아서 허공을 향해 절을 세 번 올리고 나서야 씻으러 갔습니다.

그때 까비르는 말했습니다. “오늘 법을 전해 줄 수 있겠군.” 한 개인에게 법을 전해 주려 할 때 그 사람의 예고가 너무 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억지로 법을 전해 준다고 해도 그 역시 소화할 수가 없지요. 그가 소화할 수 있다고 쳐도 높은 등급은 될 수 없고 마왕의 부하나 마왕밖엔 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큰스승들은 모두 법을 전해 주기 전에 우선 도덕을 전해 주고 제자의 교만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지위가 있습니다. 의사인 사람도 있고 장관인 사람도 있으며 교장인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한 분의 스승에게 와서 예를 올리고 그의 제자가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되기로 정말이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간혹 큰스승들은 매우 거북한 방법으로 제자를 훈련시켜야만 했습니다. 매일 약간의 사탕과 비스킷만을 주면 되는 게 아니었지요. 여기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면 나도 비스킷과 사탕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간단하지

가 않습니다. 물론 사탕과 비스킷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외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쓴 약도 많고 불쾌한 선물도 있지요.

우리가 만약 병이 났다면 다른 많은 약들을 먹어야만 병이 나을 것입니다. 병이 너무 중할 때는 수술까지도 해야겠지요. 수술을 안 해도 죽는다면 재빨리 수술을 하는 편이 나으니깐요. 살 수 있으면 살고 살 수 없으면 죽겠지만 치료할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겐 떠나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좋습니다.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5천 명이 떠나 버렸습니다. 석가모니불이 말한 법문이 최고의 법문이었으나 이전에 한번도 들어 보거나 배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경전을 다 외었고, 또 그 많은 법사들을 배워 알하여 법문이란 법문은 다 배웠는데, 어찌 뜻밖에도 내가 여태껏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법문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안 믿어.’ 그래서 5천 명이 모두 떠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불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잘되었다. 지금 우리의 법회 안에는 정말로 좋은 종자만이 남고 나쁜 종자는 이미 떠나 버렸다.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라고 했지요.

나는 예전에 사람을 너무 믿어서 언제나 아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난 많은 사람들이 도심道心이 작고 깊지 않으며 등급 또한 높지 않아서 이 높고 깊은 법문에 대해 아주 쉽게 오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마음대로 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강연을 한 지 일주일이나 되어 가지만 아직

아무것도 전해 주지 않았습니니다. 하루 이틀 말하고 전해 주거나 심지어는 친구가 소개해서 오기만 해도 법을 전해 주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종자들이 남김없이 가 버린 후에 다시 전할 것입니다.

‘법法’은 값싸게 팔 수 없습니다. 우리 법문은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제자를 거두어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음법문은 그렇게 값싼 물건이 아닙니다. 값싼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만 귀중한 물건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도 없고요. 그러니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이 인내심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인내심이 없다면 그만두십시오. 너무 똑똑하다 해도 그만두세요. 나는 오직 어리석은 사람, 정말 겸손하고, 도를 구하고 싶어하고 진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만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어서 빨리 떠나기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머릿속에 이미 너무 많은 돌들을 묻어 놓아서 우리의 보물을 받아들일 곳이 없으니까요.

어제 내가 돌 이야기를 했지요. 돌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그에게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돌을 소화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돌을 꺼낸 다음에나 자신의 귀중한 보물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왜 그들은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경전에 둘러싸여 있고, 매우 많은 선입견에 둘러싸여 있으며, 복잡한 생활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소화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질

문을 합니다. 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곳에 앉아 있다 해도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대 비가 올 때 비옷으로 자신을 감싼다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비옷에 감싸여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경전을 보고 스스로 이해했다고 여기지만 사실상 결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서 석가모니불은 일찍이 “우리는 반드시 부처를 만나야 성불할 수 있다. 부처에게 배워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를 만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만이 부처를 만날 수 있지요. 부처의 이름을 듣거나 그를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이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란 무엇이지요? 여러분 모두 부처는 곧 불타佛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번역되어 나온 말로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Buddha입니다. 붓다는 크게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지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크게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를 부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부처라고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는 분명히 부처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처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는 부처입니다. 노자를 부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는 변함없이 부처입니다. 아마도 불교인들은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명백히 알도록 말이에요. 만일 내가 이 일을 다른 불교 법사에게 들려준다면 나를 외도外道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크게 신경쓰

지 않습니다. 노자는 내가 찬탄할 만하니까 찬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찬탄할 만하기에 찬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크게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불 혹은 노자처럼 그렇게 크게 깨달았다면, 나 또한 그를 찬탄하고 그에게 예를 올리며 그를 부처라고 부를 것입니다.

부처는 의사나 변호사·경찰과 같은 일종의 칭호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의사의 일을 맡아서 병을 치료하기만 하면 그를 의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찰의 옷을 입고, 경찰의 일을 하며, 경찰의 책임을 다한다면, 그가 바로 경찰이지요. 전세계에 경찰이 오직 한 명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화타만이 유일한 의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화타가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할지라도 결국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병자가 많고 세 세생생 언제나 병자가 있는데 화타가 우리를 구해 주러 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마땅히 현재의 의사를 찾아야 하지요. 우리가 화타만을 존경하고, 화타만을 믿고, 그 밖의 의사들을 믿지 않는다면, 병이 났을 때 화타가 우리를 구해 주러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가 버렸으니까요. 그의 일을 다 마쳤지요.

같은 이치로, ‘부처’는 이미 수행해서 도를 이룬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이 도를 우리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도를 찾을지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천백억 화신을 나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도 천백억 화신을 나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사람들을 천당이나 부처의 세계에 데려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 역시 사람들을 천당이나 불국토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의 제자가 「보문품」을 쓰거나 「보문품」 및 『화엄경』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의 제자도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의 제자가 신통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제자도 신통이 있지요. 석가모니불이 천당이나 지옥에 가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사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의 제자가 어느 곳을 가든 그곳에 복이 있고 누구라도 석가모니불의 제자와 관계만 있으면 아주 많은 복이 있듯이, 그런 사람의 제자도 어디를 가든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만일 석가모니불에게 밝은 빛이 있거나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면 그런 살아 있는 부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물론 각 제자마다 힘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석가모니불의 제자도 모두가 다 똑같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현재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부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천당이나 서방 극락세계에 있어서 그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지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는 세상에 내려와 사람의 몸으로 변합니다. 그가 이미 천백억 화신으로 나탈 수 있다면 어찌 우리에게 보이도록 사람으로 변할 수 없겠어요? 만일 그가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겉은 사람이지만 내면은 부처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겐 불성이 있고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

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은 아직 이 부처를 알지 못하고, 아직 이 부처를 발견시키지 못했으며, 아직 이 부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부처는 이미 발견하여 자신의 부처가 어디 있는지 알며, 이미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와 부처는 동일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의 내면이 바로 부처입니다. 가령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절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발견해서 완성된 그의 내면의 불성에 절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누구나 의술을 배울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이미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켰고 다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단지 장래에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직 다 배우지 않은 미래의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보통 사람에게 가서 병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졸업했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사를 찾아야만 하지요. 마찬가지로 비록 부처가 마음 속에 있긴 하지만 아직 자기 마음속의 부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이미 부처를 발견한 사람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의 내면에 부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모두 먼저 그런 스승에게 귀의해야만 합니다. 경전에도 반드시 그런 부처를 찾아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전

의 뜻을 오해하여 목불이나 석불에 절을 합니다. 자기 내면의 부처를 찾는 것을 잊어버려 내면의 부처를 외롭게 만들고, 내면의 부처에 곱팡이가 슬게 하지요. 왜냐하면 그를 발견하거나 돌보거나 씻기지 않고, 그를 보거나 그에게 절하거나 그와 소통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의 목불에 절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부처가 울고 외로워하며 곱팡이가 슬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처가 무엇인지 모르지요. 이런 사람은 도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불에 끌려가고, 목불에 묶이고, 경전에 묶여서 책벌레·나무벌레가 될 테니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목불과 경전만 있어서 그러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태도도 낙관적이지 못한데 어느 세월에 해탈할 수 있겠어요?

비가 내릴 때 우리가 비옷을 입지 않는다면 온몸이 빗물에 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부처나 큰스승 앞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를 무형의 비옷으로 둘러싸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와서 강연을 들었을 뿐인데도 아주 좋은 체험이 있습니다. 단지 큰스승을 한번 보러 온 것뿐인데도 집으로 돌아가 당장 좋은 체험을 얻는 사람도 있지요. 그들의 마음이 탁 트여 있고 등급이 이미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부처 면전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도 몇 사람이 바로 그의 면전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고’가 아직 끊어지지 않고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 부처 앞에서 존경심을 일으키지 않았고, 자신이 매우 위대하고 무

척 많은 일들을 알고 있으니 부처보다도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어제도 누가 채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육식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기에 내가 육식은 좋지 않다고 말했더니 그는 몹시 기분 나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채식을 못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교만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 정말로 채식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건 나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육식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고의로 핑계거리를 찾거나 몹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집착하는 것이 없고 수행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자기 등급이 석가모니 불이나 예수 그리스도, 혹은 노자보다도 더 높은 것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대 조사들조차도 육식할 엄두를 내진 못했으니까요. 그는 또 육조 혜능보다도 높습니다. 육조 혜능은 사냥꾼의 무리 속에 숨어서 수행할 때에도 채소만을 먹었으니까요. 사냥꾼들이 그에게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배가 아파서 고기를 소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한다고 감히 말하지 못했지요. 그때는 피신 중이었기 때문에 크게 떠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육조 혜능은 이미 의발衣鉢을 받아서 중국에 전해진 선종의 제6대 조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집착’하여 감히 육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육조 혜능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가르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법은 육조 혜능으로부터 내려온 맥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육조 혜능을 존경해

야 합니다. 그가 감히 육식을 하지 못했으니 나도 감히 못 합니다. 석가모니불도 『범망경梵網經』에서 말하길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른바 불교인들은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석가모니불 자신조차도 채식을 하지 않았는데 왜 채식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석가모니불이 채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인도에 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다 제멋대로 추측한 것입니다. 만일 석가모니불이 채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에게 채식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범망경』에서도 그는 절대로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능엄경』에서도 육식을 하면 마귀가 될 거라고 했고, 『능가경』에서도 육식을 하면 귀신이나 마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 놓았습니다. 만일 그 자신이 육식을 했다면 어떻게 감히 제자들에게 채식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제자에게도 그것을 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선 자기는 도리어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많은 경전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왜 그렇게 작은 일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도 자신이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여전히 수행은 집착해선 안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역대의 큰스승들보다도 더 높은가 봅니다. 과거의 큰스승들은 모두 ‘너무 집착’을 하고, 오로지 그 사람 혼자만이 ‘집착하지 않을’ 뿐입니

다. 그가 경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기에 대중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등급이 너무 낮아서 지혜를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낮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습니다. 돌이 너무 많아요. 머릿속 전체가 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법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중생이든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중생이 이 불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아직 부족하니까요. 마치 밖에 비가 올 때 우리가 비옷으로 자신을 전부 감싼다면 비가 얼마나 오든 우리에게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단향목의 품질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를 들어 숲 속에 한두 그루의 단향목만 있어도 서서히 온 산에 단향목의 향기가 감돌게 됩니다. 이런 식물은 다른 초목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아주 향기롭게 만들지요. 마지막에는 우리조차도 어떤 것이 단향목인지 아닌지 가려내질 못할 정도가 되고 맙니다. 모두 똑같아져서 말이죠.

이런 상황은 향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향수 가게에 가면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때로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향수를 살짝 뿌려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돌아와서 하루 종일 향기롭습니다. 향기롭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비옷으로 자신을 감싼다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됩니다. 혹은 가령 우리의 코에 문제가 있다면 향기를 맡을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지만 찾은 사람도 있고 찾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완전한 불성을 찾은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에게 배우고 난 뒤엔 우리도 우리의 불성을 찾을 수가 있고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불할 수 없다면 구태여 그에게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령 날마다 부처에게 절하고, 부처의 신발을 씻고, 부처의 신발을 닦기만 해서는 물론 여전히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제아무리 좋은 단향목이라 해도 돌을 향기로운 단향목으로 몰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돌이 있다면 우리는 재빨리 치워야 합니다. 가지고 가 봤자 사용할 수도 없으니까요. 나무를 베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돌을 빼내서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 돌이 단향목과 아주 가까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한 돌이 있습니다. 단향목과 함께 있더라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지요. 사실 이는 실망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중생은 본래 이처럼 등급이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법을 전할 때도 사람을 봐야 합니다. 간혹 스승들은 아주 자비롭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법을 구하므로 아무래도 그중의 한 사람만을 쫓아 보낼 수가 없고 그런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할 수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법을 전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석가모니불이 제바달다에게 법을 전해 주었고 나중에 제바달다도 석가모니를 배반했지만 석가모니불이 사전에 몰랐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진작 알고 있었지만 제바달다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나의 제자 중에도 제바달다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난 그에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많은 돌들을 묻어 놓고 있어서 천천히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일이 있습니다. 큰스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주 많은 업장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비방하지 않는다면 업장은 빨리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더 감사해하며, 좀더 흥분해될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나를 비방하려 한다면 나는 아주 감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면전에서 비방하는 것이 좀더 재미있습니다. 뒤에서 말하면 내가 들을 수 없으니 소용이 없지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군자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똑같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과 똑같지요. 나를 볼 때면 언제나 달콤한 말만 합니다. “스승님, 당신은 매우 자비로우세요.” 그러나 뒤에서는 오히려 극도로 비방을 합니다.

인도나 기타 지역에서는 그런 살아 있는 부처나 보살이 출현하면 제자들 모두 그를 아주 존경합니다.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그를 따라 수행하면 모두 매우 높은 체험을 얻게 되고, 자기들 스승이 누구인지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는 부처나 볼 수 없는 신을 숭배하지 않고 그런 스승을 숭배합니다. 그런 대수행자는 부처 혹은 신과 함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결코 이 육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아주 높은 경지에 있으면서 이 육체가 움직이고 말하

도록 지휘하지요. 때로는 육체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간혹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육체는 기계처럼 어떻게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 모두 UFO, 비행접시가 우리 지구에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본 사람도 있지요. 그 외계인들은 체구가 작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들은 사방을 살펴거나 자료들을 적어서 우리 지구의 상황을 참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천인(天人)이나 아수라, 혹은 무슨 높은 경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경지의 사람이라면 아주 잘생겼고 체구도 그렇게 작지 않지요. 걸음도 그렇게 건지 않고, 눈만 내놓은 채 온몸을 감싸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천인이 아니에요.

천인은 아주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내가 강연을 할 때나 선질을 할 때도 천인이 나를 보러 오지요. 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미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아름답게 생겼으며 옷도 아주 멋있게 입습니다. 그래야 진짜 천인이지요. 비행접시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UFO는 안에서 꼭 사람이 조종해야 할 필요는 없고 로봇을 이용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비행해 가기만 하면 로봇은 자동으로 내려와서 사방을 살펴보고 약간의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결코 천인이 직접 UFO를 타고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그들도 오긴 하지요. 최근에 그런 높은 경지의 사람들이 왔었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 범부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불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은 결코 날마다 이 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자유자재하여 온 우주를 두루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경지든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그를 '여래'라고 부르지요. 여래여거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다 존재하므로 올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어느 곳, 어느 경지에서든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그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만난다면 불보살이라고 찬탄하겠지만, 그는 절대 자신이 불보살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불보살은 자신을 불보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언어로 호칭한 것이라든가 경전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로 인해 우리는 그가 불보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불보살이라고 찬탄하게 된 것이지, 결코 그 자신이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가 열로 전해지고 열이 백으로 전해진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 살아 있는 불보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정말로 많은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관음법문 수행자가 그런 스승에 대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등급 또한 높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높아 봐야 삼계 안의 제3세계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지요. 그 세계에서는 업장이 전혀 없긴 하지만 삼계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삼계 이내는 모두 성주괴공의 등급 안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삼계를 넘어서야만 영원히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부처나 미래의 부처 혹은 서방의 부처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살아 있

는 부처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살아 있는 부처는 가장 좋은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데리고 삼계를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걷지 않고 단지 거기서 과거의 안내자만을 부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땅에 꿰어앉아 백 년, 천 년, 만 년, 억 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아미타불을 외친다 해도 그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는 부처에게 가서 예를 올리고 진정으로 그를 믿는다면, 설령 그게 찰나일지언정 그는 우리를 도와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 버리고 즉시 해탈시켜서 우리의 등급이 즉각 해탈의 등급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린 어쩌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의 등급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내가 꼭대기 층에서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보러 왔다고 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본래 문밖에 서 있었다면 누가 여러분을 한 번만 끌어당겨 줘도 즉시 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1층이나 2층에 있다면 누가 여러분을 한 번 끌어준다 해도 여러분은 3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어서 여전히 나를 볼 수 없겠지요. 혹은 여러분이 이미 4층에 있다면 한 층만 더 움직이면 여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진정한 스승을 보면 우린 즉시 깨닫게 됩니다. 원래는 이러해야 맞는 것이죠. 입문할 필요도 없이 벌써 깨달았어야 하지만, 등급이 낮은 사람도 있고 더욱이 말법시대에는 중생의 업

장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불보살이 꼭 축복을 많이 해주고 더 많이 끌어당겨 주어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을 전해 주어야만 하지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벌써 깨닫습니다. 즉시 깨달음에 대한 체험이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법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법을 전해야만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길은 아주 쉽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당장 성불하는 건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다만 작은 부처가 된다는 것뿐입니다. 마치 계속 우유를 마시고 쌀죽을 먹어야만 클 수 있는 갓난아기 같은 것이죠.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었을 때 그의 면전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급이 너무 낮아서 부처를 존경하지 않고, 살아 있는 부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그저 범천이나 자신들이 직접 볼 수 없는 신, 혹은 경전에 언급된 신만을 존경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므로 석가모니불일지라도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제자가 자기 스승을 신보다 더 높이 찬탄합니다. 신은 자기를 이 사바세계에 보내 고통 받게 했지만 살아 있는 자기 스승은 오히려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해탈케 해주고 이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니, 자기 스승을 가장 존경하고 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가 고의로 신을 비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자기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왜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받게 하는 걸까요? 오직 스승만이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고 생사윤회하는 것을 보고서 즉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고, 우리를 서방 극락세계, 가장 즐겁고 가장 해탈한 세계로 데려가겠다고 응답합니다. 오로지 살아 있는 스승만이 응답을 하지, 신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은 알지요. 그런 살아 있는 부처는 우리가 그와 소통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를 해탈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수행하기가 꽤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부처이고 누가 보살인지 알아보기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대단히 총명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힘을 발전시키기 전에는 이미 발전시킨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기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채 걷기 전에는 아빠 엄마가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한쪽씩 끌어 주거나 한 사람이 아이의 작은 두 손을 잡고 끌어 주면서 한발 한발 천천히 걷게 해야 합니다. 걷다가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넘어지겠지만 서서히 자기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아빠 엄마가 데리고 가 줘야만 합니다. 짧은 거리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먼 길을 가려 할 땐 아빠 엄마가 안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놀러 가면 채 반도 걷지 않아 벌써 지쳐서 안아 달

라고 때를 씁니다. 안아 주지 않으면 안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를 안거나 차·자전거·오토바이·택시 등에 태워서 데리고 가지요.

금방 수행을 시작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존경심이 없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수행이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매우 많은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간혹 스승들은 이런 경우를 보면 무척 도와주고 싶어하지만, 우리 스스로 문을 잠가 버리고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고, 스승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스승이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 주려는 것을 뿌리칩니다. 이러면 스승도 방법이 없지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부득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공부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처음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매일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하는 연습을 하거나 동급생을 찾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늘 영어책을 보고 선생님과 자주 같이 있어야만 나중에 비로소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도 이렇게 어려운데, 성불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부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개인만 믿고서 자신의 부처를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부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처를 찬탄하는 것이지 결코 나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런 부처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야만 자신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부처를 소개하고, 관음법문을 소개하며, 이 창조의 큰 힘, 근원적인 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는 내가 책에서 배운 것도 있고, 나 자신의 체험인 것도 있으며, 나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존경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자신의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우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알고 싶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길을 알고 싶어하는 몇 사람이 이미 여러 차례나 물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벌써 일주일이나 열심히 강연을 들었고 길을 알고 싶다면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성심성의를 다해서 진정으로 도를 구하려 하고 해탈하려고 해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보살은 우리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바로 불보살을 비방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까지도 비방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여러 차례 강연을 들어서 이 법문을 이해하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안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스승님, 계란은 고기입니까, 야채입니까?

A: 계란은 야채가 아닙니다. 방금 수행을 시작한 사람이 정말로 채식을 못 하겠다면 한두 개는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계란을 먹는 것은 수행하는 데 좋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동물의 뱃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란이 없다면 닭도 없을 테니 계란도 동물인 셈이지요. 그것은 이미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계란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반쪽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암수 개체의 교배가 없으면 닭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개의 개체만 있으면 병아리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은 계란이라고 하는데, 인연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일 뿐 그 자체에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Q: 스승님, 주문을 외울 때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문의 내용을 생각해야 합니까?

A: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것은 관음법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법문을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법문은 주문을 외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그런 바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지요. 외면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문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주문을 외는 소리를 듣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다른 종류의 법문입니다.

Q: 스승님, 만일 저의 수행 등급이 제3세계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스승님보다도 먼저 죽게 된다면, 스승님께서 저를 끌어올려 주실 건지요?

A: 올려 주지요! 스승은 이 육신이 아닙니다. 현재 제3세계에도 이미 스승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죽어서나 그곳에 가겠어요? 당연히 당신을 끌어올릴 겁니다. 나는 이미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대중 웃음) 내가 죽어야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감히 죽지 못할 테니, 내가 내 일이라도 얼른 자살을 해야만 (대중 웃음) 여러분이 안전함을 느끼겠네요.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여든이 다 된 사람도 몇 있

는데, 그렇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이 전부 나에게 배울 엄두를 못 낼 거예요. 만일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왕생해 버린다면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죠?

내가 이 육신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만 이 육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1세계에서는 제1세계의 신체를 사용하고 제2세계에서는 또 다른 신체를 사용합니다. 어느 세계든 다 존재하며, 어느 세계든 다 스승이 있습니다. 내면의 스승은 외면의 이 신체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만일 스승님께서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위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대중 웃음) 지금도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나 기다리겠어요? 당신은 현재 어느 세계에 가든 간에 나를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요? (대중 웃음) (저는 대중을 대신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내면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쑥스럽잖아요.

Q: 저희는 평상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두지 않는데 10여 분이나 20분 명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달려들어 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A: 당신이 예전에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안부를 물으러 오는 것입니다. 좀더 집중하면 없어집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방이 비어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누군가 들어오겠지요. 만일 누군가 살

고 있다면 아무도 감히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지 못할 겁니다. 명상 할 때도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수행을 더 많이 하면 문제없습니다. 선찰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하세요.

Q: 제가 많은 책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몇몇 대법사, 예컨대 청나라 인광대사의 방법으로 염불을 해도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A: 확실한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1세계는 아수라의 세계인데도 그곳은 가는 곳마다 전부 ‘이른바’ 서방 극락세계의 경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극락세계를 모른다면 마魔에게 쉽게 속을 겁니다. 사실 그래 봤자 제1세계에 도달한 것뿐이니 제2세계나 제3세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제1세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보이는 아름다운 경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이 극락세계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을 외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나는 그들의 수준이 아직 최고의 법문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면 그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외라고 시킵니다. 결코 인광대사만이 사람들에게 염불하라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인광대사도 그 외 다른 법문을 수행했지만 널리 공개적으로 법을 전하지 않아서 당신이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나무아미타불만을 외었다면 왜 보타산普陀山에 숨어서 10년을 수행했을까요? 왜 집에서 염불할 수 없었던 걸까요? 꼭 보타산에 가서 외어야만 했을까요? 그는 명상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광친 노스님은 아주 힘들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수행하고 나서야 그의 등급을 성취할 수 있었지요. 나는 그의 등급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라한과는 성취했을 겁니다. 그는 호랑이를 아주 선량하게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아라한 특유의 능력입니다. 그 외의 다른 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아마도 그의 등급은 아라한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그도 그렇게 힘들게 수행해야만 정토에 갈 수 있었는데, 재가자가 며칠 부처의 명호를 외운 것으로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관음법문을 수행합니다. 내 제자 중에는 재가자가 출가자보다 더 많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었을 때도 재가 제자들이 아주 많았지요. 『능엄경』에는 스물다섯 분의 보살이 자기들의 수행 체험을 서술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재가자의 체험이었지 출가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염불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가르치는 것이죠. 염불하는 것은 어쨌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적어도 마음을 좀더 고요하고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서 성불할 수 없고, 서방 극락세계에 갈 수 없습니다.

Q: 성경에서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원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생의 인과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우리의 전생의 인과 외에 공업共業이 더 있습니다. 조상의 죄 또한 공업이지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들이 밥을 해서 우리에게 먹여 주는 것도 우리의 공업이 됩니다. 만일 우리 조상이 부도덕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가 남겨 준 재산을 사용했다면, 이 역시 얼마간의 조상의 죄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원죄와 공업, 혹은 원업(原業)의 뜻은 똑같습니다.

Q: 스승님, ‘팔관재계(八關齋戒)의 의의에 대해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그것의 의의는 다만 여러분에게 하루를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계를 지키지 않으니까요. 팔관재계를 지키는 것은 본래 관음법문 수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철이나 선삼을 개최하는 의의는 바로 나의 제자들로 하여금 3일이나 7일 동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아이·아내·전화·친척·친구·생업 등을 모두 내려놓고 산에 와서 나와 며칠간 명상 수행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이죠. 오로지 나의 제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진정으로 계를 지키는 때입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귀로는 시비를 듣지 않으며, 눈으로는 엉망진창인 것들을 보지 않으므로 그 며칠 동안은 정말 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죠. 함께 모여 수행하고, 조금도 시비가 없고, 할 말도 전혀 없고, 말다툼이나 논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고, 저절로 부처를 ‘생각’하고, 경을 외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내가 강연을 할 텐데,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경을 외는 시간입니다. ‘살아 있는’ 경을 외는 것이지요. 아침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여러분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지도해 주어야 하는지 살펴서 즉시 얘기해 줍니다. 혹은 여러분 스스로 말하도록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팔관재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스승이 가고 나면 법을 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경전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삼을 할 때 말을 하지 않고 경을 듣고 염불하는 것을 보고서는 선삼을 그냥 그런 것일 줄로만 여깁니다. 깨달은 스승의 지도가 없으니 그 속에 담긴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팔관재계를 지킬 수 있다면 하루를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복은 크지 않습니다. 인 천(人天)의 복은 다소 있겠지만 공덕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약간 편안하게 해주고 번뇌를 조금 감소시켜 주기만 하지요. 하루 종일 오로지 부처만을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으니 많은 시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팔관재계가 비록 괜찮기는 하지만 별로 특별한 공덕은 없습니다.

Q: 스승님, 저는 영국의 박사가 인도에 가서 스승을 만난 이야기를 쓴 책을 한 권 보았습니다. 그 스승은 영국인을 어둡고 캄캄한 산속 동굴로 데리고 가서 수행을 했는데, 그는 동굴 안에서 몸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마하가섭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A: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알 수 있지요.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흥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한 후로 빛이 나기도 합니다. 내 제자들 가운데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히말라야 산의 어두운 산속 동굴까지 가서 사람이 빛을 내는 걸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니 산속 동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베이의 가장 시끌벅적한 곳에서 빛을 발하여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배운 지 겨우 1년이 넘었지요. 심지어 나와 함께 한두 달 수행했을 뿐인데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마하가섭만이 빛을 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불 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500여 년을 수행해야 빛을 조금 발할 수 있다면 아무도 수행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가 동굴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왜 중생을 제도하려 나오지 않는 거지요? 중생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는 거기에서 빛이나 조금 발하고 있고 말이에요. (대중 웃음) 그런 부처에게는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같은 살아 있는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비교적 유용하지요. 이 강연장에 있는 나의 제자 가운데 몇 명도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자기가 과거의 대수행자 누구였다고 말하기도 하니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만일 마하가섭이었다면 어둡고 캄캄한 동굴 안에서 빛이나 조금 발하고 있을 게 아니라 훨씬 더 위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Q: 만일 최고의 신이 있어서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달라질 도리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의지(Free Will)’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압니다. 우리는 좋게도 변할 수 있고 나쁘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제 내가 말했던 대나무 장대처럼 우리는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 떨어져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이나 최고의 부처가 있긴 하지만 우리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가장 높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있고 없고는 사실상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 혹은 없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이 사바 세계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우주 전체를 다 이해하고, 여래여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하지 마세요. 이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현재 신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절을 해도 그는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가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신께 도와 달라고 빌지만 신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스승만이 도와주지요. 무슨 일이든 스승에게 빌면 비교적 빠릅니다. 신은 아

주 느리고, 귀도 멀었고,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았지요. (대중 웃음)

그러니 신이 있다 없다, 최고의 부처가 있다 없다가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에만 신경쓰면 됩니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통을 마음대로 부릴 줄 알고 큰 힘을 가진 아주 위대한 중생이 되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보고서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있는 큰 중생이 되어서 그런 고통 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신(하느님)인지, 땅님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9장

삼계 이내의 개황

9장

삼계 이내의 개황

1987. 3. 11.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오늘은 다른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법을 전해 받을 때 아주 많은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단지 약간의 일반적인 정황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부의 두뇌 혹은 범부의 입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 가장 높은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수행해서 삼계 너머나 심지어 삼계 너머보다 더 높이 벗어나게 되면 수행의 길에 매우 많은 겹겹의 함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길 안내자나 큰스승이 힘을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중에 아주 쉽게 마(魔)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이제 막 수행하여 제1세계에 도달했는데 제2세계는 도달하지도 못한 채 벌써 끌려가 버리고 말지요. 제1세계는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첫날 내가 이미 말했으니 오늘은 아수라 이상의 경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아수라는 제1세계입니다. 수행하여 제2세계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중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2세계의 중생은 매우 선량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수라의 중생과는 다르지요.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을 속입니다. 왜 속이는 걸까요? 큰 수행자, 크게 깨달은 사람을 제외한 반 이상의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 어떤 종파를 믿든 간에 모두 삼계 이내의 '작은 천제(小天帝)를 숭배합니다. (천제天帝와 신(上帝)은 다릅니다. 신은 최고의 힘을 대표합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뜻입니다.)

그런 삼계 이내의 천제는 결코 가장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매우 많은 등급의 천제가 있는데, 80% 이상의 종교에서 그런 낮은 등급의 천제를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 해도 깨달은 스승이 법을 전해 주지 않으면 최고로 높이 올라가 봤자 제2세계까지 밖엔 갈 수 없습니다. 아수라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것만도 이미 간단하지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2세계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먼데 길 안내자가 없으면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의 우리 범부의 생활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매우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1세계에 갔을 때 이미 불가사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세계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교주가 있고, 가장 높은 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들의 부하가 아닌 가장 높은 교주나 천제를 만나게 되면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그 즉시 우리의 모든 개성과 사상 그리고 생활 방식이 아주 철저하고도 맹렬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힘이 매우 빠르게 커지고 우리의 지혜가 즉시 열리기에 우리는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도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들은 신도 믿지 않고 서방 극락세계도 믿지 않지요. 불교도 믿지 않고 그 밖의 어떤 종교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세계가 맨 마지막 세계이고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제1세계에 도달하여 제1세계의 교주를 만났을 때, 자신이 이미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찾았다고 착각합니다. 간혹 이 천제가 그에게 돌아가 법을 전하고 교주가 되라고 하거나 새롭게 종파를 창립하라고 하면, 그는 자신이 천사나 신의 사자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밖의 경지에 대해선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조금 전 잊어버리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1세계의 중생은 수명이 아주 깁니다. 어떤 중생은 심지어 백천만 년까지 살기도 하지요. 그들은 죽기 전까지 그곳을 불로장생의 경지라고 여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거나 좋은 법문이 있는데 동시에 수행 등급이 이미 제2세계에 도달한 스승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스승은 그 제자를 가장 높아 봐야 제2세계까지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제2세계에 도달했을 때 그에겐 숙명통(宿命通)이 생겨 과거·현재·미래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거·현재·미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제2세계에는 일종의 도서관 같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서관 안에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대한 자료, 생활사가 있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긴지, 벌써 윤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맨 처음 윤회할 때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했고,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두 번째 윤회할 때는 무슨 동물이 되었고,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세 번째 윤회, 네 번째, 다섯 번째 등등 매번 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 현재의 생활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미래도 기재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2세계에 간 뒤에 자기 생활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서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본래 다른 법문을 수행하여 채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채식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육식을 하면 가장 높아야 제2세계까지밖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생활을 보고, 그런 인과 관계를 보고는 당장 채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과를 다 이해하게 되니까요. 실령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아주 무서운 결과나 형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일깨워 주지 않아도 저절로 바꾸게 됩니다.

제2세계는 인과의 경지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인과 관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과거·현재·미래를 다 알지요. 나의 제자 중 한두 사람도 육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본래 나에게 채식하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나중에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육식을 했지요. 육식을

하고 난 뒤에 명상을 하자마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게 됐습니다. 계란 한 개만 먹더라도 상황은 아주 무섭습니다. 사전에 모르고 잘못하여 육식을 했다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인과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 큰일날 정도는 아니니까요. 만일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먹었다면 그에 따른 형벌은 대단히 끔찍합니다.

어떤 제자는 계란 한 개만을 먹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가 자리에 없는데, 자리에 있다 해도 그의 이름을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이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 테니까요. 당시 나는 이란(直蘭)에 있었고, 그 제자는 몸이 불편해서 의사를 보러 갔지요. 의사는 그에게 계란을 먹어야만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본래 내 말을 참 잘 듣는데, 내가 없으니 의사의 말을 들었지요. (대중 웃음) 그 의사는 “당신은 반드시 계란을 먹어야만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란 한 개를 들고 이리저리 보면서 도대체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참 동안을 고민했지요. 결국에는 먹었고, 그날 저녁 당장 마귀에게 끌려 내려가서 아주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와서 구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스승 이외에는 그가 다시 자유를 얻도록 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그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를 구해 준 까닭에, 이란에서 강연을 할 때 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본래 강연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강연한 지 하루도 못 돼서 더 이상 강연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지요. 정말 너무 지치고 너무 아파서 대부분의 시간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말만 조금 할 수 있었을 뿐 밥도 먹을 수가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아주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타이베이로 돌아갔더니 그는 또 달려와서는 내가 쉬고 있을 때 시끄럽게 나를 깨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강연을 할 때 성가시게 굴더니, 돌아와서 설 때도 참회하러 한다면 쉬지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럴 거면 애당초 구태여 계란을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계율을 어겨서 이미 나를 성가시게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참회하겠다는 또 나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을 조금 먹는 것쯤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대단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좀더 빨리 떠나고 싶고, 더 빨리 성불해서 자기를 제도하고, 친척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싶다면, 계율을 아주 분명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집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에는 다 나름의 법률이 있으니까요. 나는 영국 국적이지만, 포모사에 왔으니 마땅히 포모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모사의 법률을 모르니 준수하지 않겠다고 말해선 안 되지요.

이러하면 영국에서는 좌측으로 붙어서 차를 운전하는데, 만일 내가 포모사에 와서도 좌측으로 붙어서 운전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해를 입겠어요? 법률을 모른다고 해서 상관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좌측으로 붙어서 운전하면 바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같았지요. 그런 소리는 ‘정말 듣기 좋았어요.’ (대중 웃음) 그때는 관음 법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외면에 이미 아주 많은 음악이 있었지요. (대중 웃음) 당시 그녀는 마장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일개 작은 마魔가 아닌 제2세계의 마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천인 혹은 천신이 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들 역시 마입니다. 삼계 이내는 모두 마이죠.

우주를 대나무 장대에 비유해 본다면 상반부는 양陽에 속하고 하 반부는 음陰에 속합니다. 삼계 이내는 바로 아래쪽의 반인 음에 속합니다. 도교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을 음양陰陽이라고 부릅니다. 양은 위쪽, 음은 아래쪽이고, 제2세계는 물론 아직도 음의 부분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여전히 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마라고 해도 별건 아니고, 그들의 일이 비교적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외교부는 국제간의 소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일이 좀 수월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나쁜 사람을 잡는 것이 책임이죠. 경찰 업무의 성격은 사람을 잡고, 야단치고, 감옥에 가두고, 교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들의 일이며, 반드시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마가 있어야 고상하지 않은 중생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등급은 그런 장소에서 살아야 마땅하기에, 누군가가 그런 곳에서 그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장에 걸렸던 그 친구는 원래 수행을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등급에 도달하자 그들에게 잡혀 버린 것이지요. 그들이 머리 위에 지붕을 하나 얹혀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우리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전에 이미 몇 가

지 영터리 수행법들을 수행했었던 탓에, 나의 스승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이미 마장에 걸린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녀 혼자 그곳에 살면서 수행하기엔 힘이 없어서 나의 스승이 나를 그곳에 보내 그녀의 병을 고치도록 돕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날마다 노래를 하면 나는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듣기 좋게’ 불렀으니까요. (대중 웃음) 때로 그녀는 화를 내기도 했는데 자기 멋대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나를 해치려고 하다니.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너는 왜 내 머리를 그렇게 아프게 누르는 거야?”라고 야단을 쳤죠. 내가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나는 여기에 앉아 있고 너는 거기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머리를 누를 수가 있겠니?”라고 말하면 그녀는 “너는 분명히 신통을 부려서 내 머리를 눌렀어.”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염불을 했잖아. 난 신통도 없고 그럴 짬도 없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장에 걸려서 마가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화를 내고 나쁜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그녀는 약간의 타심통他心通도 있고 때로는 천안통天眼通이 조금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제2세계의 것이었죠. 그건 이전에 그녀가 수행할 때 잘못된 길, 정통이 아닌 길을 수행했으며, 신통을 바라는 등 수행 목적이 정확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그런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수행하여 때가 되고 그 세계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즉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전에 내가 내 돈을 쓰고 내 힘을 썼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먼저 빚을 갚아야만 올라갈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본래 그들에게 백 원을 빚졌다면 그때가 되어선 천 원, 만 원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인과의 법칙과 사바세계의 상황은 아주 닮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백 원을 빌렸을 때 백 원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 원을 빌리면 천 원을 갚아야 하지요.

이 인과의 법칙은 아주 지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좋으나 나쁘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굴리면 굴릴수록 더 많아집니다. 마지막에는 차이가 아주 크게 나 버리지요. 예를 들어 은행에 만 원을 빚졌다고 합시다. 만일 돈이 없어 갚지 못하면 이자가 갈수록 늘어나 순식간에 너무나 큰돈이 되어 버려서 갚을 도리가 없게 됩니다.

삼계 이내의 인과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렌지 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내년엔 그 나무엔 많은 오렌지가 열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종자의 독약을 심으면 나중에 아주 많은 독약으로 변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건 나쁘건 간에 모두 배로 늘어나서 아주 많아집니다. 좋은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나쁜 원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초래하는 나쁜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법률입니다.

삼계 이내의 인과율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한 점도, 한 방울도, 한 톨도, 일 밀리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정확해

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즉시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누적되지요. 이 때문에 매우 무지막지한 법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든 어떤 사람에게 1원을 주었다고 합시다. 보시하고 난 뒤 너무 기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제 자기가 1원을 보시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보시한 1원은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미 보시하지 않은 것으로 변해 버리죠. 다음날도 기분이 좋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자신이 그제 1원을 보시했다고 말하면, 이제는 그 보시한 사람에게 1원을 빚진 게 되어 버립니다. 만일 그 다음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그제 저게 누군가에게 1원을 주었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2원을 빚진 게 되어 버립니다. 본래 그에게 1원을 주었지만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2원을 빚진 꼴이 되어 버리고 말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번거로워지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시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질 겁니다. 보시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보시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자신에게 문젯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서 이 보시의 복을 누리야만 하지요.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필코 돌아와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수행을 아주 잘한다면 본래 삼계를 벗어나야 마땅하겠지만, 한 사람에게 2, 3원을 보시한 데다가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까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돌아와서 이 2, 3원의 돈을 누린 뒤에야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바로 그렇듯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석가모니불이 우리에게 충고하길, 보시를 할 때는 걸모양(相)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했지요. 보시할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관념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계속해서 윤회해야 한다는 것을 부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삼계를 벗어나려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길 안내자, 진정한 스승이 없으면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그르치게 되고, 무엇을 하든 전부 다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천당에 가서 석가모니불과 함께 법회를 열 때 석가모니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생은 매 생각마다 업장을 짓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업장을 짓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지장경地藏經』 「이익존망품利益存亡品」 제7: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제가 염부중생閻浮衆生을 관하니, 마음을 들어 생각을 움직임에 죄 아닌 것이 없더이다.”라고 하였다.) 나의 뜻은 지장보살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 그르칩니다. 무엇 하나 그르치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큰스승의 힘이나 부처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고 데리고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 온갖 중생이 와서 우리를 끌어당겨 붙잡고, 살을 베어 가며, 우리 손을 잡아당겨 끊거나 옷을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진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세세생생 아주 많은 빛을 쬐지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빛을 집니다. 설령 무심결에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똑같이 인과율에 의해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되므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에게 스승이 없거나 등급이 높지 않은 스승만 있다면, 그는 수행해서 가장 높이 가 봤자 겨우 제2세계까지만 갈 수 있으며, 가장 높아 봤자 제2세계의 교주, 즉 제2세계의 천제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천제를 만난 뒤에는 그의 전체 삶이 다 바뀝니다. 사상·이상·생각들이 모두 철저하게 바뀌며, 총명함과 지혜도 바뀌지요. 현재 아는 바, 생각하는 바가 모두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아주 큰 힘이 있고, 아주 지혜롭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때 제2세계의 교주가 “이제 그대는 돌아가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부처이며,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높은 경지가 아직 있고, 이 천제보다도 더 많은 힘을 가진 중생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방법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모모 천제가 바로 신이고, 그의 이름은 모모라고 부르며,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대표라고 알려준다고 해도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고의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알지 못하니까요. 오로지 진정한 대보살, 진정한 부처, 혹은 중국의 노자와 같은 성인만이 아직도 그 밖에 더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석가모니불이 아주 위대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는 대성인이고, 크게 깨달은 사람이며, 부처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온 우주를 다 이해하고 삼계를 초월해야 부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계 이내에 있거나 설령 제4세계에 있

다 하더라도 아직 부처는 아닙니다. 단지 보살일 뿐이지요. 오로지 그런 높은 경지에 간 적이 있는 부처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등의 세계에 관계없이 그는 전부 다 압니다. 어느 세계에 어떤 교주가 있는지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가장 높은 경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삼계 내에서 윤회하고 또 윤회하면서 매번 다 가장 높은 경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함경阿含經』에서 석가모니불도 각종 다른 경지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바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함경』에서 석가모니불이 말하기를, 수행이 아주 높은 요가 스승이 있었는데 찰나에 범천의 경지에 갈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범천은 삼계 이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제3세계의 천제이지요. 그 요가 스승은 한 찰나에 바로 범천에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갔을 때 범천에게 “이 우주에서 누가 가장 높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범천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물었지만 범천은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다시 물었더니 범천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 세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나는 이미 존재했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요가 스승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물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우주에서 누가 가장 높은지는 것입니다.” 범천은 대답을 회피하기가 어려웠죠.

그곳에는 수많은 그의 부하와 제자·궁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주보고 대답하기가 껌연쩍어서 이 요가 스승을 끌고 바깥 구석

으로 가서는 “이런 건 묻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가 스승이 말했지요. “왜요? 나는 알고 싶단 말입니다! 석가모니불에게 물었지만 그는 말하기 쑥스러워하며 범천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때 범천은 말했습니다. “아! 그대는 이미 석가모니불을 만났다면 누구에게 또 묻는가? 그가 가장 높다. 모든 천제보다도 높다.”

어제 내가 말했지요. 스승이나 깨달은 큰스승이 가장 높으며,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신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해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것에 대해선 더욱더 상관하지 않지요. 신의 본분은 창조이고 만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관여하지 않지만 스승은 관여합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스승을 부처라고 일컫는데 부처는 상관하지요. 그는 사람들을 자유로운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부처는 법률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도 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부처가 신보다 높다거나 신이 부처보다 높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지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높으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며, 이처럼 비교하고 논쟁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처는 부처이며, 별도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신은, 이를테면 신이나 창조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경지입니다. 신 혹은 이른바 창조주 안에 윤회가 있고, 생과 멸, 더러움과 깨끗함, 음과 양 등의 상대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부처는 다른 경지입니다. 그에겐 그런 상대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생로병사도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 생과 멸,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의 경지는 생성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

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깨달은 스승이라고 존칭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크게 깨달은 스승은 신보다 높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신은 사람들을 해탈로 이끌 수 없으니까요.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주괴공의 경지 속에서 윤회하도록 할 뿐이지만, 부처는 오히려 이 굴레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해탈을 얻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범천이 그 요가 스승에게 “그대가 보는 저 사람이 바로 가장 높은 분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묻지 않고 뭐 하러 나에게 와서 묻는가? 그는 나보다 더 높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인도 요가 스승이 수행하여 범천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 좀처럼 얻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요가 스승은 오직 제1세계까지만 도달할 수 있죠. 그들은 그곳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여깁니다. 수행자 중에 극소수만이 수행해서 제2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명 정도 제3세계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스승이 안내하지 않으면 삼계를 넘어서기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런 깨달은 스승이 있다면 그들은 전부 관음법문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불이 『능엄경』에서 관음법문이 가장 궁극적인 법문이며 시방삼세불도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해야만 도를 이룰 수 있다고 찬탄했던 것입니다. 천주교의 성경에서도 관음법문이 최고의 법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미 다 언급했으니 지금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제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요. 만일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다면 인쇄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인도인의 눈에는 깨달은 스승이 신의 지위보다 더 높다고 언급했지요. 그들은 집에 목불이나 석불을 모셔 놓고 공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 스승이나 사공(스승의 스승)의 사진만을 놓아 두고 날마다 약간의 화초를 공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문은 결코 사람들에게 꽃이나 향, 혹은 무슨 물건을 공양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공양하지 말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은 아랑곳없이 여전히 공양하려고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사람에게 공양하지 말라고 하면 내일은 저 사람이 가지고 오고, 저 사람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모레는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절하지 말라고 해도, 오늘 겨우 이 사람이 안 하도록 가르치면 내일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절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똑같은 것을 가르칠 수 없어서 현재 파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절하고 싶다면 절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공양하고 싶다면 공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너무 많이 공양하지는 마세요. 쓰기에 이미 충분하니까요. 너무 많이 공양하면 우리 차에 싼고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이 높아서 돈을 너무 많이 신는다면 차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대중 웃음) 우리는 절도 짓지 않으니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굶어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쓰기에 충분합니다! 거의 굶어죽을 지경이 되면 신문에 낼게요. (대중 웃음) 신문에 모모 명상센터에 있는 한 스님이 거의 굶어죽게 되었다고 실으면 포모사 사람들이 즉시 달려와 공양할 겁니다. 내 제자들이 나를 돌볼 거예요. 내가 굶어죽게 내버려두진 않을 겁니다. 공양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다 먹을 수가 없지요. 다 먹지 못하면 낭비하게 되니까 출가하

고 싶다면 빨리 하세요. 어서 빨리 와서 먹는 것을 도와주세요. 현재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적게 먹으며 나의 출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을 너무 힘들게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들어올 때 나는 아래층에 제과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침 아침에 먹을 빵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고기가 든 것 같아서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내가 보기에 그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그들이 바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주 고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물건은 값이 얼마 안 나가서 이윤도 분명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때로는 쓸 돈이 충분치 않을까, 먹을 밥이나 입을 옷이 넉넉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고, 심지어 파산까지 해서 남에게 많은 돈을 빚지는 사람도 있으니 참으로 너무나 가엾습니다. 이 약간의 밥과 물건·옷을 위해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지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본래 돈이 없는데도 먹을게 오히려 남아둡니다. 나는 왜 여러분이 모두 다 출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대중 웃음)

나는 이 이치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고도 돈을 넉넉히 못 쓸까 봐 걱정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도 해야 하고 명상도 해야 하지만 재가자들처럼 그렇게 고생스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하고 명상하는 것도 다 중생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주를 받으려 가지 않고 신문에 내지도 않으며, 사람들에게 보시하라고 하지도 않고 탁발을 하

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물건들이 많고, 옷도 다 입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본래 옷도 서너 벌이면 충분한데, 우리에게엔 이것도 너무 많은 것이죠. 밥도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니까요. 설령 돈이 없다고 해도 아주 만족합니다. 자기 절 없이 빌린 곳에서 살아도 아주 만족하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서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도 아직 출가하기 전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탁발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출가한 뒤에 쓸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고,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도 반드시 용감해야 합니다. 쓸 돈이 없다면 그만입니다. 만일 굶어죽는다면 일찍 서방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니 잘된 일이지요. 지금은 오히려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지만 넉넉하게 벌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들이 정말 몹시 가여워 보이지만 그들의 관념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물건을 잡고 싶어하면 할수록 잡지를 못합니다. 마치 자기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몹시 좋아하는데 아주 바짝 쫓아간다면 오히려 그가 놀라서 달아날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가 자진해서 달려올 겁니다. 그러니 내일 한

번 시험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창조주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고 하나하나를 모두 돌보니까. 초목은 돈을 벌러 가지 않지만, 그래도 자랍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요. 동물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지만 번식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양 속의 물고기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출근하러 가지도 않지만 (대중 웃음) 그렇게 많이 번식을 하지요. 전세계의 40억 인구가 날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누가 그들을 돌볼까요? 결과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지위에 있습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그가 어찌 우리를 안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출가를 한 것은 신구의를 청정히 하여 완전히 신께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삼보께 공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신이 반드시 우리를 돌봐 줄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를 믿는다면 부처도 우리를 돌봐 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대중: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출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중 웃음) 출가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즉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것들 때문에 출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출가하기 전에는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도 있고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나는 독일 정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과 보험금·사회복지금·질병 보험금 등등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일을 하면 사실 아주 좋습니다. 많은 것이 보험 처리가 되니까요. 내가 남아서

1, 2년 더 일을 했다면 최소한 노후를 위한 돈을 좀 모아서 어떤 일을 하려는 데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출가하기 전에 미리 안배를 했다면 돈을 좀더 많이 가지고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니다. 가겠다고 했으면 가는 것이지, 여전히 돈을 탐내서 무엇 하겠습니까? 출가하는데는 본래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떠났습니다. 다시 1, 2년 혹은 1, 2개월을 기다렸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일들이 생겨 내가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날마다 아주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일도 우리는 어찌지 못하는 데,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있으며 내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말했지요. “그만두자. 갈 거라면 바로 가자.” 나는 “이미 출가하기로 했으면서 아직도 돈을 생각해서 무엇 하려는 거지?” 하면서 자신을 야단쳤습니다.

그때 나의 수중에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약 2, 3천의 미국 달러가 있었지요. 인도행 비행기 표를 사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떠났습니다. 두세 벌의 옷과 침낭 한 개만 있었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사고 남았던 그 조금의 돈도 나중에 또 포모사행 비행기 표를 사는 데 쓰고 나니 전혀 남지 않았습니니다. 당시 나는 ‘지금 포모사에 갈 건데 돈이 없으니 어떡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포모사에 왔을 때 나의 수중에는 몇 백대만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에 하루 묵을 정도는 됐지만 방값을 지불하고 나니까 돈이 없었죠. 마침 그때 불교회와 연락이 되어서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내가 묵을 절을 한 군데 소개시켜 주

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포모사에서 멀쩡하게 굶어죽었을 거예요. (대중 웃음)

사실 내가 포모사에 오던 첫날, 이미 불교회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가 알아들길 못했는지 나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목게 했습니다. 나는 그 호텔을 보자 매우 걱정이 되었지요. 돈이 모자랄까 봐 염려되었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고 그에게 “이 호텔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문제없어요. 조금도 비싸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스님들은 모두 여기에 묵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는 이 외국 스님이 어떤 형편인지를 몰랐습니다. (대중 웃음) 다른 외국 스님들이 포모사에 오면 많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아주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공손히 기다리며 맞이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를 데리고 가거나 배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주 걱정이 되었고, 제때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는 호텔에 묵지 않겠어요. 나는 출가자라서 호텔에 묵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 나를 절에 데리고 가서 목게 해줄 수 없나요?”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우선 이곳에서 며칠을 묵으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요. (대중 웃음) 스님께서 방금 오셨기 때문에 당장 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창 수계 때문에 바쁘니, 우선 며칠을 묵으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야기하지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심장이 거의 튀어나올 뻔했어요. (대중 웃음)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내 옷이

깨끗한 걸 그가 보았으니까요. 막 출가했으니 옷이야 당연히 깨끗하지요. 게다가 새 것이라 아주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포모사 사람들은 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호텔 사람들은 모두 날 큰스승으로 여겼지요. 내가 불교회 소개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매우 존경했고, 모두 나를 큰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큰스승이 돈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대중 웃음) 나는 숙박하게 되자마자 바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묵는 데 얼마죠?”라고요. 그러자 그는 “아주 쌉니다. 괜찮아요. 아주 쌉니다.”라고 말했죠. 그는 나에게 있어 쓴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대중 웃음) 나는 계속 물었지만 그가 말하지 않자 다른 종업원에게 가서 “내 방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라고 물었죠. 그러자 종업원은 “스님께서 올라가서 보세요. 방안에 모두 씌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보니 방안에 정말로 핏말이 하나 있었어요. 위에 750대만 달러라고 씌어 있었죠! 와! 딱 맞았어요. (대중 웃음)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몰래 훑기면 됐지요. 포모사에서는 아무도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그가 와서 나에게 머물기에 괜찮으냐고 묻기에 나는 “나는 이 방에 묵고 싶지 않아요. 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어떤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침낭이 있으니 어느 곳에서든 머물 수 있어요. 밖에서 자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좋습니다!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 근처에 경서를 강론하는 강당이 있는데, 그곳에 모셔다 드릴까요?”라고 말했죠. 나는 “물론 좋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중 웃음)

그래서 내가 출가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가겠다고 하고는 바로 가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으며, 돈도 없었습니다. 포모사에 올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올 엄두를 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때 조금도 겁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우리가 충분히 용감하고 진정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행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불보살이 반드시 우리를 돌봐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들은 마지막 일 초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심지어는 공기 한 점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 몰고 가서야 다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보살은 반드시 도와줍니다. 내가 아직 출가하기 전에 이미 3일을 배고파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출가한 뒤에도 굶어죽는 것은 겁나지가 않습니다. 한두 주를 굶는다고 해도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인도에는 아주 많은 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간혹 1, 2주일을 걸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에게 “당신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활하지요?”라고 묻자 그는 “배고프면 들나물을 찾아 먹고, 목마르면 갠지스 강물을 마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나물도 찾지 않고, 날마다 배고플 때 갠지스 강에 가서 강물을 떠서 마십니다. 명상을 마치고 나서 심심하다거나 배가 조금 고프다거나 아무도 와서 공양을 하지 않으면 다시 갠지스 강물을 떠서 마시고, 배부르게 마시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명상을 합니다. (대중 웃음) 그가 사는 곳만 봐도 돈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스스로가 판 작은 동굴일 뿐이니까요. 그는 그 안에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프는데 아무도 공양하러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갠지스 강물이나 마시러 가지요.

나는 그의 생활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모사에 왔을 때 조금도 겁나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도 공양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내가 강을 찾으면 되니까요. 물론 갠지스 강은 아니지만 어떤 강물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 강물에 의지해서 나도 수행하고 명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대중 웃음)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프랑스에 있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나는 아직 학생이어서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3일을 거의 굶어죽을 뻔했습니다. 일처리를 찾지 못한 데다가 영국에 둔 돈은 아직 보내오지도 않았고, 내 수중의 돈도 다 써 버렸거든요. 나는 파리의 생활비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영국은 비교적 싼니다. 파리는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나라 중의 하나예요. 그때 나는 막 파리에 도착해서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썼지요. 파리의 택시 기사들 중 몇몇은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 집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를 태우고 빙빙 돌아다니다가, 충분히 돌아거나 무료해졌을 즈음에야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섰지요. 그러고는 잠깐 사이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돈을 많이 지불해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이잖아요. 마음대로 화를 낼 수가 없지요. 그들을 이기지 못할 테니까요.

육조 혜능은 본래 일개 나무꾼이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홀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수행해서 해탈을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오조 홍인을 찾아갈 준비를 했죠. 그 당시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는데다 그가 외아들이어서 반드시 노모를 봉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출가하고 싶었기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지요.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에게 돈을 한 뭉치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모의 생활이 해결되자 그는 안심하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심성의로 성불을 위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출가를 한다면 불보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진실해야만 됩니다. 불보살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스승을 속일 수 있지만 불보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심성의를 다해야만 하지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다 성공할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 하나, 단순한 목적 한 가지만 있으면 무엇을 하든 누군가가 도와줄 테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출가한 뒤에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간혹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해도 나는 전부 받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니어도 받지 않고 돈이 너무 많아도 받지 않습니다. 쓸 만큼 있으면 받지 않지요. 결코 많이 받아야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적게 받아도 넉넉히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오로지 강연만 하러 가고 돌아와서는 명상을 합니다. 간혹 여러분이 나를 보러 오기도 하지만 그것뿐이고, 아주 단

순하게 생활하지요.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술을 마시지도 않고, (대중 웃음) 혹은 하루에 담배 세 갑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엔 TV도 없고 신문도 없습니다. 출가자들도 아주 착하고, 그들 또한 아주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전기 요금은 가장 많아야 3, 4백 대만 달러이고, 또한 사람들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니 전화 요금도 무척 절약됩니다. 모두 함께 생활하고 조식이 잘되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 산에선 기름 값까지 모두 포함해서 매달 2, 3천 대만 달러 내외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손을 거쳐 온 고물중고’ 차는 때로 아주 많은 돈을 잡아먹습니다. (대중 웃음) 늘 수리를 해야 하지요. 만일 강연하러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포모사에서는 쌀도 싸고 채소도 싸기 때문에 마음대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출가자들도 많이 먹지를 않아서 나는 아주 놀랐습니다. 본래 젊은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들은 식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좀더 아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파산해서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대중 웃음)

그러므로 출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출가는 인과를 초월하고 삼계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출가를 하려 해도 반드시 좋은 법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광친 노스님도 일찍이 말했었지요. “출가는 했지만 좋은 법문, 좋은 스승이 없거나 열심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아무 소용이 없다.” 나도 그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출가의 이상이 아주 높고, 목적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복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법문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의 이생에서의 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아무런 업장도 짓지 않겠지만, 전생의 업장은 없앨 수가 없고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해도 열리지 않아서 한 생을 살았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수행하여 제1세계 혹은 제2세계에 도달한 뒤에, 죽어서 그곳에 머물며 한동안을 향유하고는 다시 떨어져 내려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해탈할 수가 없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는 출가하기 전에 많은 절에 가 보았고 많은 스님들에게서 배웠지만 모두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가가 단지 이럴 뿐이라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저녁 예불하는 것을 제외하곤 온종일 생활상의 잡담이나 나누고, 맛있는 음식이나 많이 만들어 먹었으니까요. 그들은 채식을 하면 영양이 부족하므로 더 많이 먹어야 하고, 색과 향과 맛이 골고루 갖춰진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야만 잘 먹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많이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죠. 출가를 했으면서도 영양이 부족할 걸 염려해 여전히 이런 먹는 일들에 신경을 썼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런 문제를 걱정한다면 언제쯤에나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무얼 먹어도 괜찮습니다.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몸은 저절로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밥 먹고 영양만 충분하면 되지요. 수행을 잘한다면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광친 노스님도 매일 거의 먹지를 않았습니니다. 본래 그는 먹지를 않았지요. 가장 많이 먹

어 봐야 과일을 좀 먹는 거였어요. 그가 산속에서 수행할 때 아무도 그에게 공양을 하지 않았고, 그도 뭔가를 먹지 않았지요. 간혹 원숭이가 과일을 가져와 그에게 공양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뿐이었습니다. 산속엔 그렇게 많은 과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된 이유는 그가 뭔가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많이 먹게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을 높은 경지에 두지 않으면 당연히 낮은 경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대나무 장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위를 향해서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겠지요. 오직 두 갈래 길만이 있습니다.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 마음을 여기에 둔다면(스승님이 배를 가리키심) 당연히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심하니까요! 보통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안 좋은 일을 생각하거나 나쁜 일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그들(출가자)은 산속에서 날마다 7, 8시간을 명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게 없다 해도 조금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아주 무료하다고 느껴져서 그날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굶어죽지 않으리라는 걸 내가 장담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하지는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예컨대 날마다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 간다면 크게 위험하지

는 앓을 겁니다.

사실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몸이 좀 불편하다고 느껴질 뿐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이 세상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모두 먹을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심지어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神通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神通도 아니고, 일종의 수행 법문도 아닙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고 수행이 충분하다면 뭐든 다 가지게 됩니다. 다시금 무언가를 찾으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스스로를 잘 돌볼 테니까요. 막 시작했을 때는 약간 배가고프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한 뒤 먹을 밥이 없다고 해도 굶어죽지는 않을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고 해도 얼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세상적인 면이나 해탈적인 면에서 모두 아주 안전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만든 상황이 아니라 진짜 긴급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스승의 힘이 도와주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면, 설령 넘어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스승은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스승이 와서 여러분을 끌어당겨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스승이 누구이고, 그녀가 어떻게 여러분을 돕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진실하게 수행’을 해야만 보호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아주 안전합니다. 정말로 어느 날엔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오늘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지시를 듣고 진실하게 수행한 사람이라면 꼭 스승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한 바는 모두 삼계 이내의 일입니다. 삼계 너머의 일은 말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본래 나도 그런 먹는 일에 대해선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의 일은 원래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려고 했는데, 오늘 기쁜 나머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은 못 들은 겁니다. 맞지요? 방금 여러분의 대뇌로 녹음되어 들어간 것들은 모두 지워 버리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자기에게 국사國師가 되라고 하자 그는 즉시 강가에 가서 자기 귀를 씻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나요?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것은 고대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주: 허유許由) 그 사람은 왕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대관의 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강가에 가서 귀를 씻었지요. 이미 들어 버렸기 때문에 씻어 버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목동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강가에서 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귀를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자네는 왜 귀를 그토록 오래 씻고 있나?”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방금 왕이

나를 데리고 가서 대관을 시키겠다고 하기에, 즉시 그것을 깨끗이 씻으려고 하는 거라네. 그것이 나의 머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말일세.”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동 친구는 얘기를 듣자마자 소를 위쪽으로 끌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귀를 씻던 사람이 친구에게 물었지요. “자네는 왜 소를 위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나?” 그러자 친구는 “자네가 물에다가 자네 귀를 씻지 않았는가. 나도 나의 소에게 그런 오염된 물은 먹이고 싶지 않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동은 또한 “자네는 어찌 도처에 과시하고 다니며 자네에게 지혜가 있음을 남들에게 알리는 겐가?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 자네의 마음엔 여전히 명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나 보군.” 하며 그를 나무랐습니다.

오늘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가 관음법문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까지 알아 버렸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찾으러 달려올 테니까요.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중 웃음)

Q: 불경에서 말하길, 천제는 불보살의 화신이어서 만일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그들도 와서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마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A: 나는 방금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도 마는 아니라고요. 그들의 일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라고 해도 마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언젠가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할 때, 나는 중생은 부처이고

마도 부처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나는 각 세계마다 교주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안다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이 문을 여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미타불이 가장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만을 외기 때문에 아래의 다른 경지의 교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당신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염불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아미타불만 외라고 가르치지 않고, 아래의 경지에서부터 외면서 올라가도록 가르치지요. 그날 나는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찌면 당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아래에서부터 외면서 올라가야만 유용합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는 꼭 전승하여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와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전에서는 그런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 장

채식의 이로움

10장

채식의 이로움

스승님 말씀 및 인용 내용 종합

관음법문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생 채식을 해야 합니다. 식물성 식품이나 유제품은 괜찮지만, 계란을 비롯한 어떤 동물성 식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의 생명을 빼앗지 마라(不殺生), 즉 “죽이지 말지어다(Thou shalt not kill).”라는 첫째 계율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 그 생명에게 이롭다는 것은 다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게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이롭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업의 법칙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인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고 여러분이 죽이거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생하게 만들면 여러분은 업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은 결국 갚아야만 합니다.

사실상 채식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빚지고 있던 무거운 업장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기분이 활기분해지고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며 미묘하고 새로운 천상의 세계를 내면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불한 대가에 비하면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육식을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외에도 채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모두 상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건강과 영양, 생태계와 환경, 윤리와 동물의 고통, 세계의 굶주림 등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과 영양

인간의 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원래 채식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육식은 인간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헌팅턴(G. S. Huntington) 박사는 한 비교해부학 논문에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육식동물은 대장과 소장이 짧으며 특히 육식동물의 대장은 곧고 평평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채식동물은 대장과 소장이 모두 길입니다. 육류는 섬유질이 적고 단백질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의 장이 채식동물의 장보다 짧은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채식동물처럼 대장과 소장이 다 길입니다. 인간의 장의 길이는 약 28피트(8.5m)에 달하며 소장은 여러 겹으로 겹쳐 있고

소장 벽은 주름이 많고 울퉁불퉁합니다. 인간의 장은 육식동물보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고기는 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며, 그 결과 고기가 부패하여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결장암의 원인과 관련이 있으며 체내의 독소 제거를 담당하는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간경화와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요소와 유로키나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 1파운드에는 유로키나제 단백질이 14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세포를 유로키나제 단백질 용액에 넣으면 세포의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육류에는 섬유소와 섬유질이 부족하는데,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변비가 직장암, 또는 치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육류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역시 심장 혈관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심장 혈관성 질환은 미국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모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망 원인 제2위는 암입니다. 실험 보고서에서는 불에 태우거나 구운 육류에는 치명적인 발암 물질인 메칠콜란트렌(Methylcholanthrene)이라는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류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도살장에서 검역을 거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청난 양의 소·돼지·닭이 판매용으로 도살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씩 검역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고기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니, 한 마리씩 검역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

육류 생산업자들은 동물의 머리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만 자르고 다리에 병이 있으면 다리만 자릅니다. 병에 걸린 부분만 없애고 나머지 부분은 판매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명한 채식인인 켈로그 박사(Dr. J. H. Kellogg)는 “채식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즐겁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바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등을 사료에 섞어 동물에게 먹이거나 동물에게 직접 주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동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약물들이 체내에 흡수되어 사람들이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육류에 들어 있던 항생제의 내성으로 약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의 외과 전문의인 밀러 박사(Dr. Miller)는 포모사에서 4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포모사에 병원을 세워 병원 내의 모든 환자와 직원들까지도 채식을 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인해 의약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건 병만 치료할 뿐이지 우리의 건강은 음식이 유지시켜 줍니다. 식물의 영양은 육류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먹지만 그 동물의 영양 공급원은 식물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수명이 짧고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발병 원인은 병든 동물을 먹어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식물에서 직접 영양을 섭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러 박사는 곡류·콩·채소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식물성 단백질에도 완전 단백질이 있으며 불완전 단백질 식품을 몇 가지 섞어 먹으면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88년 3월 미국 영양학협회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양학협회의 견해로 보자면 적절히 배합된 채식은 건강에 이롭고 영양학적으로 적합하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육식하는 사람이 채식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예일 대학의 어빙 피셔(Irving Fisher) 교수는 채식하는 사람 32명과 육식하는 사람 1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채식하는 사람이 육식하는 사람보다 지구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육식하는 사람은 15명 중 두 명만이 15분에서 30분까지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지만 채식하는 사람은 32명 중 22명이 15분에서 30분까지 팔을 들고 있었고, 15명이 30분 이상, 9명이 1시간 이상, 4명이 2시간 이상 그리고 1명이 3시간 이상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장거리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채식을 합니다. 채식요법 전문가인 바바라 모어 박사(Dr. Barbara More)는 110마일을 27시간 30분에 완주했습니다. 56세의 한 여성이 젊은이들의 기록을 모두 갱신한 것입니다. 그녀는 “끼니마다 채식하는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청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채식을 하면 음식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필요한 칼로리의 4.5%를 단백질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밀에는 칼로리의 17%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있고, 브로콜리에는 45%, 쌀에는 8%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식을 하지 않아도 쉽게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사로 인해 야기되는 심장병과 온갖 종류의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이로움을 주는 채식은 분명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류 및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심장병·유방암·결장암·뇌졸중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저지방식인 채식으로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치료도 할 수 있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 결석·전립선암·당뇨병·소화궤양·담석증·과민성 장 증후군·관절염·잇몸 질환·여드름·췌장암·위암·저혈당증·변비·다발성 게실증·고혈압·골다공증·난소암·치질·비만증·천식 등등. 흡연 외에 육식보다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태계와 환경

육류를 얻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면 그에 따라 열대우림 파괴, 지구 온난화, 수질 오염, 물 부족 현상, 사막화, 에너지 자원의 오용,

세계적인 기아 등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땅·물·에너지·인력을 동원해 육류를 생산하는 것은 결코 지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1960년 이래 소를 기르는 방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중미의 열대우림 25%가 태워졌습니다. 쇠고기를 재료로 한 4온스(약 113g)짜리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 데 55평방 피트(약 18㎡)의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 소 사육은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세 종류의 가스를 대량으로 생성하며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쇠고기 1파운드(약 450g 정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464갤런(약 9,000리터)의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토마토 1파운드를 생산하는 데는 29갤런(약 100리터)의 물만 있으면 되고 통밀빵 1파운드를 생산하는 데는 139갤런(약 530리터)만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쓰는 거의 절반 가량의 물이 소와 기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 사육에 쓰이는 자원으로 곡물을 재배하여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호밀을 가축 사료로 쓰지 않고 사람이 먹는다면 1에이커에 호밀을 재배해 8배의 단백질과 25배의 칼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에이커의 땅에 브로콜리를 재배하면 소를 사육했을 때보다 10배의 단백질과 칼로리·나이아신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만일 가축을 사육하는 땅에다 인류가 먹을 곡물을 재배한다면 세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식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필요한 것만 섭취하고 과도한 살생을 줄이

고 매 끼니를 위해 살아 있는 존재가 희생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의 기분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세계의 굶주림

지구의 10억 인구가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매년 4,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어린이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세계 곡물 수확량의 1/3 이상이 사람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가축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산된 곡물의 70%를 가축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곡물을 가축 사료로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면 아무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의 고통

미국에서만 하루에 10만 마리가 넘는 소가 도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서양에서는 거의 동물들이 '공장식 사육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가장 적은 경비로 가장 많은 동물을 사육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동물들은 비좁은 축사에서 제 모습을 잃은 채 오직 사료를 살코기로 바꾸는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대다수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도살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보면 평생 채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도살장이 존재하는 한 전쟁터도 존재할 것이다. 채식은 인도주의에 대한 엄격한 시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른 채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지원 속에 일상적으로 고기 먹는 습관을 기르며 우리가 먹는 동물이 어떤 일을 겪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

유사 이래로 채소는 인간의 천연 식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와 히브리 신화에 보면 원래 사람들은 과일만 먹었으며 고대 이집트의 지혜로운 성직자들도 결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디오게네스·소크라테스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 또한 모두 채식을 옹호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불은 그 어떤 살아 있는 중생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원리, 즉 아힘사(Ahimsa)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생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육식은 후천적인 습관에 불과할 뿐 우리는 육식을 하려는 욕구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대저 육식을 하는 자는 자비의 종자(種子)가 끊어지리라.” “고기를 먹는 자들은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다. 이생에서는 내가 너를 먹고, 다음 생에는 네가 나를 먹는다. 이런 양상이 영원히 계속되니 그런 이들이 어찌 삼계(三界, 또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초기의 많은 도교 수행자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도 채식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창세기 1:29).” 성경에는 육식을 금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창세기 9:4).” “하느님이 말씀하시되 누가 너희에게 수소와 암염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했느냐? 그 무고한 피로 물든 손을 씻으라. 그래야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손은 피투성이라 얼굴을 돌리리라.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를 용서하리라(이사야 1:11-16).”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성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가, 술을 마신다는가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로마서 14:21).”

최근 역사학자들은 예수의 생애와 그 가르침에 대해 새롭게 밝힌 고대 서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동물의 살을 먹는 자는 자기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니라.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나니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산 것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인도 종교에서도 육식을 금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산 것을 죽이지 않고는 고기를 얻을 수 없다. 중생을 해치는 자는 결코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육식을 피하라(힌두교 계율).”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도 “죽은 동물의 피와 살을 먹지 마라.”라고 씌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사인 한산자(寒山子)도 강력히 육식을 반대하는 시를 썼습니다. “충충히 시장에서 어육을 사 들고 와 처자를 먹이는구나. 그대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 굳이 살생이 필요할까? 이치에 맞지 않구나. 극락 인연은 없어지고 스스로를 지옥의 쓰레기로 만드려니!”

많은 유명한 작가·예술가·과학자·철학자·저명인사들이 채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식의 중요성을 역설한 인물들입니다. 석가모니·불·예수 그리스도·베르길리우스·호라티우스·플라톤·오비디우스·페트라르카·피타고라스·소크라테스·셰익스피어·볼테르·뉴턴·레오나르도 다빈치·다윈·벤저민 프랭클린·에머슨·소로·에밀 졸라·러셀·바그너·샬리·H.G. 웰즈·아인슈타인·타고르·톨스토이·버나드 쇼·마하트마 간디·슈바이처. 그리고 최근 인물로는 마돈나·다이애나 황태자비·린제이 와그너·폴 매카트니·캔디스 버겐 등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식이 사람의 성격에 가져다주는 변화와 정화 효과는 인류에게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채식은 택하는 것은 매우 상서롭고 평화로운 것이다.” 이는 고급 성현들과 저명인사들의 공통된 충고입니다.

질의응답

Q: 동물을 먹는 것이 살생이라면 채소를 먹는 것도 살생 아닙니까?

A: 식물을 먹는 것도 살생이며 약간의 업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 업장은 지극히 적습니다. 매일 2시간 30분씩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이런 업장은 씻을 수 있습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의식이 가장 낮고 고통이 가장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식물

은 90%가 수분이라서 의식 수준이 매우 낮고 고통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또 채소를 먹을 때 그 뿌리를 자르지 않고 지나가 있을 때 따서 먹으면 그들의 무성 생식을 돕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식물에게도 이로운 거지요. 그래서 원예가들은 가지치기를 해주면 식물이 더 크고 아름답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과일나무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은 익으면 향기로운 냄새와 아름다운 색깔, 달콤한 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곳곳에 씨앗을 퍼뜨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과일을 따먹지 않으면 그 과일은 너무 익어서 땅에 떨어져 썩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위에 있는 나무에 가려 햇빛을 못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들에게도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Q: 대부분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은 키가 작고 마르며, 육식하는 사람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A: 채식한다고 해서 꼭 마르고 키가 작지는 않습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한다면 크고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끼리·소·기린·하마·말 등과 같이 몸집이 큰 동물들도 채소와 과일만 먹습니다. 그들은 육식동물보다 훨씬 더 힘이 세면서도 아주 착하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동물은 굉장히 난폭하고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인간이 동물을 많이 먹게 되면 동물적 본능과 성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꼭 키가 크고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더

짧습니다. 에스키모인은 거의 고기만 먹지만 그들이 키가 크고 강합니까? 또 장수합니까? 이 점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Q: 채식하는 사람이 계란을 먹을 수 있습니까?

A: 안 됩니다. 계란을 먹는 것도 살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파는 계란이 무정란이라서 그런 계란을 먹는 건 살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계란은 수정에 적합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계란에서 닭으로 발육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안에는 고유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난세포 외에 다른 세포는 왜 수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란에 단백질·인산과 같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두부로 섭취할 수 있고, 인은 감자 같은 여러 채소에서 섭취하면 됩니다.

예로부터 많은 큰스님들이 고기나 계란을 전혀 먹지 않고도 장수한 것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인광대사印光大師는 공양 때마다 나물 한 그릇에 밥만 조금 먹고도 80세까지 살았습니다. 더구나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미국과 포모사에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환자가 계란을 먹는 사람이라는 건 놀라운 게 아닙니다!

Q: 돼지나 소·닭·오리 등과 같은 가축들은 사람이 기르는 건데, 왜 먹어서는 안 됩니까?

A: 그렇다면 아이들을 기른다고 부모에게 자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모든 생물은 살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홍콩 법률에선 자살도 범죄인데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Q: 동물은 본래 사람들에게 먹히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잡아먹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동물 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죽이기 전에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싶은지 아닌지 물어봤습니까? 모든 생명은 살고 싶어하고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싶지 않는데 동물이 왜 인간에게 먹혀야 합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한 건 겨우 수만 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동물이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동물들이 이 세상에 치일 정도로 많았습니까? 생물은 자연스럽게 생태적 평형을 유지합니다. 먹을 게 모자라고 공간이 부족하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동물의 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Q: 제가 왜 채식을 해야 합니까?

A: 나는 내 안에 계신 신이 원하기 때문에 채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육식은 죽임을 원치 않는 우주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은 살해되고 싶지 않고 도둑맞고 싶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니가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물어뜯지도 않고 칼로 찌르지도 않듯이 여러분은 살생을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살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므로 우리는 살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모든 생명에게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에 국한되지 않고 동물의 생명과 모든 생물의 생명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웅대하고 위대하며 행복하고 무한하게 합니다. 됐습니까?

Q: 채식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채식이 어떻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까?

A: 예.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굶주림과 식량 부족, 또는 국가 간의 식량 분배가 불균등해지면 그 국가의 경제 문제는 더욱 위기에 처해집니다. 여러분이 채식에 관한 잡지나 연구 보고서를 읽어 보면 이 점을 잘 알 것입니다. 고기를 얻으려고 소와 동물을 키우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제3세계에서 굶주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한 미국인이 이런 연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아무 서점에나 가서 채식과 식품 제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읽어 보십시오. 존 로빈스(John Robbins)가 쓴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Diet For a New America)』를 읽어 보십시오. 그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 재벌이었지만 채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

했으며 가문의 전통과 사업에 반대되는 채식 서적을 썼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과 명성과 사업을 잃었지만, 진리를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책은 아주 훌륭합니다. 채식에 관한 많은 정보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밖에도 채식이 어떻게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과 잡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소를 먹이느라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소 한 마리가 우리의 한 끼 밥상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의약품·물·인력·자동차·트럭·도로 건설과 수십만 에이커의 땅이 소모되었는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든 물자가 미개발 국가에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굶주림 문제는 해결됐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국가가 식량 부족을 겪는다면 자국민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인과를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먹기 위해 죽인다면 다음번이나 다음 생에는 우리 또한 다른 형태의 먹이로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똑똑하고 문명도 발달했는데 우리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이웃나라가 왜 고통 받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모두가 우리 입맛과 위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 하나를 먹고 살찌우기 위해 슬한 생명을 죽이고 수많은 인간을 굶주리게 합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도 않았습니. 이해합니까? 이런 죄책감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 양심을 억누르게 되며 암이나 결핵·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나라 미국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미국이 세계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미국인들이 쇠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먹지요. 왜 중국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암 발병률이 낮은지 그것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들에겐 그만큼 많은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까? 이젠 연구 보고서 내놓으시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Q: 채식을 하면 영적으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해주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젠 당신이 오로지 영적으로 이로운 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채식에 대해 질문할 때 건강이나 식이요법이나 체격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채식이 영적인 측면에서 주는 이로움은 매우 깨끗하고 비폭력적이라는 점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죽이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건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신이 모든 동물을 우리와 친구가 되게 하고, 우리를 돕게 하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동물을 돌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백성을 잡아먹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 백성도 없는 왕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신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은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신

외에 누가 또 신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신처럼 되고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묵묵히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의 자녀니까요. 예수는 심지어 그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왜 신을 숭배합니까? 왜 맹신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보통 데이트도 안 해보고 결혼하지는 않는데, 왜 신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신에 대해 알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 달라고 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따르고 싶은 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채식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채식해야 합니다.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보더라도 우리는 채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유를 따져 봐도 우리는 채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자비심의 이유에서도 우리는 채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채식을 해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만약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채식을 한다면 매년 굶주리고 있는 1,600만 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웅이 되려면 채식을 하십시오. 이런 솔한 이유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나를 따르지 않거나 같은 법문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서 부디 채식하십시오!

Q: 모든 사람이 다 식물을 먹게 되면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넓이의 땅이라도 사람들에게 먹일 곡물을 재배한다면 동물에게 먹일 사료를 재배했을 때보다 14배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에이커의 땅에서 소출된 식물은 80만 칼로리의 열량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식물을 동물에게 먹이면 동물의 고기에선 겨우 20만 칼로리의 열량만 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60만 칼로리의 열량이 손실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채식은 분명히 육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Q: 채식주의가 생선을 먹어도 무방합니까?

A: 생선을 먹고 싶다면 먹어도 되지만 만일 여러분이 채식을 하고 싶다면 생선은 채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 두세요.

Q: 마음이 착한 게 중요하지 꼭 채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A: 정말 마음이 착하다면 어떻게 다른 중생의 살을 먹을 수 있겠

습니까? 그 생명이 그렇게 고통 받는 걸 보면 그 고기를 도저히 먹지 못해야 마땅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롭지 못한 일인데,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연지대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몸을 죽이고 그 살을 먹는구나. 그보다 더 잔인하고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도 어떻게 스스로 선량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맹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 살아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 죽는 소리를 듣고서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러기에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다(『맹자』 양혜왕 편).”

인간의 지성은 동물에 비해 훨씬 높은데 우리는 온갖 도구를 이용해 동물을 끔찍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원한을 품고 죽습니다. 것처럼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도살될 때 두려움과 원한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생겨난 유독한 물질이 육질 속에 그대로 남게 되어 먹는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또한 동물의 진동은 인간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진동에 영향을 미쳐 지혜의 발달에 해를 줍니다.

Q: 이른바 ‘방편 채식’을 해도 괜찮습니까? (방편 채식이란 육식을 철저히 금하지는 않고, 채소와 고기가 섞여 있는 반찬에서 채소만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A: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독약에 담갔다가 꺼내면 그 독이 없어집니까? 『열반경』에서 마하가섭이 부처에게 이렇게 물었습

니다. “우리가 탁발을 할 때 고기가 섞인 채소 반찬을 받으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그 음식을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는 “물로 씻고 고기를 가려낸 다음에 먹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건대 고기가 섞인 채소도 물로 씻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었으니 고기를 먹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그 제자들이 모두 채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가 방편 채식을 했느니, 시주받은 고기를 먹었느니 하면서 부처를 중상모략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불경을 충분히 안 읽었거나 읽었어도 경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90% 이상이 채식을 합니다. 그들은 노란 승복을 입은 탁발승을 보면 채식을 보시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보시할 고기도 없지만요.

Q: 예전에 어떤 스승이 “석가모니불이 돼지 족발을 먹고 난 후 설사가 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어떤 버섯을 잘못 먹고 죽었습니다. 범어로 된 그 버섯을 그대로 직역하면 ‘돼지 발’이 되는데, 그건 진짜 돼지 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을 ‘용안龍眼’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름으로 봐서는 식물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식물인 게 아주 많습니다. ‘용안’도 그렇고요. 범어로 이 버섯은 ‘돼지 발’ 또는 ‘돼지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돼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버섯은 옛날 인도에서 구하기 어렵고 아주 귀한 진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에게 그 버섯을 공양 올렸던 것입니다. 이 버섯은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땅 밑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 버섯을 구하려면 노련한 돼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돼지가 이 버섯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돼지는 냄새로 버섯을 찾으면 발로 진흙을 파헤쳐서 캐 먹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이 ‘돼지의 기쁨’, ‘돼지 발’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실이 두 이름은 똑같은 버섯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대충 번역한 데다 사람들이 그 어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후세들이 많은 오해를 하게 돼 부처가 ‘고기 먹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Q: 육식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면 자신이 그 동물을 직접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옳습니까?

A: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육점 주인이 도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능가경』에서 부처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기 먹는 것과 살생하는 것은 똑같은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살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전쟁 또한 너무 많은 살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Q: 어떤 사람들은 식물이 요소나 유로키나제와 같은 유독 물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과일이나 채소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먹으면

우리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A: 농부들이 살충제와 DDT 같은 맹독성 농약을 작물에 뿌리면 암·불임증·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DDT 같은 독극물은 지방에 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 체내의 지방층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기를 먹으면, 그 동물이 성장하는 동안 동물 지방에 저장된 고농축 농약과 다른 독극물을 모두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 몸에 쌓인 DDT 양은 과일이나 채소·곡물에 들어 있는 독성의 13배나 됩니다. 과일 표면에 있는 농약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동물의 지방층에 쌓인 농약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농약은 누적되기 때문에 축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먹이 사슬의 최종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서 발견된 농약은 거의 다 고기를 먹어서 생긴 것이며 채식하는 사람의 몸속에 쌓인 농약은 육식하는 사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육류에는 농약말고도 다른 독소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촉진하거나 고기 색깔과 맛·육질을 변화시키고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화학 물질이 혼합된 사료를 먹입니다.

예를 들면 질산염으로 만든 방부제는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1971년 7월 18일자 『뉴욕 타임즈』에는 “육식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 위험은 연어에 들어 있는 세균, 고기에 들어 있는 농약 잔류물이나 방부제·호르몬·항생제·기타 화학 첨가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이다.”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은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런 것들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

다. 이런 면에서 과일이나 견과류·콩·옥수수·우유에 들어 있는 모든 단백질은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56%나 되는 육류 단백질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런 인공 첨가제가 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기형아까지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신부는 태아의 육체적·영적 건강을 보장해 주는 순수 채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콩 종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과일과 야채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면 됩니다.

관음법문 입문과 5계

[관음법문 입문]

칭하이 스승은 진리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킵니다. 한자로 ‘관음觀音’은 소리의 진동을 관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내면의 빛에 대한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대한 명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체험은 고대로부터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에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니라(요한복음 1장 1절).”라고 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고스Logos·샤브드Shabd·도道·음류音流·나암Naam, 또는 천국의 음악으로 불려 왔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내면에 진동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선율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갈망을 실현시키며, 모든 세속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강력하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소리와 만나면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보다 올바른

모습으로 상당히 바뀝니다.”

내면의 빛, 즉 신의 빛은 ‘깨달음(enlightenment)’이라는 말에 언급된 것과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의 강도는 희미한 빛에서부터 수백만 개의 태양빛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내면의 빛과 소리를 통해 우리는 신을 알게 됩니다.

관음법문 입문은 밀교적인 의식이나 새로운 종교를 갖는 의식이 아닙니다. 입문 중에는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를 명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며, 칭하이 스승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법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칭하이 스승의 육신이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심전심의 전수야말로 이 법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스승의 가피가 없다면 명상법 자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문할 때 즉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돈오頓悟’ 또는 ‘즉각개오(卽刻開悟)’라고 하기도 합니다.

칭하이 스승은 어떤 배경이나 종교에 구애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입 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라거나 참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건 채식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비건 채식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입문의 필수 조건입니다.

입문은 무료로 행해집니다.

관음법문으로 매일 명상하고 5계를 지키는 것이 입문 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계율은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첫 깨달음의 체험을 더 깊고 강렬하게 해주며, 마침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의 최고 경지, 또는 성불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매일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잊게 되어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칭하이 스승의 목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은 어떤 장치나 버팀목 없이 누구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승님은 추종자나 숭배자, 제자들을 구한다든지 회비를 걷는 단체를 설립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선물 또는 큰절을 받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런 것을 공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 스스로 성인聖人으로 진보하기 위한 명상 수행만을 받아들입니다.

[5계]

1.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해치지 마라.¹⁾
2.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마라.
3.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마라.
4.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마라.
5. 중독 물질을 취하지 마라.²⁾

1) 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육류·유제품·어류·가금류·계란(유정란이나 무정란 모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2) 이에는 술·마약·담배·도박·음란물,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나 서적, 비디오 게임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독극물이 포함됩니다.

간행물 안내

책

즉각 깨닫는 열쇠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한국어(1-11), 헝가리어(1).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한국어(1-4), 헝가리어(1).

1992년 선철 특별판

어울락어, 영어.

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특별판

영어(1-6), 중국어(1-6).

사제시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신기한 감응

어울락어(1-2), 중국어(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

삶을 다채롭게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휴광이 너무 꼭 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영어, 중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중국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행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헝가리어.

감문법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영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무상 주방(1)—전세계 채식 요리

어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무상 주방(2)—기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

영어/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한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고귀한 아쟁

독일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천상의 예술

영어, 중국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아네즈 드르노프세크 박사의 저서)

중국어.

위기에서 평화로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태국어, 한국어, 헝가리어, 텔루구어.
http://www.crisis2peace.org

시 작품집

침묵의 눈물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한국어.

무자식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잃어버린 기억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조약들과 황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나비의 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영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DVD.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DVD 1, 2(19개 언어 자막).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CD.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CD.

향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들이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공연): CD.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시간의 그늘(시공을 초월하여)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의 노래 (어울락어, 영어 노래 공연): DVD.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 & DVD 1, 2.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조국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DVD.

잘 자라, 아가야 (영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MP3, CD, DVD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광둥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필리핀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출판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출판물 온라인 주문

<http://www.theCelestialShop.com>

<http://www.EdenRules.com>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사이트(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주요 연락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P.O.Box 9, Hsihu, Miaoli Hsien, Formosa, Republic of China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kr>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온라인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http://www.EdenRules.com> (영어, 중국어)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2226-1345/ 팩스: 886-2-2226-1344

<http://www.sm-cj.com>

러빙푸드 온라인 쇼핑몰

<http://www.lovingfood.com.tw>

러빙헛 인터내셔널

전화: 886-3-468-3345

팩스: 886-3-468-1581

이메일: service@lovinghut.com

<http://www.lovinghut.com/tw>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82-54-53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82-54-532-5821/ 팩스: 82-54-532-5822

(해피요기 SM 보석 천의 만세 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로드하거나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제1권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3길 205번지

전화: (054) 535-9251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511000025100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돕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_____